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모상현



연구보고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책임연구원_ 모상현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책 수혜자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로서 청소년 중심의 참여형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현황파악과 및 청소년 주도 정책사업의 주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주도 참여형 연구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 및 연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관련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 시 청소년의 실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 참여기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파악 및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의 니즈를 탐색하고 청소년 정책방향 설정 시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 참여관점에서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 의견수렴 및 이를 통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중 현장 운용상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소년 주도 연구사업(10대 연구소)의 운영지원을 통한 청소년 참여형 연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한 청소년의 자기 주도 역량 제고 및 참여형 연구 모형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프로그램 영역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 지도자 주도의

정형화된 사업 중심의 청소년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문제해결 기반 프로젝트 형태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10대 청소년이 주도하여 당사자 시각에서 청소년과 자신 주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인문사회적 지식을 근간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본 사업은 청소년 참여 중심 인문사회연구 사업으로 청소년 중심 정책 환경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 주도자기 참여 활동의 대안을 마련해 보고, 협력적 의사결정 및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자기주도성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미래역량기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이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책 수혜자뿐만 아니라 정책 주체로서 청소년 중심의 정책연구 개발 및 추진
- 정책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연구 개발 및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청소년 주도 연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 및 확장 가능성 모색
- 청소년 주도 관점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사업 운영모형 개발을 모색하고 청소년 자기 주도 역량강화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제고

2. 연구방법

- 청소년 자기 참여기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청소년 자기주도 기반 참여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 참여형 활동사업 및 청소년 자기주도형 활동모델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10대 연구소 운영지원

3. 주요결과

- 1) 청소년 자기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조사결과 분석
-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문제로는 '학업성적문제' (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진로(직업)문제' (33.4%), '친구와의 관계' (7.6%), '부

모(보호자)와의 관계' (2.2%), '건강문제' (2/2%), '경제문제' (0.8%), '이성과의 관계' (0.6%), '선생님과의 관계' (0.4%)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이 생각하는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으로는 '진로와 직업' (55.6%), '체험과 활동' (14.4%), '문화와 여가' (12.6%), '권리와 참여' (9.0%), '보호와 복지' (8.4%)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로와 직업과 2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된 체험과 활동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청소년관련 연구를 수행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진로와 직업' (47.0%), '문화와 여가' (18.4%), '체험과 활동' (14.8%), '보호와 복지' (10.8%), '권리와 참여' (9.0%)의 순서로 확인됨.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도성 증진' (42.2%), '건강한 육성' (28.8%), '역량 강화' (16.0%), '활동 활성화' (8.0%), '권한 부여' (5.0%)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 (27.4%), '그런 편이다' (66.4%), '그렇지 않은 편이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비율로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93.8%에 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3.8%), '그런 편이다' (3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0%), '전혀 그렇지 않다' (6.0%)의 비율로 60.0%의 청소년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음.
-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7.8%), '그런 편이다' (4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6%), '전혀 그렇지 않다' (4.2%)의 비율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보장된다는 쪽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4.4%), ‘그런 편이다’ (3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4%), ‘전혀 그렇지 않다’ (6.4%)의 비율로 58.8%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음.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19.2%), ‘그런 편이다’ (44.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8%), ‘전혀 그렇지 않다’ (6.2%)의 비율로 64.0%가 하향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음.

- 청소년들이 정부책임자와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포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15.8%), ‘그런 편이다’ (66.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4%), ‘전혀 그렇지 않다’ (2.2%)의 비율로 참여포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4%로 나타남.

- 청소년 참여(사회문제/학교문제 등)가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부족’ (37.6%),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4.2%), ‘정보부족’ (13.0%), ‘참여방법 모름’ (6.4%), ‘부모님의 허락문제’ (6.2%), ‘선생님의 허락문제’ (2.6%)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사회의 중요한 청소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순위에 대한 응답은 ‘입시/진학 관련 문제’ (35.2%), ‘학교폭력문제’ (19.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4%), ‘진로/직업 관련 문제’ (13.2%),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7.0%), ‘친구문제’ (4.4%), ‘인권/권리침해 문제’ (2.8%), ‘경제문제’, ‘성관련 문제’, ‘음주/흡연문제’가 각(0.4%)의 순서로 나타남.

-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는 ‘중앙정부’ (35.8%), ‘청소년 자신’

(26.2%), '교육감/학교장' (20.6%), '국회' (7.8%), '지방정부(도지사/시장 등)' (7.2%), '시민단체' (2.4%)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 정책 중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영역으로는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4.2%),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3.8%),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1.4%),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0.6%),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10.0%)의 순으로 확인됨.

2) 청소년 주도 참여형 연구사업(10대 연구소)의 운영지원을 통한 참여형 활동 시범사업 추진 및 청소년 참여형 활동 모델 개발

(1) 10대 연구소 운영 구성 및 내용의 실제

- 본 사업은 총 4쿼터, 30회차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참여 연구 활동을 진행. 세부 내용으로는 자기주도 인문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연구 포럼 및 토론회 운영, 문제해결 중심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연구자 양성과정 운영, 청소년 참여 현장조사와 발표를 실행

(2) 청소년 주도 연구결과

- 주제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 주제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사라진 대화, 강요된 중립
- 주제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나는 자격이 없다.

(3) 사업성과 및 청소년 평가

- 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비판적·성찰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경청, 이해의 공존의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협력적 의사 결정 및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성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미래역량 기술을 함양할 수 있었음

4. 정책제언

1) 청소년 자기참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역량 증진 방안

- 수요자 중심의 진로 및 직업정책 발굴 및 청소년 진로분야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진로와 직업영역에서 실제적인 정책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구축 필요
- 정책 수요자(청소년) 입장에서의 정책 계획 및 실시의 필요성 인식 및 제고방안 필요
- 청소년 의견수렴 제도화와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필요
- 청소년 권리인식 및 참여증진을 위한 시민교육강화
- 청소년 자기주도성 증진을 위한 청소년 활동방향 재정립 방안 필요

2) 청소년 주도 참여형 10대 연구소 사업 추후 추진방안

- 미래사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 의미화하는 시간,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보급 필요

- 청소년 참여형 연구모델 확산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며 청소년 참여 연구를 담당, 운영할 인력양성과정 운영 필요
- 본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및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에 중점을 둔 청소년 활동사업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 역량강화중심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들도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생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논의하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음.
- 청소년 참여형 연구에 근거한 결과는 수요자의 정책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기에 청소년 관련 정책 의제 개발, 정책 반영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청소년 참여의 보편화를 위한 참여활동 인식 개선에 기여
- 청소년 참여형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역량개발 기회 제공 및 정책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인식제고에 기여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연구보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청소년 참여 관련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9

2. 조사결과 분석 12

3. 조사결과 요약 74

III. 청소년 참여 10대 연구소 결과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85

2. 사업 내용 및 방법 88

3. 10대 연구소 실행 과정 및 운영의 실제	96
4. 운영 내용 및 실제	100

IV. 청소년 참여 연구결과

주제 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131
주제 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148
주제 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170

V. 정책제언

청소년 참여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7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07
2. 정책제언	208
3. 기대효과	214
10대 연구소 운영사업 결과	216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16
2. 정책제언	217
3. 기대효과	225

참고문헌	227
------------	-----

부 록	231
-----------	-----

Abstract	241
----------------	-----

표 목차

표 II- 조사내용	10
표 II- 응답자 특성	10
표 II- 청소년의 고민 문제	14
표 II- 일상 만족도	16
표 II- 일상 만족도 수준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17
표 II-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20
표 II-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23
표 II-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주제	26
표 II-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36
표 II-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한 집단	37
표 II-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한	37
집단 간 ANOVA 검증	37
표 II-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	39
표 II-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40
표 II-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존중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40
표 II-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42
표 II-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43
표 II-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43
표 II-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	45
표 II-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46
표 II-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46
표 II-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	48

표 II-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49
표 II-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50
표 II-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	51
표 II-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52
표 II-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53
표 II-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	54
표 II-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55
표 II-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55
표 II-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58
표 II-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	61
표 II- 중요한 청소년 문제 2순위	64
표 II- 중요한 청소년 문제 3순위	67
표 II-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	70
표 II-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73
표 III- 10대 연구소 참가자 명단	88
표 III- 청소년 연구주제 내용 개괄	89
표 III- 2019 10대 연구소 일정 및 내용	93
표 III-4 1회차 계획안	100
표 III-5 2회차 계획안	102
표 III-6 3회차 계획안	103
표 III-7 4회차 계획안	105
표 III-8 5회차 계획안	106
표 III-9 6회차 계획안	107
표 III-10 7회차 계획안	108
표 III-11 8회차 계획안	109
표 III-12 9회차 계획안	111
표 III-13 11회차 계획안	112
표 III-14 12회차 계획안	113
표 III-15 13회차 계획안	114
표 III-16 14회차 계획안	115
표 III-17 15회차 계획안	116

표 III-18 16회차 계획안	117
표 III-19 17회차 계획안	118
표 III-20 18회차 계획안	119
표 III-21 19회차 계획안	120
표 III-22 20회차 계획안	121
표 III-23 21회차 계획안	122
표 III-24 22회차 계획안	123
표 III-25 23회차 계획안	124
표 III-26 24회차 계획안	125
표 III-27 25회차 계획안	126
표 III-28 26회차 계획안	127
표 IV- 연구 참가자 목록	132
표 IV- 심층면담 기간 및 참여자 개괄	150
표 IV- 온라인 설문 기간 및 참여자 개괄	151
표 IV-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151
표 IV- 학교 안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임이 밝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까?	154
표 IV-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171
표 V-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형태	211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 고민 문제	12
그림 II-2 일상 만족도	15
그림 II-3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18
그림 II-4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21
그림 II-5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주제	24
그림 II-6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28
그림 II-7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	29
그림 II-8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30
그림 II-9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	31
그림 II-10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	32
그림 II-11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	33
그림 II-12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	34
그림 II-13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56
그림 II-14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	59
그림 II-15 중요한 청소년 문제 2순위	62
그림 II-16 중요한 청소년 문제 3순위	65
그림 II-17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	68
그림 II-18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71
그림 IV- 1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나?	142
그림 IV-2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것’ 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워드 클라우드	156
그림 IV-3. 친구와 싸우지 않는 방법	162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정책의 대상임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을 개선·변화 시킬 수 있고 이를 자기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된 청소년정책의 사업 및 연구 등에 대한 수요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객체로서 대상화 되어 있었지만 이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체로서 기능 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혁신을 모색하는 기회로서 청소년 주도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 미래지향적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의 역할확대에 따른 자기 주도적 관점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개발은 청소년기 선취해야하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임(2015년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개발과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중심의 현장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정책적 노력 중 청소년 영역에서

연계성이 큰 부문은 청소년 참여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한 역량증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 주도성 기반 문제 해결 및 역량의 증진을 통해 실제 자신의 성장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향상되었는지 스스로 고찰함으로써 자신이 실천 가능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테크놀로지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선 청소년이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역량 개발은 청소년활동의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또한 전통적인 사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함을 의미한다. 즉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의 현장참여 연구를 추진하여 청소년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 연구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소년 활동 영역에 미칠 영향력을 예측함으로써 청소년 참여기반 활동 정책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관련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참여방안 증진 및 청소년 주도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정책 및 연구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개발 및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참여방안 증진과 청소년 주도 연구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 자기 참여기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 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삶과 관련이 있는 고민의 문제, 청소년 정책 영역 별 중요도,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 정책 발굴, 청소년 정책관련 인식,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 참여 관련 제반 인식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형화된 사업 중심의 청소년의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프로젝트 형태의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천력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안 할 수 있도록, 10대 중심의 참여형 연구사업을 지원하였다.

셋째, 청소년 자기 참여기반 활동 활성화 및 참여형 10대 연구소 사업의 향후 추진 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이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실태분석 분석결과 및 10대 연구소 운영사업 결과보고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청소년 참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소년 자기 주도 기반 참여활성화방안과와 향후 10대 연구소 사업결과를 통해 모색될 수 있는 정책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대상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별 균등한 비율로 위의 연구내용에서 언급한 연구주제를 설문 도구화하여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셋째, 참여형 활동사업 및 청소년 자기주도형 활동모델 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10대 연구소 운영지원 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참여형

활동 모델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일명「하자」센터에서 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제2장 청소년 참여 관련 실태조사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 청소년의 자기 주도 기반 참여활성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범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일반 청소년 500명 (만12세 ~ 만18세, 중·고등학생)
- 조사기간 : 2019년 11월 25일 ~ 11월 29일

3) 조사 내용

표 II-1 조사내용

구분	항목
인구 특성	성별, 연령, 교급 등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	청소년 고민 문제
	일상 만족도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주제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요한 청소년 문제(1~3순위)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제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4) 응답자 특성

표 II-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243	48.6
	여자	257	51.4
연령	12세	7	1.4
	13세	70	14.0
	14세	86	17.2
	15세	87	17.4
	16세	86	17.2
	17세	80	16.0
	18세	84	16.8
교급	중학교	243	48.6
	고등학교	257	51.4
전체		100	100.0

○ 배경 변인에 의한 집단 간 분류는 아래와 같음

- 성별 구분은 남녀 청소년으로 분류함
- 학교급 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함.
- 만족도 수준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분류함(머징) (만족도 수준도 성별/교급에 따라 기술분석)
- 만족도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백분위수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 기준으로 세 집단 분류 → 하위 25%는 2~5점 N=68/중위 50%는 6~7점 N=302/상위 25%는 8~9점 N=130

2. 조사결과 분석

1)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문제

문) 귀하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일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학업성적문제’ (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진로(직업)문제’ (33.4%), ‘친구와의 관계’ (7.6%),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2.2%), ‘건강문제’ (2/2%), ‘경제문제’ (0.8%), ‘이성과의 관계’ (0.6%), ‘선생님과의 관계’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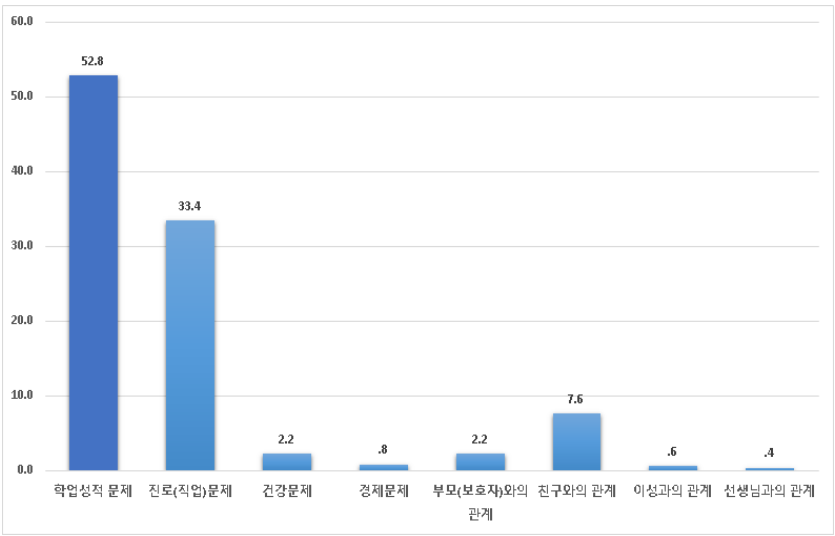


그림 II-1 청소년 고민 문제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일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성별 비교를 보면 남자의 경우 성적(53.9%), 진로(34.2%), 친구(5.8%) 여성의 경우 성적(51.8%), 진로(32.7%), 친구(9.3%)의 순으로 전체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구문제로 고민하는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급 유형별 차이검증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성적(56.0%), 진로(21.8%), 친구(13.6%),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49.8%), 진로(44.4%), 친구(1.9%)의 순으로 전체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문제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친구 문제에서는 중학생인 경우 비율이 각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 비교결과를 보면 만족도 상에 해당하는 그룹의 경우 성적(50.0%), 진로(33.8%), 친구(10.8%) 만족도 중에 해당하는 그룹의 경우 성적(53.0%), 진로(32.3%), 친구(8.6%) 만족도 하에 해당하는 그룹은 성적(54.7%), 진로(34.3%), 친구(4.1%)의 순으로 전체 비율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청소년의 고민 문제

(단위: %)

구분		청소년 고민 문제								
		성적	진로	건강	경제	부모	친구	이성	교사	합계
전체		264 (52.8)	167 (33.4)	11 (2.2)	4 (0.8)	11 (2.2)	38 (7.6)	3 (0.6)	2 (0.4)	500 (100)
성별	남자	131 (53.9)	83 (34.2)	6 (2.5)	2 (0.8)	6 (2.5)	14 (5.8)	1 (0.4)	0 (0.0)	243 (100)
	여자	133 (51.8)	84 (32.7)	5 (1.9)	2 (0.8)	5 (1.9)	24 (9.3)	2 (0.8)	2 (0.8)	257 (100)
x 검정		$\chi^2=4.780$ $df=7$ $p=0.687$								
교급 유형	중학교	136 (56.0)	53 (21.8)	7 (2.9)	2 (0.8)	10 (4.1)	33 (13.6)	2 (0.8)	0 (0.0)	243 (100)
	고등학교	128 (49.8)	114 (44.4)	4 (1.6)	2 (0.8)	1 (0.4)	5 (1.9)	1 (0.4)	2 (0.8)	257 (100)
x 검정		$\chi^2=53.320$ $df=7$ $p=0.000$								
삶의 만족 도	상 중 하	65 (50.0)	44 (33.8)	2 (1.5)	1 (0.8)	2 (1.5)	14 (10.8)	1 (0.8)	1 (0.8)	130 (100)
		105 (53.0)	64 (32.3)	6 (3.0)	1 (0.5)	3 (1.5)	17 (8.6)	1 (0.5)	1 (0.5)	198 (100)
		94 (54.7)	59 (34.3)	3 (1.7)	2 (1.2)	6 (3.5)	7 (4.1)	1 (0.6)	0 (0.0)	172 (100)
x 검정		$\chi^2=110.015$ $df=14$ $p=0.761$								

2) 일상 만족도

문) 귀하는 요즘 자신의 일상(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일상(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6.4%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혀만족하지 못함과 매우 만족에 대한 응답은 각 0.0%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응답율은 0에서 10의 범위 중 7(24.2%)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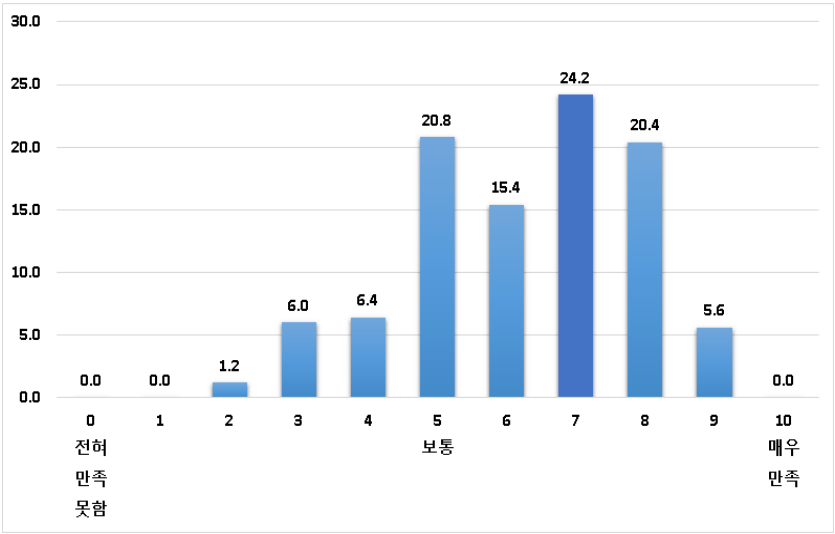


그림 II-2 일상 만족도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일상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보통이상의 응답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83.2% 여자의 경우 89.5%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일상의 만족도가 높게 응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급유형에 따른 집단별 분석결과에서는 중학생이 93.0% 고등학생이 8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4 일상 만족도

(단위: %)

구분		일상 만족도											
		0 전혀 만족 못함	1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만족	합계
전체		0 (0.0)	0 (0.0)	6 (1.2)	30 (6.0)	32 (6.4)	104 (20.8)	77 (15.4)	121 (24.2)	102 (20.4)	28 (5.6)	0 (0.0)	500 (100)
성별	남자	0 (0.0)	0 (0.0)	5 (2.1)	16 (6.6)	20 (8.2)	48 (19.8)	40 (16.5)	54 (22.2)	50 (20.6)	10 (4.1)	0 (0.0)	243 (100)
	여자	0 (0.0)	0 (0.0)	1 (0.4)	14 (5.4)	12 (4.7)	56 (21.8)	37 (14.4)	67 (26.1)	52 (20.2)	18 (7.0)	0 (0.0)	257 (100)
x 검정		x ² =8.869 df=7 p=0.262											
교급 유형	중학교	0 (0.0)	0 (0.0)	2 (0.8)	8 (3.3)	7 (2.9)	52 (21.4)	43 (17.7)	57 (23.5)	55 (22.6)	19 (7.8)	0 (0.0)	243 (100)
	고등 학교	0 (0.0)	0 (0.0)	4 (1.6)	22 (8.6)	25 (9.7)	52 (20.2)	34 (13.2)	64 (24.9)	47 (18.3)	9 (3.5)	0 (0.0)	257 (100)
x 검정		x ² =22.607 df=7 p=0.002											

(3) 일상 만족도 수준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5>에 일상만족도 수준에 대한 집단 간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교급 별 수준에 따른 일상적 만족도 수준은 중학교 청소년(M=6.52, SD=1.530)이 고등학교 청소년(M=6.00, SD=1.7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t=3.552$)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5 일상 만족도 수준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6.12	1.692	-1.838	.066
	여자	257	6.39	1.587		
교급별	중학교	243	6.52	1.530	3.552	.000***
	고등학교	257	6.00	1.708		

*p < .05, **p < .01, ***p < .001

3)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문)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청소년정책 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진로와 직업’ (55.6%), ‘체험과 활동’ (14.4%), ‘문화와 여가’ (12.6%), ‘권리와 참여’ (9.0%), ‘보호와 복지’ (8.4%)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로와 직업과 2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된 체험과 활동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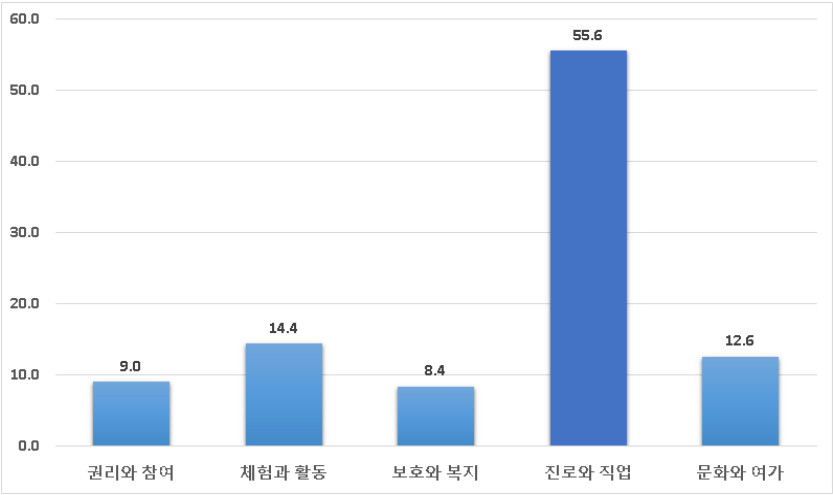


그림 II-3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성별에 따른 중요한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는 남자의 경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57.6%),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4.0%),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2.3%),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8.2%),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7.8%)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53.7%),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4.8%),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2.8%),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0.1%),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 유형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42.0%),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7.3%),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5.6%),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3.6%),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1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68.5%),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3.2%),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8.2%),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5.4%),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48.5%),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6.9%),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3.1%),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11.5%),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0.0%)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53.5%),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4.1%),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3.1%),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1.6%),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7.6%)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63.4%),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2.8%),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1.6%),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7.0%),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 -6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단위: %)

구분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합계
전체		45 (9.0)	72 (14.4)	42 (8.4)	278 (55.6)	63 (12.6)	500 (100)
성별	남자	19 (7.8)	34 (14.0)	20 (8.2)	140 (57.6)	30 (12.3)	243 (100)
	여자	26 (10.1)	38 (14.8)	22 (8.6)	138 (53.7)	33 (12.8)	257 (100)
x 검정		$\chi^2=1.173$ df=4 p=0.883					
교급 유형	중학교	33 (13.6)	38 (15.6)	28 (11.5)	102 (42.0)	42 (17.3)	243 (100)
	고등 학교	12 (4.7)	34 (13.2)	14 (5.4)	176 (68.5)	21 (8.2)	257 (100)
x 검정		$\chi^2=41.027$ df=4 p=0.000					
삶의 만족도	상	13 (10.0)	22 (16.9)	15 (11.5)	63 (48.5)	17 (13.1)	130 (100)
	중	23 (11.6)	28 (14.1)	15 (7.6)	106 (53.5)	26 (13.1)	198 (100)
	하	9 (5.2)	22 (12.8)	12 (7.0)	109 (63.4)	20 (11.6)	172 (100)
x 검정		$\chi^2=10.764$ df=8 p=0.215					

4)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문) 귀하가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정 하고 싶나요?

(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청소년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은 ‘진로와 직업’ (47.0%), ‘문화와 여가’ (18.4%), ‘체험과 활동’ (14.8%), ‘보호와 복지’ (10.8%), ‘권리와 참여’ (9.0%)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진로와 직업’은 2순위로 응답된 ‘문화와 여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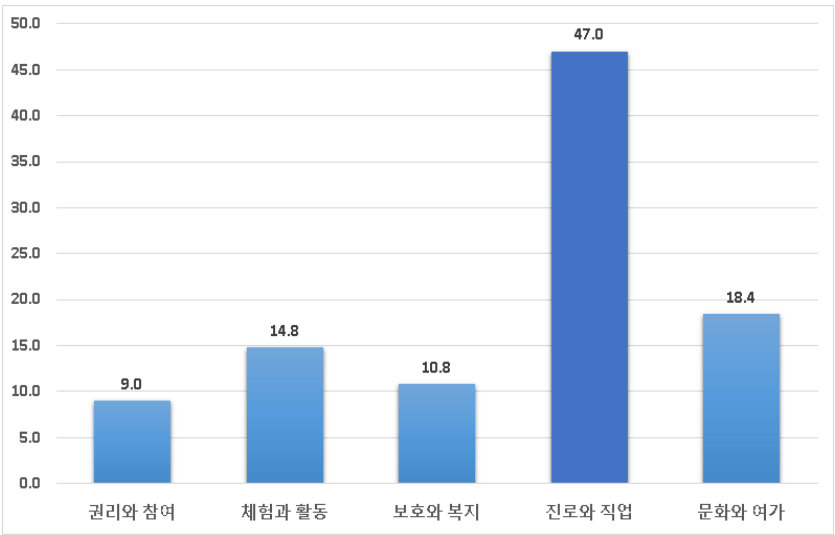


그림 II-4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련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응답에서 남자는 ‘진로와 직업’ (45.7%), ‘문화와 여가’ (22.2%), ‘체험과 활동’ (14.8%), ‘보호와 복지’ (10.3%), ‘권리와 참여’ (7.0%) 여자는 ‘진로와 직업’ (48.2%), ‘체험과 활동’ 그리고 ‘문화와 여가’가 각 (14.8%), ‘보호와 복지’ (11.3%), ‘권리와 참여’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유형에 따른 응답에서 중학생은 ‘진로와 직업’ (36.2%), ‘문화와 여가’ (25.9%), ‘체험과 활동’ (16.9%), ‘보호와 복지’ (10.7%), ‘권리와 참여’ (10.3%) 고등학생은 ‘진로와 직업’ (57.2%), ‘체험과 활동’ (12.8%), ‘문화와 여가’ (11.3%), ‘보호와 복지’ (10.9%), ‘권리와 참여’ (7.8%)의 순위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진로와 직업’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연구주제로 선정되었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41.5%),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20.0%),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7.2%),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10.8%),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8.5%)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47.0%),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7.2%),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5.7%),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12.6%),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7.6%)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51.2%),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8.6%),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1.0%),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10.5%),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7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단위: %)

구분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권리와 참여	체험과 활동	보호와 복지	진로와 직업	문화와 여가	합계
전체		45 (9.0)	74 (14.8)	54 (10.8)	235 (47.0)	92 (18.4)	500 (100)
성별	남자	17 (7.0)	36 (14.8)	25 (10.3)	111 (45.7)	54 (22.2)	243 (100)
	여자	28 (10.9)	38 (14.8)	29 (11.3)	124 (48.2)	38 (14.8)	257 (100)
x 검정		$\chi^2=6.154$ $df=4$ $p=0.188$					
교급 유형	중학교	25 (10.3)	41 (16.9)	26 (10.7)	88 (36.2)	63 (25.9)	243 (100)
	고등학교	20 (7.8)	33 (12.8)	28 (10.9)	147 (57.2)	29 (11.3)	257 (100)
x 검정		$\chi^2=28.503$ $df=4$ $p=0.000$					
삶의 만족도	상	11 (8.5)	25 (17.2)	14 (10.8)	54 (41.5)	26 (20.0)	130 (100)
	중	15 (7.6)	31 (15.7)	25 (12.6)	93 (47.0)	34 (17.2)	198 (100)
	하	19 (11.0)	18 (10.5)	15 (8.7)	88 (51.2)	32 (18.6)	172 (100)
x 검정		$\chi^2=8.401$ $df=8$ $p=0.395$					

5)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주제

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 주도성 증진' (42.2%), '건강한 육성' (28.8%), '역량 강화' (16.0%), '활동 활성화' (8.0%), '권한 부여'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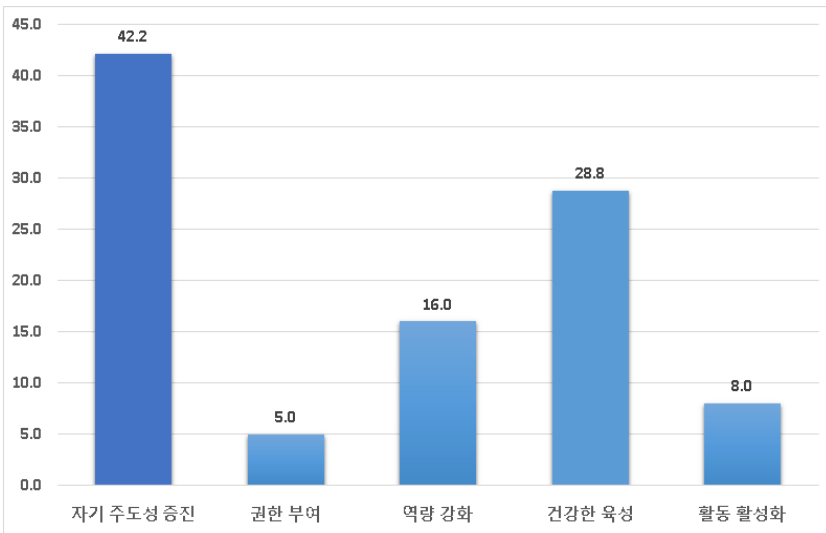


그림 II-5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주제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 남자는 ‘자기 주도성 증진’ (42.8%), ‘건강한 육성’ (26.3%), ‘역량 강화’ (17.7%), ‘활동 활성화’ (8.6%), ‘권한 부여’ (4.5%) 여자는 ‘자기 주도성 증진’ (41.6%), ‘건강한 육성’ (31.1%), ‘역량 강화’ (14.4%), ‘활동 활성화’ (7.4%), ‘권한 부여’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급 유형별 분석에서 중학생은 ‘자기 주도성 증진’ (38.7%), ‘건강한 육성’ (31.7%), ‘역량 강화’ (18.9%), ‘활동 활성화’ (7.0%), ‘권한 부여’ (3.7%) 고등학생은 ‘자기 주도성 증진’ (45.5%), ‘건강한 육성’ (26.1%), ‘역량 강화’ (13.2%), ‘활동 활성화’ (8.9%), ‘권한 부여’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별과 고급 유형별 순위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자기 주도성 증진’ (41.5%), ‘건강한 육성’ (30.8%), ‘역량 강화’ (16.2%), ‘활동 활성화’ (6.9%), ‘권한 부여’ (4.6%)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자기 주도성 증진’ (40.9%), ‘건강한 육성’ (31.3%), ‘역량 강화’ (20.2%), ‘활동 활성화’ (5.1%), ‘권한 부여’ (2.5%)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자기 주도성 증진’ (44.2%), ‘건강한 육성’ (24.4%), ‘활동 활성화’ (12.2%), ‘역량 강화’ (11.0%), ‘권한 부여’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기 주도성 증진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8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주제

(단위: %)

구분		올바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주제					
		자기 주도성 증진	권한 부여	역량 강화	건강한 육성	활동 활성화	합계
전체		211 (42.2)	25 (5.0)	80 (16.0)	144 (28.8)	40 (8.0)	500 (100)
성별	남자	104 (42.8)	11 (4.5)	43 (17.7)	64 (26.3)	21 (8.6)	243 (100)
	여자	107 (41.6)	14 (5.4)	37 (14.4)	80 (31.1)	19 (7.4)	257 (100)
x 검정		$\chi^2=2.340$ $df=4$ $p=0.673$					
교급 유형	중학교	94 (38.7)	9 (3.7)	46 (18.9)	77 (31.7)	17 (7.0)	243 (100)
	고등학교	117 (45.5)	16 (6.2)	34 (13.2)	67 (26.1)	23 (8.9)	257 (100)
x 검정		$\chi^2=7.475$ $df=4$ $p=0.113$					
삶의 만족 도	상	54 (41.5)	6 (4.6)	21 (16.2)	40 (30.8)	9 (6.9)	130 (100)
	중	81 (40.9)	5 (2.5)	40 (20.2)	62 (31.3)	10 (5.1)	198 (100)
	하	76 (44.2)	14 (8.1)	19 (11.0)	42 (24.4)	21 (12.2)	172 (100)
x 검정		$\chi^2=18.838$ $df=8$ $p=0.016$					

6)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문9_1)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

문9_2) 우리사회는 청소년 정책을 결정 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문9_3)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문9_4) 우리사회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문9_5)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문9_6)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

문9_7) 청소년들이 정부 책임자들과 청소년정책을 수립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포탈을 만들 필요가 있다.(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7.4%), ‘그런 편이다’ (66.4%), ‘그렇지 않은 편이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비율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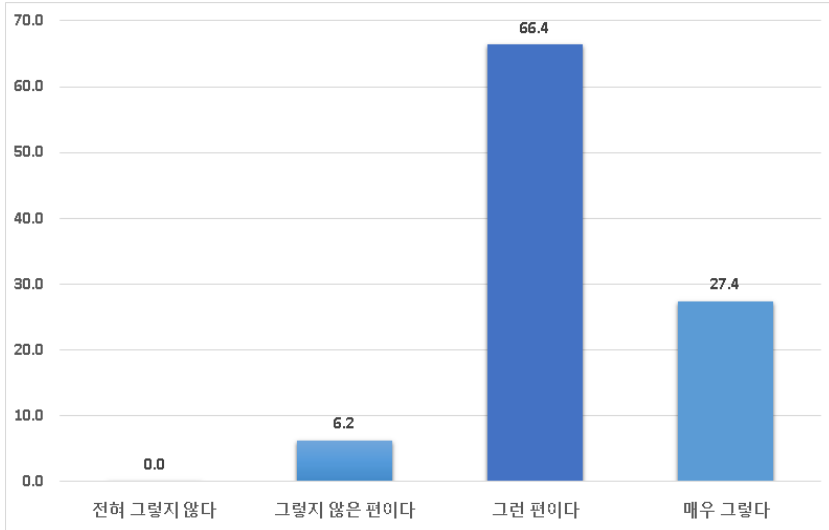


그림 11-6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우리사회는 청소년 정책을 결정 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8.8%), ‘그런 편이다’ (2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8%), ‘전혀 그렇지 않다’ (5.8%)의 비율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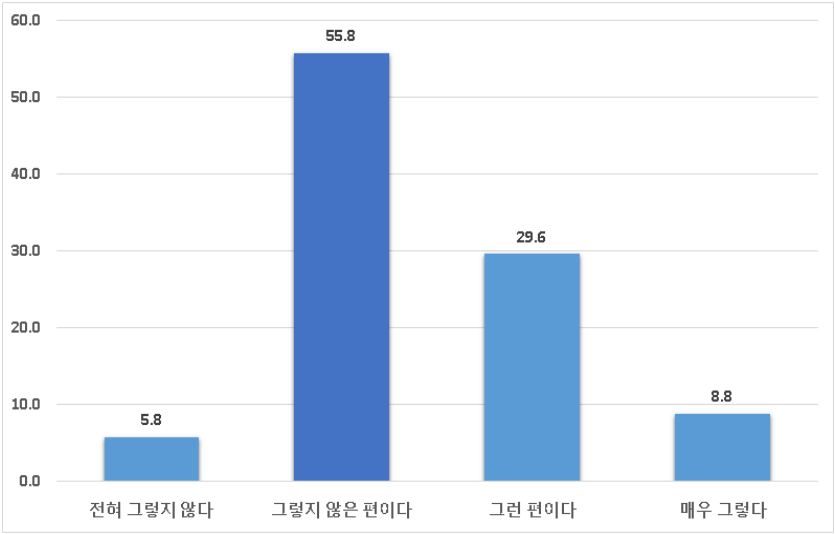


그림 11-7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3.8%), ‘그런 편이다’ (3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0%), ‘전혀 그렇지 않다’ (6.0%)의 비율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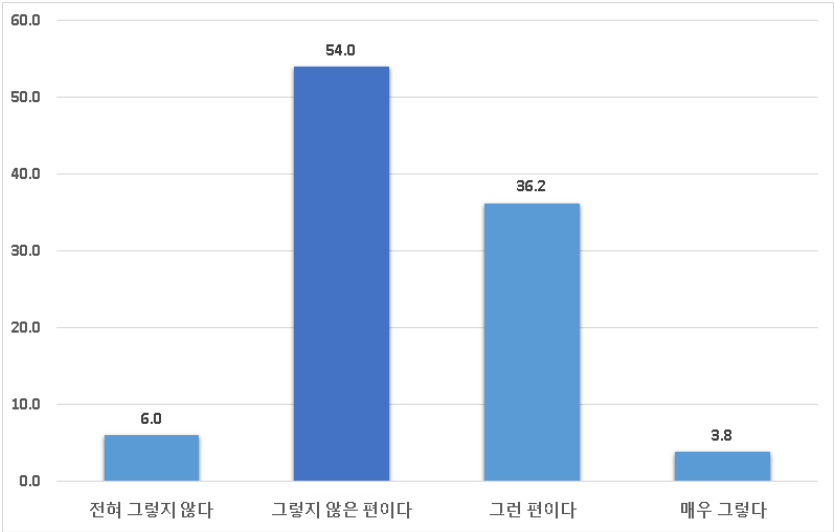


그림 II-8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우리사회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7.8%), ‘그런 편이다’ (4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6%), ‘전혀 그렇지 않다’ (4.2%)의 비율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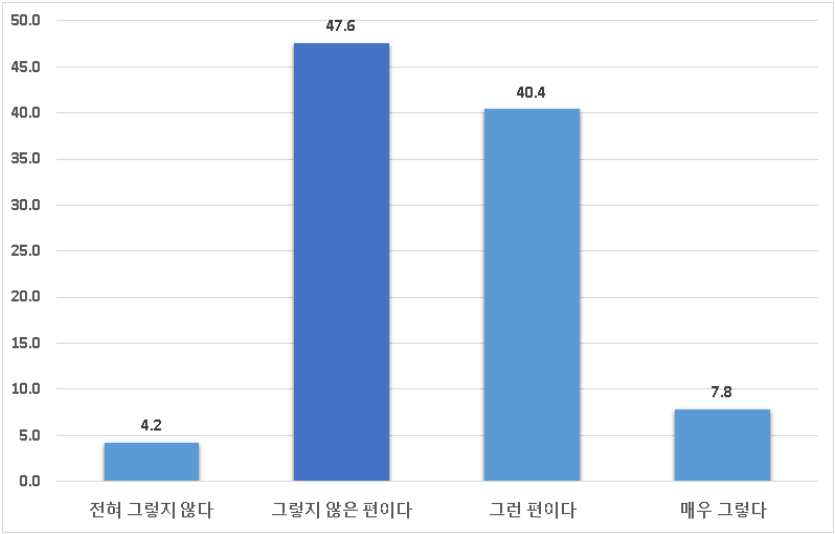


그림 II-9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4.4%), ‘그런 편이다’ (3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4%), ‘전혀 그렇지 않다’ (6.4%)의 비율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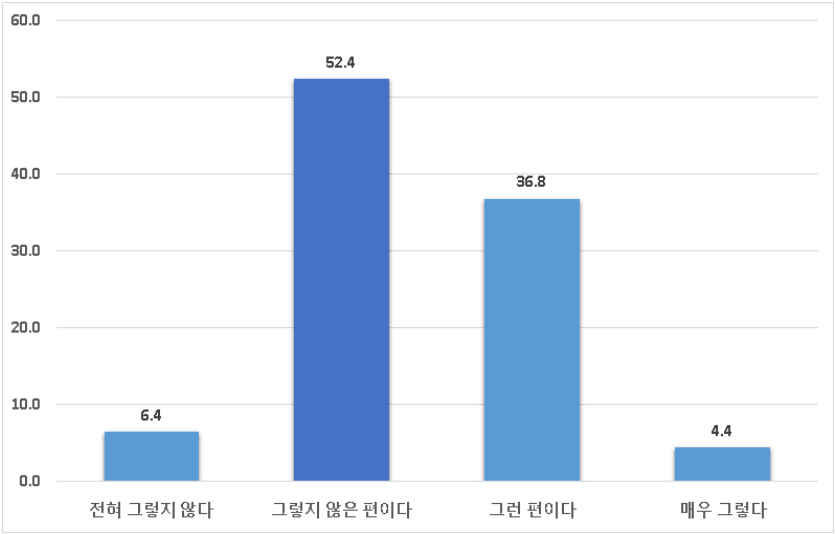


그림 II-10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9.2%), ‘그런 편이다’ (44.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8%), ‘전혀 그렇지 않다’ (6.2%)의 비율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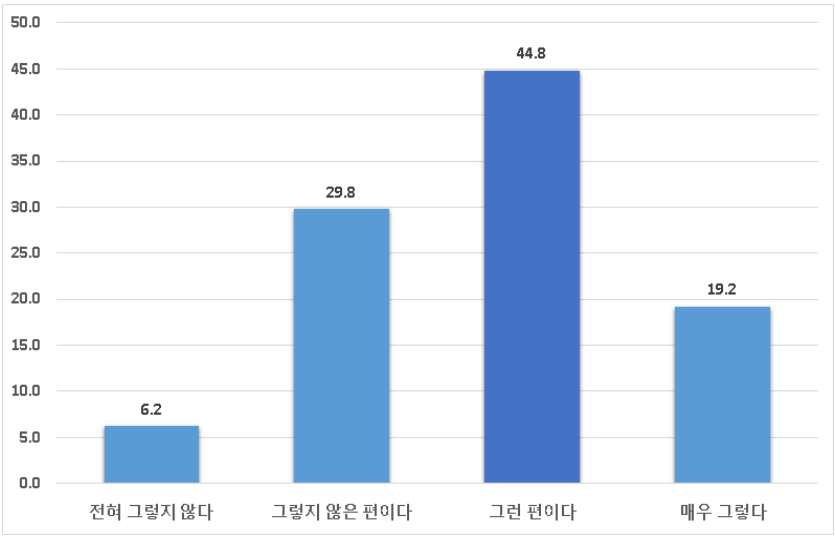


그림 II-11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들이 정부책임자 들과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포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5.8%), ‘그런 편이다’ (66.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4%), ‘전혀 그렇지 않다’ (2.2%)의 비율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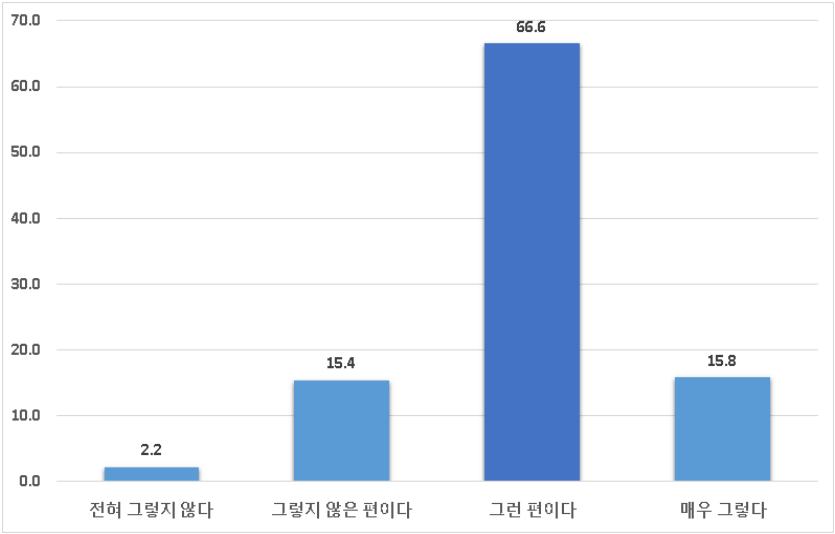


그림 II-12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매우 그렇다’ (25.1%), ‘그런 편이다’ (67.1%), ‘그렇지 않은 편이다’ (7.8%),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비율을 보였다. 여자는 ‘매우 그렇다’ (29.6%), ‘그런 편이다’ (6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비율을 보였다.

교급유형별 분석결과는 중학생은 ‘매우 그렇다’ (25.1%), ‘그런 편이다’ (6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0%)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29.6%), ‘그런 편이다’ (6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비율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35.4%), ‘그런 편이다’ (60.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8%),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분포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20.7%), ‘그런 편이다’ (71.7%), ‘그렇지 않은 편이다’ (7.6%), ‘전혀 그렇지 않다’ (0.0%)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29.1%), ‘그런 편이다’ (6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6.4%),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서 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이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보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9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단위: %)

구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0 (0.0)	31 (6.2)	332 (66.4)	137 (27.4)	500 (100)
성별	남자	0 (0.0)	19 (7.8)	163 (67.1)	61 (25.1)	243 (100)
	여자	0 (0.0)	12 (4.7)	169 (65.8)	76 (29.6)	257 (100)
x 검정		x ² =2.942 df=2 p=0.230				
교급 유형	중학교	0 (0.0)	15 (6.2)	167 (68.7)	61 (25.1)	243 (100)
	고등학교	0 (0.0)	16 (6.2)	165 (64.2)	76 (29.6)	257 (100)
x 검정		x ² =1.296 df=2 p=0.523				
삶의 만족도	상	0 (0.0)	5 (3.8)	79 (60.8)	46 (35.4)	130 (100)
	중	0 (0.0)	15 (7.6)	142 (71.7)	41 (20.7)	198 (100)
	하	0 (0.0)	11 (6.4)	111 (64.5)	50 (29.1)	172 (100)
x 검정		x ² =9.768 df=4 p=0.045				

(3)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10>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한 집단 간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와 교급별 집단 간 차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II-10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한 집단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3.17	.548	-1.579	.115
	여자	257	3.25	.531		
교급별	중학교	243	3.19	.527	-.914	.361
	고등학교	257	3.23	.552		

*p <.05, **p <.01, ***p <.001

(4)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해 삶의 만족도 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분석결과 표 <II-11>에 제시된 것처럼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하는 집단과 중에 해당하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4.726$)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11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 인식 수준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하	172	3.23	.042	4.726	.009**
	중	198	3.13	.037		
	상	130	3.32	.048		
사후검증		상>중				

*p <.05, **p <.01, ***p <.001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매우 그렇다’ (8.2%), ‘그런 편이다’ (30.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3%), ‘전혀 그렇지 않다’ (6.6%)로 나타났다. 여자는 ‘매우 그렇다’ (9.3%), ‘그런 편이다’ (2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2%), ‘전혀 그렇지 않다’ (5.1%)의 비율을 보였다.

교육유형별 분석결과를 중학생은 ‘매우 그렇다’ (7.8%), ‘그런 편이다’ (2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6%), ‘전혀 그렇지 않다’ (6.2%)였고, 고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9.7%), ‘그런 편이다’ (30.7%),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1%), ‘전혀 그렇지 않다’ (5.4%)의 비율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10.0%), ‘그런 편이다’ (2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61.5%), ‘전혀 그렇지 않다’ (1.5%)였다.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9.1%), ‘그런 편이다’ (32.8%),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5%), ‘전혀 그렇지 않다’ (5.6%)였다.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7.6%), ‘그런 편이다’ (27.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2%), ‘전혀 그렇지 않다’ (9.3%)의 비율을 보였다. 인구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12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

(단위: %)

구분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29 (5.8)	279 (55.8)	148 (29.6)	44 (8.8)	500 (100)
성별	남자	16 (6.6)	132 (54.3)	75 (30.9)	20 (8.2)	243 (100)
	여자	13 (5.1)	147 (57.2)	73 (28.4)	24 (9.3)	257 (100)
x 검정		$\chi^2=1.116$ $df=3$ $p=0.773$				
교급 유형	중학교	15 (6.2)	140 (57.6)	69 (28.4)	19 (7.8)	243 (100)
	고등학교	14 (5.4)	139 (54.1)	79 (30.7)	25 (9.7)	257 (100)
x 검정		$\chi^2=1.141$ $df=3$ $p=0.767$				
삶의 만족도	상	2 (1.5)	80 (61.5)	35 (26.9)	13 (10.0)	130 (100)
	중	11 (5.6)	104 (52.5)	65 (32.8)	18 (9.1)	198 (100)
	하	16 (9.3)	95 (55.2)	48 (27.9)	13 (7.6)	172 (100)
x 검정		$\chi^2=10.598$ $df=6$ $p=0.102$				

(6)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13>에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3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2.41	.735	-.196	.845
	여자	257	2.42	.731		
교급별	중학교	243	2.38	.719	-1.052	.293
	고등학교	257	2.45	.744		

*p <.05, **p <.01, ***p <.001

(7)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 존중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별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4 청소년 정책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존중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하	172	2.34	.751	1.446	.237
	중	198	2.45	.737		
	상	130	2.45	.695		

*p <.05, **p <.01, ***p <.001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매우 그렇다’ (1.6%), ‘그런 편이다’ (3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56.4%), ‘전혀 그렇지 않다’ (7.0%)였다. 여자는 ‘매우 그렇다’ (5.8%), ‘그런 편이다’ (37.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1.8%), ‘전혀 그렇지 않다’ (5.1%)의 비율을 보였다.

고급유형별 분석결과는 중학생은 ‘매우 그렇다’ (4.1%), ‘그런 편이다’ (3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6%), ‘전혀 그렇지 않다’ (5.3%)였다. 고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3.5%), ‘그런 편이다’ (37.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5%), ‘전혀 그렇지 않다’ (6.6%)의 비율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8.5%), ‘그런 편이다’ (3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49.2%), ‘전혀 그렇지 않다’ (5.4%)였다.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1.5%), ‘그런 편이다’ (36.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6%), ‘전혀 그렇지 않다’ (6.1%)였다.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2.9%), ‘그런 편이다’ (34.9%),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8%), ‘전혀 그렇지 않다’ (6.4%)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성별에 있어서 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5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단위: %)

구분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30 (6.0)	270 (54.0)	181 (36.2)	19 (3.8)	500 (100)
성별	남자	17 (7.0)	137 (56.4)	85 (35.0)	4 (1.6)	243 (100)
	여자	13 (5.1)	133 (51.8)	96 (37.4)	15 (5.8)	257 (100)
x 검정		$\chi^2=7.243$ $df=3$ $p=0.065$				
교급 유형	중학교	13 (5.3)	135 (55.6)	85 (35.0)	10 (4.1)	243 (100)
	고등학교	17 (6.6)	135 (52.5)	96 (37.4)	9 (3.5)	257 (100)
x 검정		$\chi^2=0.863$ $df=3$ $p=0.834$				
삶의 만족도	상	7 (5.4)	64 (49.2)	48 (36.9)	11 (8.5)	130 (100)
	중	12 (6.1)	110 (55.6)	73 (36.9)	3 (1.5)	198 (100)
	하	11 (6.4)	96 (55.8)	60 (34.9)	5 (2.9)	172 (100)
x 검정		$\chi^2=11.510$ $df=6$ $p=0.074$				

(8)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16>에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M=2.44, SD=.683)이 남자 청소년(M=2.31, SD=.6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수준($t=-2.172$)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급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6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2.31	.624	-2.172	.030*
	여자	257	2.44	.683		
교급별	중학교	243	2.38	.653	.020	.984
	고등학교	257	2.38	.663		

*p <.05, **p <.01, ***p <.001

(9)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별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7 청소년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하	172	2.34	.643	2.326	.099
	중	198	2.34	.614		
	상	130	2.48	.729		

*p <.05, **p <.01, ***p <.001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매우 그렇다’ (7.0%), ‘그런 편이다’ (39.1%), ‘그렇지 않은 편이다’ (49.4%), ‘전혀 그렇지 않다’ (4.5%)였다. 여자는 ‘매우 그렇다’ (8.6%), ‘그런 편이다’ (4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9%), ‘전혀 그렇지 않다’ (3.9%)의 비율을 보였다.

교육유형별 분석결과는 중학생은 ‘매우 그렇다’ (6.6%), ‘그런 편이다’ (4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46.9%), ‘전혀 그렇지 않다’ (4.9%)였다. 고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8.9%), ‘그런 편이다’ (39.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2%), ‘전혀 그렇지 않다’ (3.5%)의 비율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8.5%), ‘그런 편이다’ (4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8%), ‘전혀 그렇지 않다’ (3.8%)였다.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8.1%), ‘그런 편이다’ (3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0%), ‘전혀 그렇지 않다’ (4.0%)였다.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7.0%), ‘그런 편이다’ (3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0%), ‘전혀 그렇지 않다’ (4.7%)의 비율을 보였다. 인구특성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18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

(단위: %)

구분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21 (4.2)	238 (47.6)	202 (40.4)	39 (7.8)	500 (100)
성별	남자	11 (4.5)	120 (49.4)	95 (39.1)	17 (7.0)	243 (100)
	여자	10 (3.9)	118 (45.9)	107 (41.6)	22 (8.6)	257 (100)
x 검정		$\chi^2=1.027$ $df=3$ $p=0.795$				
t-test		$t=-1.006$				
교급 유형	중학교	12 (4.9)	114 (46.9)	101 (41.6)	16 (6.6)	243 (100)
	고등학교	9 (3.5)	124 (48.2)	101 (39.3)	23 (8.9)	257 (100)
x 검정		$\chi^2=1.714$ $df=3$ $p=0.634$				
t-test		$t=-0.622$				
삶의 만족 도	상	5 (3.8)	57 (43.8)	57 (43.8)	11 (8.5)	130 (100)
	중	8 (4.0)	95 (48.0)	79 (39.9)	16 (8.1)	198 (100)
	하	8 (4.7)	86 (50.0)	66 (38.4)	12 (7.0)	172 (100)
x 검정		$\chi^2=1.545$ $df=6$ $p=0.956$				
ANOVA		$F=0.646$				

* = $p<0.05$, ** = $p<0.01$, *** = $p<0.001$

(10)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19>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9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2.49	.694	-1.006	.315
	여자	257	2.55	.706		
교급별	중학교	243	2.50	.695	-.622	.534
	고등학교	257	2.54	.707		

*p <.05, **p <.01, ***p <.001

(11)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별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0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하	172	2.48	.696	.646	.525
	중	198	2.52	.703		
	상	130	2.57	.704		

*p <.05, **p <.01, ***p <.001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매우 그렇다’ (5.3%), ‘그런 편이다’ (3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2%), ‘전혀 그렇지 않다’ (8.2%) 여자는 ‘매우 그렇다’ (3.5%), ‘그런 편이다’ (37.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5%), ‘전혀 그렇지 않다’ (4.7%)의 비율을 보였다.

교급유형별 분석결과는 중학생은 ‘매우 그렇다’ (4.9%), ‘그런 편이다’ (32.1%), ‘그렇지 않은 편이다’ (58.0%), ‘전혀 그렇지 않다’ (4.9%) 고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3.9%), ‘그런 편이다’ (41.2%),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1%), ‘전혀 그렇지 않다’ (7.8%)의 비율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7.7%), ‘그런 편이다’ (37.7%), ‘그렇지 않은 편이다’ (50.8%), ‘전혀 그렇지 않다’ (3.8%)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4.0%), ‘그런 편이다’ (39.9%), ‘그렇지 않은 편이다’ (49.0%), ‘전혀 그렇지 않다’ (7.1%)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2.3%), ‘그런 편이다’ (3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57.6%), ‘전혀 그렇지 않다’ (7.6%)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서 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이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보다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

(단위: %)

구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32 (6.4)	262 (52.4)	184 (36.8)	22 (4.4)	500 (100)
성별	남자	20 (8.2)	122 (50.2)	88 (36.2)	13 (5.3)	243 (100)
	여자	12 (4.7)	140 (54.5)	96 (37.4)	9 (3.5)	257 (100)
x 검정		$\chi^2=3.923$ $df=3$ $p=0.270$				
t-test		$t=-0.166$				
교급 유형	중학교	12 (4.9)	141 (58.0)	78 (32.1)	12 (4.9)	243 (100)
	고등학교	20 (7.8)	121 (47.1)	106 (41.2)	10 (3.9)	257 (100)
x 검정		$\chi^2=7.583$ $df=3$ $p=0.055$				
t-test		$t=-0.697$				
삶의 만족도	상	5 (3.8)	66(50.8)	49(37.7)	10(7.7)	130(100)
	중	14 (7.1)	97(49.0)	79(39.9)	8(4.0)	198(100)
	하	13 (7.6)	99(57.6)	56(32.6)	4(2.3)	172(100)
x 검정		$\chi^2=9.532$ $df=6$ $p=0.146$				
ANOVA		$F=3.252^*(\text{상}>\text{하})$				

* = $p<0.05$, ** = $p<0.01$, *** = $p<0.001$

(12)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22>에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2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2.39	.715	-.166	.868
	여자	257	2.40	.636		
교급별	중학교	243	2.37	.658	-.697	.486
	고등학교	257	2.41	.691		

*p <.05, **p <.01, ***p <.001

(13)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II-23>에 제시된 것처럼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하는 집단과 하에 해당하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3.252$)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23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하	172	2.30	.639	3.252	.040*
	중	198	2.41	.683		
	상	130	2.49	.696		
사후검증		상>하				

*p <.05, **p <.01, ***p <.001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매우 그렇다’ (17.7%), ‘그런 편이다’ (44.0%),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9%), ‘전혀 그렇지 않다’ (7.4%) 여자는 ‘매우 그렇다’ (20.6%), ‘그런 편이다’ (4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8%), ‘전혀 그렇지 않다’ (5.1%)의 비율을 보였다.

교급 유형별 분석결과는 중학생은 ‘매우 그렇다’ (20.6%), ‘그런 편이다’ (37.4%), ‘그렇지 않은 편이다’ (34.6%), ‘전혀 그렇지 않다’ (7.4%) 고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17.9%), ‘그런 편이다’ (51.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5.3%), ‘전혀 그렇지 않다’ (5.1%)의 비율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26.2%), ‘그런 편이다’ (43.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9%), ‘전혀 그렇지 않다’ (6.2%)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18.2%), ‘그런 편이다’ (45.5%), ‘그렇지 않은 편이다’ (30.3%), ‘전혀 그렇지 않다’ (6.1%)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15.1%), ‘그런 편이다’ (44.8%),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4%), ‘전혀 그렇지 않다’ (8.7%)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서 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이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보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

(단위: %)

구분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31 (6.2)	149 (29.8)	224 (44.8)	96 (19.2)	500 (100)
성별	남자	18 (7.4)	75 (30.9)	107 (44.0)	43 (17.7)	243 (100)
	여자	13 (5.1)	74 (28.8)	117 (45.5)	53 (20.6)	257 (100)
x 검정		$\chi^2=1.911$ df=3 p=0.591				
교급 유형	중학교	18 (7.4)	84 (34.6)	91 (37.4)	50 (20.6)	243 (100)
	고등학교	13 (5.1)	65 (25.3)	133 (51.8)	46 (17.9)	257 (100)
x 검정		$\chi^2=10.887$ df=3 p=0.012				
삶의 만족도	상	4 (6.2)	35 (26.9)	57 (43.8)	34 (26.2)	130 (100)
	중	12 (6.1)	60 (30.3)	90 (45.5)	36 (18.2)	198 (100)
	하	15 (8.7)	54 (31.4)	77 (44.8)	26 (15.1)	172 (100)
x 검정		$\chi^2=9.259$ df=6 p=0.160				

(14)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25>에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5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2.72	.841	-1.309	.191
	여자	257	2.82	.816		
교급별	중학교	243	2.71	.876	-1.521	.129
	고등학교	257	2.82	.778		

*p <.05, **p <.01, ***p <.001

(15)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별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표 <II-26>에 제시된 것처럼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하는 집단과 하에 해당하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3.956$)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26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하	172	2.66	.839	3.956	.020*
	중	198	2.76	.820		
	상	130	2.93	.809		
사후검증		상>하				

*p <.05, **p <.01, ***p <.001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 중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질문에 남자는 ‘매우 그렇다’ (16.5%), ‘그런 편이다’ (65.0%),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2%), ‘전혀 그렇지 않다’ (3.3%) 여자는 ‘매우 그렇다’ (15.2%), ‘그런 편이다’ (68.1%),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6%), ‘전혀 그렇지 않다’ (1.2%)의 비율을 보였다.

교급유형별 분석결과를 중학생은 ‘매우 그렇다’ (11.5%), ‘그런 편이다’ (7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8%), ‘전혀 그렇지 않다’ (2.1%) 고등학생은 ‘매우 그렇다’ (19.8%), ‘그런 편이다’ (61.9%), ‘그렇지 않은 편이다’ (16.0%), ‘전혀 그렇지 않다’ (2.3%)의 비율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20.0%), ‘그런 편이다’ (69.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8%), ‘전혀 그렇지 않다’ (0.0%)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14.1%), ‘그런 편이다’ (69.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7%), ‘전혀 그렇지 않다’ (1.0%)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은 ‘매우 그렇다’ (14.5%), ‘그런 편이다’ (61.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6%), ‘전혀 그렇지 않다’ (5.2%)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삶의 만족도에서 집단 간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되는 그룹이 삶의 만족도 하에 해당되는 그룹보다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7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

(단위: %)

구분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11 (2.2)	77 (15.4)	333 (66.6)	79 (15.8)	500 (100)
성별	남자	8 (3.3)	37 (15.2)	158 (65.0)	40 (16.5)	243 (100)
	여자	3(1.2)	40 (15.6)	175 (68.1)	39 (15.2)	257 (100)
x 검정		$\chi^2=2.880$ df=3 p=0.410				
교급 유형	중학교	5 (2.1)	36 (14.8)	174 (71.6)	28 (11.5)	243 (100)
	고등학교	6 (2.3)	41 (16.0)	159 (61.9)	51 (19.8)	257 (100)
x 검정		$\chi^2=7.401$ df=3 p=0.060				
삶의 만족도	상	0 (0.0)	14 (10.8)	90 (69.2)	26 (20.0)	130 (100)
	중	2 (1.0)	31 (15.7)	137 (69.2)	28 (14.1)	198 (100)
	하	9 (5.2)	32 (18.6)	106 (61.6)	25 (14.5)	172 (100)
x 검정		$\chi^2=17.234$ df=6 p=0.008				

(16)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표 <II-28>에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교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8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집단 간 독립 t-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43	2.95	.669	-.464	.643
	여자	257	2.97	.596		
교급별	중학교	243	2.93	.584	-1.173	.241
	고등학교	257	2.99	.673		

*p <.05, **p <.01, ***p <.001

(16)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별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표 <II-29>에 제시된 것처럼 삶의 만족도 상에 해당하는 집단과 하에 해당하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5.338$)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29 청소년 온라인 참여포탈 필요에 대한 집단 간 ANOVA 검증

항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삶의 만족도	하	172	2.85	.723	5.338	.005**
	중	198	2.96	.582		
	상	130	3.09	.549		
사후검증		상>하				

*p <.05, **p <.01, ***p <.001

7)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문) 우리사회의 청소년 참여(사회문제/학교문제 등)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시간부족' (37.6%),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4.2%), '정보부족' (13.0%), '참여방법 모름' (6.4%), '부모님의 허락문제' (6.2%), '선생님의 허락문제'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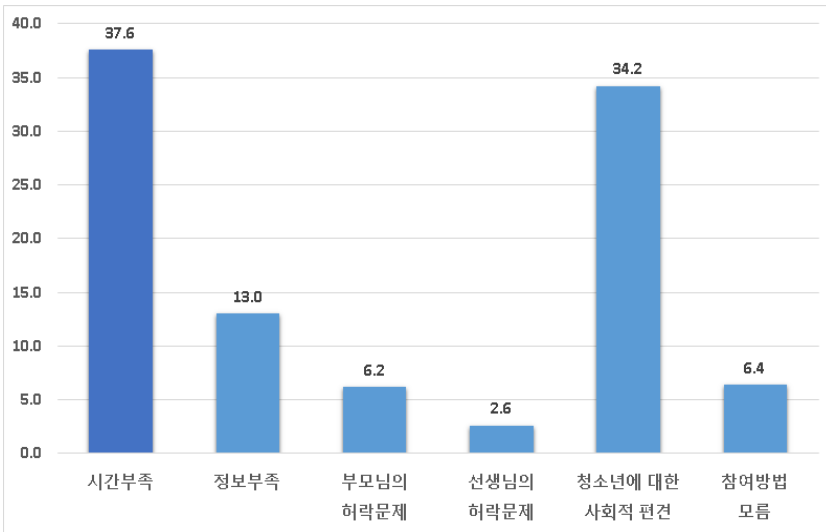


그림 II-13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남자는 ‘시간부족’ (37.9%),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3.7%), ‘정보부족’ (12.3%), ‘부모님의 허락문제’ (7.4%), ‘참여방법 모름’ (7.0%), ‘선생님의 허락문제’ (1.6%)였다. 여자는 ‘시간부족’ (37.4%),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4.6%), ‘정보부족’ (13.6%), ‘참여방법 모름’ (5.8%), ‘부모님의 허락문제’ (5.1%), ‘선생님의 허락문제’ (3.5%)순으로 나타났다.

교급 유형별 분석에서 중학생은 ‘시간부족’ (34.6%),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3.3%), ‘정보부족’ (17.3%), ‘부모님의 허락문제’ (7.8%), ‘참여방법 모름’ (4.9%), ‘선생님의 허락문제’ (2.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시간부족’ (40.5%),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5.0%), ‘정보부족’ (8.9%), ‘참여방법 모름’ (7.8%), ‘부모님의 허락문제’ (4.7%), ‘선생님의 허락문제’ (3.1%)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별 분석에서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시간부족’ (34.6%),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1.5%), ‘정보부족’ (18.5%), ‘부모님의 허락문제’ (7.7%), ‘참여방법 모름’ (5.4%), ‘선생님의 허락문제’ (2.3%)였다. 삶의 만족도 중에 해당하는 그룹은 ‘시간부족’ (36.4%),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4.8%), ‘정보부족’ (12.1%), ‘부모님의 허락문제’ (7.6%), ‘참여방법 모름’ (6.1%), ‘선생님의 허락문제’ (3.0%)였다. 하에 해당하는 그룹은 ‘시간부족’ (41.3%),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5.5%), ‘정보부족’ (9.9%), ‘참여방법 모름’ (7.6%), ‘부모님의 허락문제’ (3.5%), ‘선생님의 허락문제’ (2.3%)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간부족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청소년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나타났다.

표 II-30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단위: %)

구분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시간 부족	정보 부족	부모님의 허락문제	선생님의 허락문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참여방법 모름
전체		188 (37.6)	65 (13.0)	31 (6.2)	13 (2.6)	171 (34.2)	32 (6.4)
성별	남자	92 (37.9)	30 (12.3)	18 (7.4)	4 (1.6)	82 (33.7)	17 (7.0)
	여자	96 (37.4)	35 (13.6)	13 (5.1)	9 (3.5)	89 (34.6)	15 (5.8)
x 검정		$\chi^2=3.221$ $df=5$ $p=0.666$					
교급 유형	중학교	84 (34.6)	42 (17.3)	19 (7.8)	5 (2.1)	81 (33.3)	12 (4.9)
	고등학교	104 (40.5)	23 (8.9)	12 (4.7)	8 (3.1)	90 (35.0)	20 (7.8)
x 검정		$\chi^2=12.046$ $df=5$ $p=0.034$					
삶의 만족도	상	45 (34.6)	24 (18.5)	10 (7.7)	3 (2.3)	41 (31.5)	7 (5.4)
	중	72 (36.4)	24 (12.1)	15 (7.6)	6 (3.0)	69 (34.8)	12 (6.1)
	하	71 (41.3)	17 (9.9)	6 (3.5)	4 (2.3)	61 (35.5)	13 (7.6)
x 검정		$\chi^2=9.717$ $df=10$ $p=0.466$					

8) 우리 사회의 중요한 청소년 문제

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지 순위대로 답변해 주세요.
(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에 대한 응답은 ‘입시/진학 관련 문제’ (35.2%), ‘학교 폭력문제’ (19.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4%), ‘진로/직업 관련 문제’ (13.2%),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7.0%), ‘친구문제’ (4.4%), ‘인권/권리침해 문제’ (2.8%), ‘경제문제’, ‘성관련문제’, ‘음주/흡연문제’가 각(0.4%)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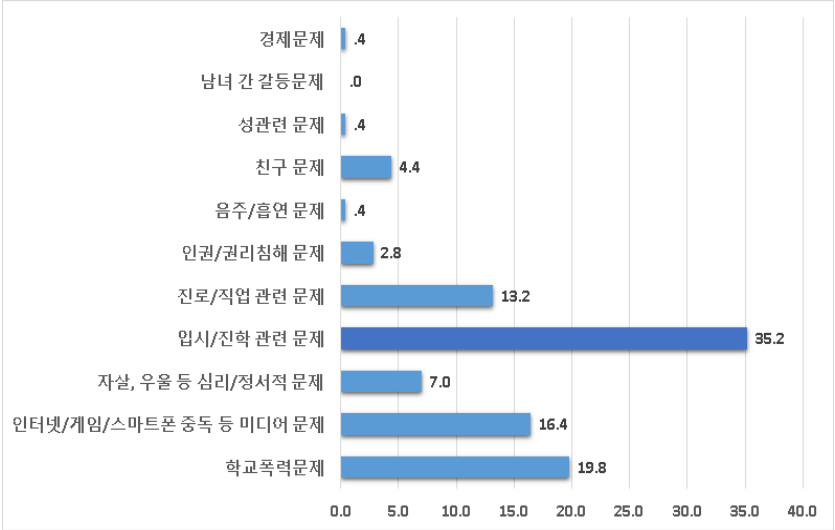


그림 II-14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에 대해 남자는 ‘입시/진학 관련 문제’ (34.6%),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20.2%), ‘학교폭력문제’ (18.1%)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자는 ‘입시/진학 관련 문제’ (35.8%), ‘학교폭력문제’ (21.4%), ‘진로./직업관련 문제’ (14.8%)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급 유형별 분석에서 중학생은 ‘입시/진학 관련 문제’ (29.6%),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22.6%), ‘학교폭력문제’ (18.1%)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입시/진학 관련 문제’ (40.5%), ‘학교폭력문제’ (21.4%), ‘진로./직업관련 문제’ (14.4%)의 순으로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별 분석에서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입시/진학 관련 문제’ (32.3%), ‘학교폭력문제’ (20.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8.5%)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중에 해당하는 그룹은 ‘입시/진학 관련 문제’ (34.3%), ‘학교폭력문제’ (25.3%),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4.6%)의 순으로 응답했다. 하에 해당하는 그룹은 ‘입시/진학관련 문제’ (38.4%),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9%), ‘진로/직업 관련 문제’ (15.7%)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II-31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

(단위: %)

구분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											
		학교 폭력 문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자살 우울 등 심리 정서 적 문제	입시 진학 관련 문제	진로 직업 관련 문제	인권 권리 침해 문제	음주 흡연 문제	친구 문제	성관 련 문제	남녀 간 갈등 관련 문제	경제 문제	합계
전체		99 (19.8)	82 (16.4)	35 (7.0)	176 (35.2)	66 (13.2)	14 (2.8)	2 (0.4)	22 (4.4)	2 (0.4)	0 (0.0)	2 (0.4)	500 (100)
성별	남자	44 (18.1)	49 (20.2)	17 (7.0)	84 (34.6)	28 (11.5)	6 (2.5)	2 (0.8)	11 (4.5)	0 (0.0)	0 (0.0)	2 (0.8)	243 (100)
	여자	55 (21.4)	33 (12.8)	18 (7.0)	92 (35.8)	38 (14.8)	8 (3.1)	0 (0.0)	11 (4.3)	2 (0.8)	0 (0.0)	0 (0.0)	257 (100)
x 검정		x²=12.155 df=9 p=0.205											
교급 유형	중학교	44 (18.1)	55 (22.6)	16 (6.6)	72 (29.6)	29 (11.9)	9 (3.7)	2 (0.8)	14 (5.8)	0 (0.0)	0 (0.0)	2 (0.8)	243 (100)
	고등 학교	55 (21.4)	27 (10.5)	19 (7.4)	104 (40.5)	37 (14.4)	5 (1.9)	0 (0.0)	8 (3.1)	2 (0.8)	0 (0.0)	0 (0.0)	257 (100)
x 검정		x²=26.236 df=9 p=0.002											
삶의 만족도	상	27 (19.8)	24 (18.5)	9 (6.9)	42 (32.3)	17 (13.1)	2 (1.5)	1 (0.8)	8 (6.2)	0 (0.0)	0 (0.0)	0 (0.0)	130 (100)
	중	50 (25.3)	29 (14.6)	13 (6.6)	68 (34.3)	22 (11.1)	5 (2.5)	0 (0.0)	9 (4.5)	1 (0.5)	0 (0.0)	1 (0.5)	198 (100)
	하	22 (12.8)	29 (16.9)	13 (7.6)	66 (38.4)	27 (15.7)	7 (4.1)	1 (0.6)	5 (2.9)	1 (0.6)	0 (0.0)	1 (0.6)	172 (100)
x 검정		x²=16.856 df=18 p=0.533											

(3)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중요한 청소년 문제 2순위에 대한 응답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9.2%), ‘입시/진학 관련 문제’ (17.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5.6%), ‘학교폭력문제’ (12.0%),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11.0%), ‘친구문제’ (10.6%), ‘성관련 문제’, ‘인권/권리침해 문제’ 각 (4.2%), ‘음주/흡연 문제’ (2.6%), ‘경제문제’ (1.6%), ‘남녀 간 갈등문제’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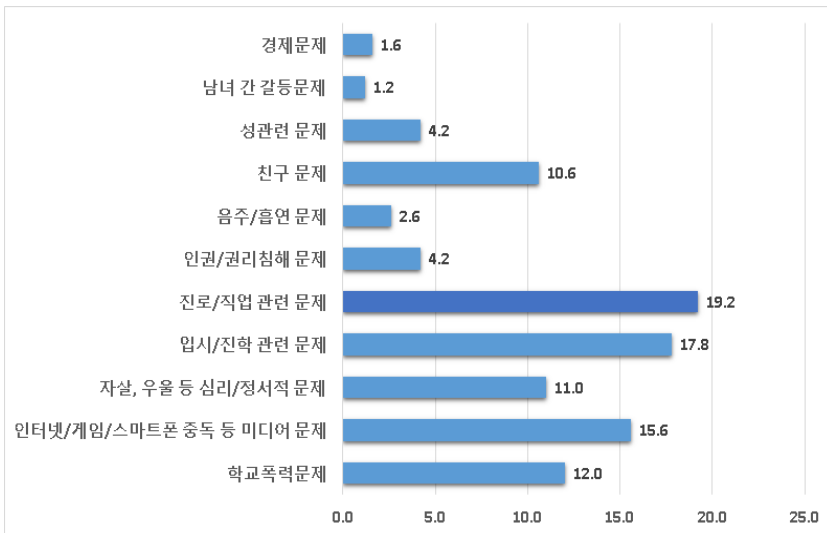


그림 II-15 중요한 청소년 문제 2순위

(4) 응답자 특성별 분석

중요한 청소년 문제 2순위에 대해 남자는 ‘진로/직업 관련 문제’ (21.8%), ‘입시/진학 관련 문제’,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각 (16.9%)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자는 ‘입시/진학 관련 문제’ (18.7%), ‘진로/직업 관련 문제’ (16.7%),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4.4%)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급 유형별 분석에서 중학생은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입시/진학 관련 문제’ 각 (16.0%), ‘진로/직업 관련 문제’ (15.6%)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9.2%), ‘입시/진학 관련 문제’ (17.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5.6%)의 순으로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별 분석에서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9.2%), ‘입시/진학 관련 문제’ (17.7%),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3.8%)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중에 해당하는 그룹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9.7%), ‘입시/진학 관련 문제’ (17.2%),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2%)의 순으로 응답했다. 하에 해당하는 그룹은 ‘입시/진학관련 문제’, ‘진로/직업 관련 문제’ 각 (18.6%),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3%)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II-32 중요한 청소년 문제 2순위

(단위: %)

구분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											
		학교 폭력 문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자살 우울 등 심리적 문제	입시 진학 관련 문제	진로 직업 관련 문제	인권 권리 침해 문제	음주 흡연 문제	친구 문제	성관련 문제	남녀 간 갈등 관련 문제	경제 문제	합계
전체		60 (12.0)	78 (15.6)	55 (11.0)	89 (17.8)	96 (19.2)	21 (4.2)	13 (2.6)	53 (10.6)	21 (4.2)	6 (1.2)	8 (1.6)	500 (100)
성별	남자	28 (11.5)	41 (16.9)	28 (11.5)	41 (16.9)	53 (21.8)	7 (2.9)	8 (3.3)	21 (8.6)	7 (2.9)	5 (2.1)	4 (1.6)	243 (100)
	여자	32 (12.5)	37 (14.4)	27 (10.5)	48 (18.7)	43 (16.7)	14 (5.4)	5 (1.9)	32 (12.5)	14 (5.4)	1 (0.4)	4 (1.6)	257 (100)
x 검정		x ² =12.008					df=10		p=0.285				
교급 유형	중학교	36 (14.8)	39 (16.0)	27 (11.1)	39 (16.0)	38 (15.6)	13 (5.3)	6 (2.5)	29 (11.9)	11 (4.5)	2 (0.8)	3 (1.2)	243 (100)
	고등학교	24 (9.3)	39 (15.2)	28 (10.9)	50 (19.5)	58 (22.6)	8 (3.1)	7 (2.7)	24 (9.3)	10 (3.9)	4 (1.6)	5 (1.9)	257 (100)
x 검정		x ² =10.514					df=10		p=0.397				
삶의 만족도	상	17 (13.1)	18 (13.8)	14 (10.8)	23 (17.7)	25 (19.2)	6 (4.6)	4 (3.1)	16 (12.3)	4 (3.1)	1 (0.8)	2 (1.5)	130 (100)
	중	20 (10.1)	32 (16.2)	25 (12.6)	34 (17.2)	39 (19.7)	6 (3.0)	8 (4.0)	17 (8.6)	11 (5.6)	3 (1.5)	3 (1.5)	198 (100)
	하	23 (13.4)	28 (16.3)	16 (9.3)	32 (18.6)	32 (18.6)	9 (5.2)	1 (0.6)	20 (11.6)	6 (3.5)	2 (1.2)	3 (1.7)	172 (100)
x 검정		x ² =11.112					df=20		p=0.943				

(5)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중요한 청소년 문제 3순위에 대한 응답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7.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7.2%), ‘입시/진학 관련 문제’ (15.0%), ‘학교폭력문제’ (13.0%), ‘친구문제’ (10.8%),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10.6%), ‘인권/권리침해 문제’ (4.6%), ‘성관련 문제’ (4.2%), ‘음주/흡연 문제’ (3.0%), ‘경제문제’ (2.0%), ‘남녀 간 갈등문제’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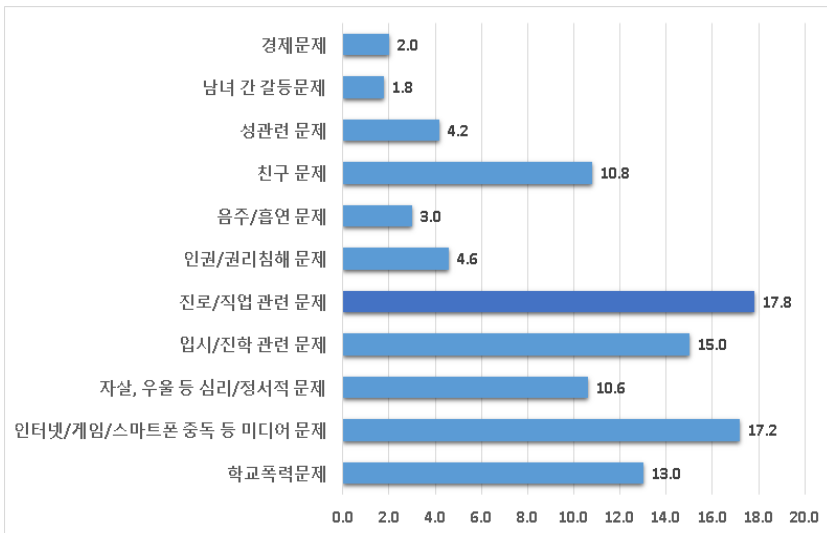


그림 II-16 중요한 청소년 문제 3순위

(6) 응답자 특성별 분석

중요한 청소년 문제 3순위에 대해 남자는 '진로/직업 관련 문제' (18.1%),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7.7%)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자는 '진로/직업 관련 문제' (17.5%),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7%), '입시/진학 관련 문제' (15.2%)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급 유형별 분석에서 중학생은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0%), '입시/진학 관련 문제', '진로/직업 관련 문제' 각 (15.6%)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9.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8.3%), '입시/진학 관련 문제' (14.4%)의 순으로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별 분석에서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20.8%), '진로/직업 관련 문제' (18.5%), '입시/진학 관련 문제' (15.4%)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중에 해당하는 그룹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7.2%), '입시/진학 관련 문제' (16.2%),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5.7%)의 순으로 응답했다. 하에 해당하는 그룹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8.0%),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학교폭력문제' 각 (16.3%)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II-33 중요한 청소년 문제 3순위

(단위: %)

구분		중요한 청소년 문제 1순위											
		학교 폭력 문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자살 우울 등 심리 정서 적 문제	입시 진학 관련 문제	진로 직업 관련 문제	인권 권리 침해 문제	음주 흡연 문제	친구 문제	성관 련 문제	남녀 간 갈등 관련 문제	경제 문제	합계
전체		65 (13.0)	86 (17.2)	53 (10.6)	75 (15.0)	89 (17.8)	23 (4.6)	15 (3.0)	54 (10.8)	21 (4.2)	9 (1.8)	10 (2.0)	500 (100)
성별	남자	36 (14.8)	43 (17.7)	23 (9.5)	36 (14.8)	44 (18.1)	8 (3.3)	5 (2.1)	25 (10.3)	11 (4.5)	6 (2.5)	6 (2.5)	243 (100)
	여자	29 (11.3)	43 (16.7)	30 (11.7)	39 (15.2)	45 (17.5)	15 (5.8)	10 (3.9)	29 (11.3)	10 (3.9)	29 (11.3)	10 (3.9)	257 (100)
x 검정		x ² =6.964 df=10 p=0.729											
교급 유형	중학교	35 (14.4)	39 (16.0)	26 (10.7)	38 (15.6)	38 (15.6)	12 (4.9)	6 (2.5)	29 (11.9)	12 (4.9)	4 (1.6)	4 (1.6)	243 (100)
	고등 학교	30 (11.7)	47 (18.3)	27 (10.5)	37 (14.4)	51 (19.8)	11 (4.3)	9 (3.5)	25 (9.7)	9 (3.5)	5 (1.9)	6 (2.3)	257 (100)
x 검정		x ² =4.551 df=10 p=0.919											
삶의 만족도	상	15 (11.5)	27 (20.8)	14 (10.8)	20 (15.4)	24 (18.5)	6 (4.6)	6 (4.6)	11 (8.5)	2 (1.5)	4 (3.1)	1 (0.8)	130 (100)
	중	22 (11.1)	31 (15.7)	22 (11.1)	32 (16.2)	34 (17.2)	10 (5.1)	4 (2.0)	22 (11.1)	12 (6.1)	3 (1.5)	6 (3.0)	198 (100)
	하	28 (16.3)	28 (16.3)	17 (9.9)	23 (13.4)	31 (18.0)	7 (4.1)	5 (2.9)	21 (12.2)	7 (4.1)	2 (1.2)	3 (1.7)	172 (100)
x 검정		x ² =14.745 df=20 p=0.791											

9)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문)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응답은 ‘중앙정부’ (35.8%), ‘청소년 자신’ (26.2%), ‘교육감/학교장’ (20.6%), ‘국회’ (7.8%), ‘지방정부(도지사/시장 등)’ (7.2%), ‘시민단체’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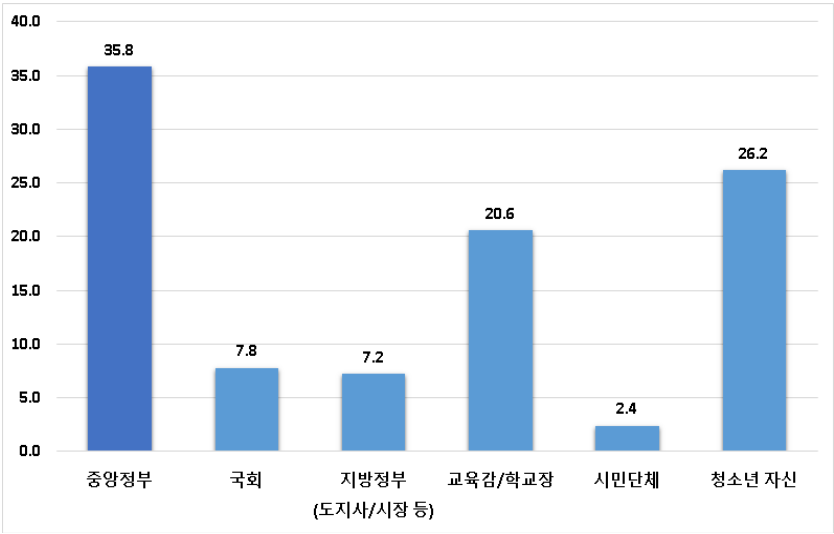


그림 II-17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남자는 ‘중앙정부’ (35.4%), ‘청소년 자신’ (25.5%), ‘교육감/학교장’ (20.2%)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자는 ‘중앙정부’ (36.2%), ‘청소년 자신’ (26.8%), ‘교육감/학교장’ (21.0%)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급 유형별 분석에서 중학생은 ‘청소년 자신’ (28.8%), ‘중앙정부’ (27.6%), ‘교육감/학교장’ (25.1%)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중앙정부’ (43.6%), ‘청소년 자신’ (23.7%), ‘교육감/학교장’ (16.3%)의 순으로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별 분석에서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중앙정부’ (34.6%), ‘청소년 자신’ (28.5%), ‘교육감/학교장’ (20.0%) 순으로 응답했으며, 중에 해당하는 그룹은 ‘중앙정부’ (34.8%), ‘교육감/학교장’ (23.7%), ‘청소년 자신’ (21.2%) 순으로 응답했다. 하에 해당하는 그룹은 ‘중앙정부’ (37.8%), ‘청소년 자신’ (30.2%), ‘교육감/학교장’ (17.4%)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II-34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

(단위: %)

구분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중앙 정부	국회	지방정부 (도지사 /시장 등)	교육감/ 학교장	시민 단체	청소년 자신	합계
전체		179 (35.8)	39 (7.8)	36 (7.2)	103 (20.6)	12 (2.4)	131 (26.2)	500 (100)
성별	남자	86 (35.4)	20 (8.2)	21 (8.6)	49 (20.2)	5 (2.1)	62 (25.5)	243 (100)
	여자	93 (36.2)	19 (7.4)	15 (5.8)	54 (21.0)	7 (2.7)	69 (26.8)	257 (100)
x 검정		$\chi^2=1.8599$ df=5 p=0.868						
교급 유형	중학교	67 (27.6)	21 (8.6)	19 (7.8)	61 (25.1)	5 (2.1)	70 (28.8)	243 (100)
	고등학교	112 (43.6)	18 (7.0)	17 (6.6)	42 (16.3)	7 (2.7)	61 (23.7)	257 (100)
x 검정		$\chi^2=15.732$ df=5 p=0.008						
삶의 만족도	상	45 (34.6)	10 (7.7)	9 (6.9)	26 (20.0)	3 (2.3)	37 (28.5)	130 (100)
	중	69 (34.8)	17 (8.6)	16 (8.1)	47 (23.7)	7 (3.5)	42 (21.2)	198 (100)
	하	65 (37.8)	12 (7.0)	11 (6.4)	30 (17.4)	2 (1.2)	52 (30.2)	172 (100)
x 검정		$\chi^2=8.150$ df=10 p=0.614						

10)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문)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중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니까?(Base: 전체 응답자, N=500)

(1) 전체 인원 대상 분석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 대한 응답은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4.2%),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3.8%),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1.4%),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0.6%),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0.0%)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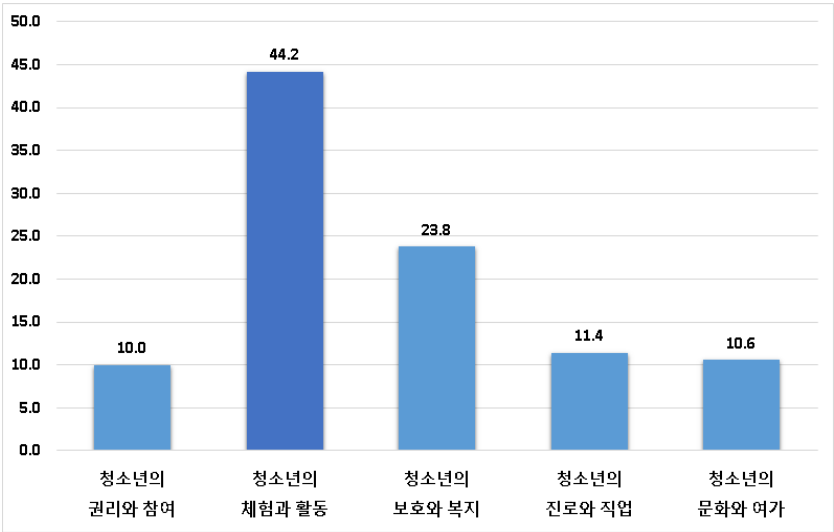


그림 II-18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2) 응답자 특성별 분석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 대해 남자는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39.5%),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4.3%),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4.4%)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자는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8.6%),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3.3%),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0.1%)의 순으로 응답했다.

교급 유형별 분석에서 중학생은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4.9%),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3.9%),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1.1%)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고등학생은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3.6%),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3.7%),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1.7%)의 순으로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별 분석에서 상에 해당하는 그룹은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0.0%),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4.6%),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5.4%) 순으로 응답했으며, 중에 해당하는 그룹은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3.4%),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5.8%),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3.1%) 순으로 응답했다. 하에 해당하는 그룹은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8.3%),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0.9%),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1.0%)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영역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35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단위: %)

구분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합계
전체		50 (10.0)	221 (44.2)	119 (23.8)	57 (11.4)	53 (10.6)	500 (100)
성별	남자	26 (10.7)	96 (39.5)	59 (24.3)	35 (14.4)	27 (11.1)	243 (100)
	여자	24 (9.3)	125 (48.6)	60 (23.3)	22 (8.6)	26 (10.1)	257 (100)
x 검정		$\chi^2=6.491$ $df=4$ $p=0.165$					
교급 유형	중학교	23 (9.5)	109 (44.9)	58 (23.9)	27 (11.1)	26 (10.7)	243 (100)
	고등학교	27 (10.5)	112 (43.6)	61 (23.7)	30 (11.7)	27 (10.5)	257 (100)
x 검정		$\chi^2=0.2221$ $df=4$ $p=0.994$					
삶의 만족도	상	11 (8.5)	52 (40.0)	32 (24.6)	15 (11.5)	20 (15.4)	130 (100)
	중	20 (10.1)	86 (43.4)	51 (25.8)	26 (13.1)	15 (7.6)	198 (100)
	하	19 (11.0)	83 (48.3)	36 (20.9)	16 (9.3)	18 (10.5)	172 (100)
x 검정		$\chi^2=8.339$ $df=8$ $p=0.401$					

3. 조사 결과 요약

1)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문제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문제, 진로(직업)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선생님과 관계 중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학업성적문제’ (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진로(직업)문제’ (33.4%), ‘친구와의 관계’ (7.6%),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2.2%), ‘건강문제’ (2/2%), ‘경제문제’ (0.8%), ‘이성과의 관계’ (0.6%), ‘선생님과의 관계’ (0.4%)의 순이었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학업성적문제, 진로(직업)문제, 친구와의 관계 순으로 동일하게 응답했다. 교급별 순위에서도 학업성적문제, 진로(직업)문제, 친구와의 관계 순으로 동일했지만 비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진로(직업)문제는 고등학생 비율(44.4%)이 중학생 비율(21.8%)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삶의 만족도에 따른 청소년 고민 문제의 순위 역시 전체 상위 3순위와 동일하게 학업성적문제, 진로(직업)문제, 친구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2) 일상 만족도

청소년의 일상(삶)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0점(전혀만족못함)에서 10점(매우만족)의 분포로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7의 수준이(24.2%) 가장 높았으며, 전체 응답비율의 50%에 해당되는 범위 역시 7의 수준(50.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이하로 일상(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청소년의 비율은 13.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에 있어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과 동일한 비율로 7의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교급 유형별 만족도에서도 동일하게 7의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 이하의 만족도 비율은 16.9% 여자 청소년의 경우 보통 이하의 만족도 비율은 10.5%로 남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보통 이하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청소년은 7.0% 고등학교 청소년은 19.9%로 중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집단 간 독립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청소년($M=6.52$, $SD=1.530$)과 고등학교 청소년($M=6.00$, $SD=1.708$)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3.552$)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권리와 참여, 체험과 활동, 보호와 복지, 진로와 직업, 문화와 여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진로와 직업' (55.6%), '체험과 활동' (14.4%), '문화와 여가' (12.6%), '권리와 참여' (9.0%), '보호와 복지' (8.4%)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로와 직업과 2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된 체험과 활동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서 역시 동일한 순위로 응답했으며, 교급유형에 따른 응답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은 동일한 순위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중학교 청소년은 '진로와 직업' (42.0%), '문화와 여가' (17.3%), '체험과 활동' (15.6%), '권리와 참여' (13.6%), '보호와 복지' (11.5%)의 순으로 다소 상이한 순위로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 별 응답도 전체 응답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4) 연구를 수행하고 싶은 청소년 정책의 영역

청소년관련 연구를 수행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싶은지 청소년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와 참여, 체험과 활동, 보호와 복지, 진로와 직업, 문화와 여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진로와 직업’ (47.0%), ‘문화와 여가’ (18.4%), ‘체험과 활동’ (14.8%), ‘보호와 복지’ (10.8%), ‘권리와 참여’ (9.0%)의 순서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진로와 직업’은 2순위로 응답된 ‘문화와 여가’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구분해 본 응답 결과 역시 전체 응답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으며, 교급유형별 역시 동일한 순위로 응답했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해 응답 결과를 확인했을 때에도 동일한 순위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었다.

5)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위해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주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성 증진, 권한 부여, 역량 강화, 건강한 육성,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자기 주도성 증진’ (42.2%), ‘건강한 육성’ (28.8%), ‘역량 강화’ (16.0%), ‘활동 활성화’ (8.0%), ‘권한 부여’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급유형별, 삶의 만족도별 응답순위를 확인했을 때에도 전체 순위와 동일한 순위로 응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청소년 정책 관련 인식 및 의견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의 참여 필요에 대한 인식,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지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의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참여 포털에 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 (27.4%), ‘그런 편이다’ (66.4%), ‘그렇지 않은 편이다’ (6.2%), ‘전혀 그렇지 않다’ (0.0%)의 비율로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93.8%에 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t-검증과 ANOVA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교급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삶의 만족도에서 상에 해당하는 집단($M=3.32$, $SD=.048$)과 중에 해당하는 집단($M=3.13$, $SD=.037$) 사이 유의미한 차이($F=4.726$)를 확인했다.

둘째,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8.8%), ‘그런 편이다’ (29.6%), ‘그렇지 않은 편이다’ (55.8%), ‘전혀 그렇지 않다’ (5.8%)의 비율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61.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교급별, 삶의 만족도별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3.8%), ‘그런 편이다’ (36.2%),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0%), ‘전혀 그렇지 않다’ (6.0%)의 비율로 60.0%의 청소년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교급별, 삶의 만족도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성별에서 남자 청소년($M=2.31$, $SD=.3624$)이 여자 청소년($M=2.44$, $.683$)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느끼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t=-2.172$)를 확인했다.

넷째,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7.8%), ‘그런 편이다’ (40.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7.6%), ‘전혀 그렇지 않다’ (4.2%)의 비율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보장된다는 쪽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교급별, 삶의 만족도별 검증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4.4%), ‘그런 편이다’ (36.8%), ‘그렇지 않은 편이다’ (52.4%), ‘전혀 그렇지 않다’ (6.4%)의 비율로 58.8%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 성별, 교급별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삶의 만족도별 검증에서 상에 해당되는 집단($M=2.49$, $SD=.696$)이 하에 해당되는 집단($M=2.30$, $SD=.639$)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F=3.252$)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19.2%), ‘그런 편이다’ (44.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9.8%), ‘전혀 그렇지 않다’ (6.2%)의 비율로 64.0%가 하향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성별, 교급별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삶의 만족도별 차이 검증에서 상에 해당되는 집단($M=2.93$, $SD=.809$)과 하에 해당되는 집단($M=2.66$, $SD=.839$)에 유의미한 차이($F=3.956$)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청소년들이 정부 책임자들과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포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15.8%), ‘그런 편이다’ (66.6%),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4%), ‘전혀 그렇지 않다’ (2.2%)의 비율로 참여포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4%였다. 성별, 교급별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삶의 만족도별 검증에서 상에 해당되는 집단($M=3.09$, $SD=.549$)과 하에 해당되는 집단($M=2.85$, $SD=.723$)이 유의미한 차이($F=5.338$)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청소년 참여(사회문제/학교문제 등)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시간부족’ (37.6%),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34.2%), ‘정보부족’ (13.0%), ‘참여방법 모름’ (6.4%), ‘부모님의 허락문제’ (6.2%), ‘선생님의 허락문제’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급유형별, 삶의 만족도별 응답순위역시 전체 순위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우리 사회의 중요한 청소년 문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청소년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순위에 대한 응답은 ‘입시/진학 관련 문제’ (35.2%), ‘학교폭력문제’ (19.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6.4%), ‘진로/직업 관련 문제’ (13.2%),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7.0%), ‘친구문제’ (4.4%), ‘인권/권리침해 문제’ (2.8%), ‘경제문제’, ‘성관련문제’, ‘음주/흡연문제’ 각각(0.4%)의 순서로 나타났다. 2순위에 대한 응답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9.2%), ‘입시/진학 관련 문제’ (17.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5.6%), ‘학교폭력문제’ (12.0%),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11.0%), ‘친구문제’ (10.6%), ‘성관련 문제’, ‘인권/권리침해 문제’ 각 (4.2%), ‘음주/흡연 문제’ (2.6%), ‘경제문제’ (1.6%), ‘남녀 간 갈등문제’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순위에 대한 응답은 ‘진로/직업 관련 문제’ (17.8%),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17.2%), ‘입시/진학 관련 문제’ (15.0%), ‘학교폭력문제’ (13.0%), ‘친구문제’ (10.8%),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10.6%), ‘인권/권

리침해 문제' (4.6%), '성관련 문제' (4.2%), '음주/흡연 문제' (3.0%), '경제문제' (2.0%), '남녀 간 갈등문제'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입시/진학 관련 문제' (2순위), '진로/직업 관련 문제' (2순위)가 공동으로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로 응답되었다. 또한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2.67순위), '학교폭력문제' (3.33순위), '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5.33순위), '친구문제' (5.66순위), '인권/권리침해 문제' (7순위), '성관련 문제' (7.67순위), '음주/흡연 문제' (8.67순위), '경제문제' (9.33순위), '남녀 간 갈등문제' (11순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앞서 언급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중앙정부' (35.8%), '청소년 자신' (26.2%), '교육감/학교장' (20.6%), '국회' (7.8%), '지방정부(도지사/시장 등)' (7.2%), '시민단체'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교급유형별, 삶의 만족도별 응답역시 전체 순위와 동일한 순으로 응답했다.

10)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중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영역(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44.2%),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23.8%),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1.4%),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10.6%),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10.0%)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교급유형별, 삶의 만족도별 응답에도 비슷한 동향의 응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 청소년 참여 10대 연구소 사업 결과

-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 사업내용 및 방법
- 3. 10대 연구소 실행 과정
및 운영의 실제
- 4. 운영 내용 및 실제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중심 정책개발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중심 아젠다이자, 국내 청소년 기본 계획에 근거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청소년 참여형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는 청소년들이 연구 대상이 아닌, 연구자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스스로 정의하고, 사회적 지식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주체성을 구현하는 한편, 청소년에 관해 보다 맥락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연구 방법이자 실행 방안이다(Hall, 1992).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권한 강화와 사회의 문제 해결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당사자 연구에 관한 관심과 실천이 확대되어 왔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남선·김만희, 2000; 남채봉, 2013, 김현경, 2015; 박가나, 2007).

본 사업은 당사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당사자 참여형 사회적 지식 생산 체계를 수립하여 청소년의 권한과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간 청소년에 대한 지식은 청소년 당사자와 분리되어 축적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연령주의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가가 연구대상을 ‘통제’하고 ‘지식’을 분배하는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연구자-연구대상의 구별과 권력 위계를 허무는 시도로서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10대를 연구자로, 그들의 활동을 ‘연구’로 명명함으로써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한다.

1) 본 장의 내용은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모상현·함세정)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수록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의 미래 지향적 역량 강화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 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기술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대두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 2018).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특정 직업에 적합한 지식 또는 기술보다는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인지 능력과 적극적 학습 능력을 포함한 콘텐츠 제작기술, 경청과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공정기술, 그리고 설득과 공감지능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이 가장 크게 주목 받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 2016).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연구 문제의 설정, 연구 방법 설계, 현장에서의 인터뷰, 설문 등을 통한 조사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적합한 방법임 본 연구는 청소년 참여형 연구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혁신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10대들에게 자신들의 이슈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연구로 풀어나가는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의미화하고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구성하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거리두기와 가까이 보기의 방법을 익힌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활동을 통해 리더십, 비판적 사고, 쓰기 및 말하기, 의사결정, 권익 옹호, 의사소통, 일정 관리, 회의 퍼실리테이션, 갈등 해결, 팀 워크, 연구 방법²⁾ 등 다양한 삶의 기술을 함양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참여형 활동을 증진하고 참여형 연구라는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그 방법의 중요성과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모델의 제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경쟁적 입시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의 환경과 청소년 사업의 시공간적,

2) Public Health Institute, Network for a Healthy California

물리적, 인적 조건을 감안 할 때 <10대 연구소 사업>의 실제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실행안 제안은 청소년 참여형 활동 분야에 상당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대 연구소는 당사자 참여형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 및 제언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선행연구는 (Anyon & Naughton, 2003; Power & Tiffany, 2006) 당사자 참여형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교육과 트레이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문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성인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된 조직과 재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연구원’으로 존중하고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조직의 풍토 또한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 및 2018년 1기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본 사업은 10대 연구소의 확산을 목표로 하여 모델을 개발하여, 그 실행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실행한 당사자 참여형 연구는 10대 당사자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한 청소년 연구를 실행·추적하여 비청소년 관점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개발에 있어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또래 청소년들을 연구하는 과정은, 문제를 자신들만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문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맥락을 만들고 보다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그 의미를 파악하여, 실제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사업 내용 및 방법

1) 사업 개요

- 사업명: 청소년 참여 10대 연구소 운영
- 사업 기간: 2019년 2월 16일~11월 30일
- 사업 대상: 만 15세-19세 청소년 15명

표 Ⅲ-1 10대 연구소 참가자 명단

NO	성명	성별	나이	NO	성명	성별	나이
1	은별	여	19	9	유성	여	18
2	마루	남	19	10	양친구	여	18
3	줄리	여	19	11	늘보	여	18
4	삼색	여	18	12	시원	여	18
5	이경	여	18	13	다정	여	17
6	오리	여	18	14	루	여	17
7	진	여	18	15	미르	여	17
8	퐁	남	18				

주:참가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함

- 사업 내용: 9개월간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찾아내고, 연구 방법을 습득하여, 팀을 구성하고 현장조사 진행, 자료 분석 및 발표 진행
- 사업 방법

- 청소년 연구 포럼 및 토론회 운영: 자기주도 인문사회적 역량 강화 및 주제 탐색 기회 제공
- 청소년 연구자 양성과정 운영: 문제해결 중심 역량 강화 및 연구 도구 자원 제공
- 청소년 참여기반 현장조사, 자료분석, 발표회 실시: 연구자로서 청소년 강화 및 정책 제안 장 마련

표 III-2 청소년 연구주제 내용 개괄

구분	1팀	2팀	3팀
연구 주제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나는 자격이 없다.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침묵의 교실, 기울어진 종립
활동 조건 및 연구 내용	• 팀별 작업과 개인 작업 병행 • 주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주중 및 주말 활동 • 인터뷰, 설문, 현장조사 참여 관찰 실행	• 팀별 작업과 개인 작업 병행 • 주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주중 및 주말 활동 • 인터뷰, 설문, 현장조사 참여 관찰 실행	• 팀별 작업과 개인 작업 병행 • 주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주중 및 주말 활동 • 인터뷰, 설문, 현장조사 참여 관찰 실행
	•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설문을 진행하여 학원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실태와 비인간적 경쟁을 요구하는 억압적 교육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연구했다.	•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 형제, 교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의 느낌과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반응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 10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및 페미니스트로 자신을 정체화한 청소년들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담, 설문을 진행했다.

2) 사업 내용

10대 연구소의 사업은 총 4쿼터로 구성된다. 1쿼터는 자기주도적 인문사회 역량 강화 및 연구주제 탐색, 2쿼터는 청소년 연구자 양성과정 운영, 3쿼터는 현장 조사 실시, 4쿼터는 분석 및 발표를 통한 확산이다. 아래는 각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1) 자기주도적 인문사회 역량 강화 및 연구주제 탐색

1쿼터는 총 4주로 구성되며, 연구의 사전 단계이자 10대 연구소 운영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청소년 연구원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인문사회 역량의 강화이다.

청소년 당사자 연구라는 다소 낯설고 전문적인 영역의 활동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연구원으로 이해하고,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는 향후 지속되는 높은 수준의 과업을 직접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활동을 주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대 연구소에서는 2018년 참가했던 1기들의 연구 포럼을 개최하여 ‘선임’ 연구자들과 만나 그들의 연구 결과를 접하며 연구한다는 것에 대한 청소년 나름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1기 청소년들의 포럼 운영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연구에 대하여 청소년 화자가 직접 청소년 청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0대 연구소가 비청소년 연구자가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연구’에 대해 모호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전 년도

케이스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청소년 연구 포럼과 동시에 해당 분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 주제 토론회이다. 10대의 불만, 10대의 불안, 10대의 젠더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들을 발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향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를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동료 청소년들과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험은 고립을 벗어나 연대하고 공감하는 장을 열게 하는 한편, 연구 팀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동료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구 포럼과 토론회를 거쳐 청소년들은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주제를 좁혀나간다.

(2) 연구자 양성과정 특강 및 실습

2쿼터는 본격적인 연구 실행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과정을 설계하고 연구방법을 학습하는 청소년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연구의 도구 및 방법에 대한 강좌와 실습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자원이다. 연구방법 실습에 앞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연구주제이다. 1쿼터를 통해 탐색된 연구주제를 다수의 투표 및 토론을 거쳐 총 3개-4개의 주제로 결정한 후, 청소년들의 의견 수합 및 토론을 거쳐 연구팀을 최종 결정한다.

10대 연구소는 질적 연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도구를 실습한다.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경우 그들의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기존의 연구 환경에서 충분히 들리지 않은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만큼, 참여관찰, 심층면담 등의 질적 연구방법은 청소년 참여 연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청소년 연구자가 청소년 정보제공자를 만나 수집하는 데이터는 청소년 연구자라는 위치성에서 얻을 수 있는 타당도와 깊이를 제공할 것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설문에 대한 특강을 듣고, 자신들의 연구 주제에 맞추어 팀과 함께 실습한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인터뷰 질문들을 구성한 이후, 직접 예비인터뷰를 다회 실행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개선점을 토론하고 전체적인 연구질문과 내용을 다듬는다. 필요한 설문조사도 필요한 경우 진행하며, 이 또한 여러 차례의 실습과 시범 운영을 거쳐 수정한다. 해당 과정에서 연구 설계도를 지속적으로 수정한다.

(3) 현장조사 진행

3쿼터는 현장조사 실행의 단계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각자 설계한 연구주제 및 방법을 직접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청소년 연구원들은 정보 제공자를 직접 선정, 섭외하고, 인터뷰를 실행하고, 녹음한 기록을 전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참여 관찰의 경우 참여관찰 노트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설문지는 선정된 대상에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하여 배포한다.

질적 연구의 단계에서 현장 조사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연구 도구를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연구 결과에 대해 1차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연구원들은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매주 연구 모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 등 연구 도구를 수정한다.

(4) 데이터 분석 및 발표

4쿼터는 수집한 데이터의 의미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 및 분석하고, 각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여 연구의 결과

를 도출하는 것이다. 해당 과정은 공동으로 진행된다.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다함께 읽으며 자료를 코딩하고, 유목화,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분석 과정에서 서로 도움으로서 과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연구 결과의 도출은 자료들을 교차 분석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유목화하고 범주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점이나, 새롭게 발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한다. 분석, 결과 도출, 발표 자료 구성 단계는 모두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팀워크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 과정을 체크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는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PPT, 포스터 형태의 발표자료를 만들어 진행하고, 발표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III-3 2019 10대 연구소 일정 및 내용

회차	일시	영역	주요 내용
1	2/16		오리엔테이션: 상호 소개, 공동의 약속 만들기
2	2/23	1쿼터 기반다지기,	10대의 연구 포럼 1 토론회: 10대의 불안은 무엇인가
3	3/2	인문 사회적 역량 개발	10대의 연구 포럼 2 토론회: 10대 여성/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4	3/9		10대의 연구 포럼 3 토론회: 10대의 불안은 무엇인가 연구주제 탐색
5	3/23	2쿼터	방법 특강 1: 인터뷰 방법 익히기

6	3/30		방법 특강 2: 설문 의 기초
7	4/6	윤곽 잡기 연구방법 특 강 및 실습	방법 특강 3: 참여 관찰 방법
8	4/13		방법 특강 4: 연구 주제 공동 탐구
9	5/4		연구 실행 설계도 작성
10	5/11		현장 조사 시작, 자체 연구 진행
11	5/18		연구 방법과 도구 재검토
12	5/25	3쿼터 프로젝트	연구 현황 검토1
13	6/1	실행, 현장조사	연구 현황 검토2 (질문 수정, 연구 참여자 검토)
14	6/8	실시	연구 현황 검토3 (인터뷰 전사)
15	6/15		연구 현황 검토5 (내용 나누기, 함께 분석하기)
16	6/22		연구 현황 검토 6
17	7/13		자료 확인 및 정리법 특강
18	7/20	4쿼터	자료 분석법 특강: 유목화, 범주화, 패턴파악, 코딩
19	7/27	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1박 2일 워크숍
20	8/3		공동의 분석- 녹취 자료 다함께 읽으며 해석하기
21	8/10		분석 3- 코드 뽑기 1차 완료, 코드 지도 그리기

22	8/17	분석 4- 데이터 정리, 연구 결과 개요 1차 완료
23	8/24	분석 5- 연구 발표문 1차 완료, 다함께 검토
24	8/31	분석 6- 연구 발표문 2차 수정, PPT 제작
25	9/6	발표문 작성, 발표 리허설
26	9/7	최종 발표회 실행
27	9/21	논문작성 1
28	10/5	논문작성 2
29	10/19	논문작성 3
30	10/26	서울시 청소년 희망 엑스포 참가, 연구 결과 공유
31	11/16	논문작성 4, 마무리 모임

3)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하 하자센터)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3. 10대 연구소 실행 과정 및 운영의 실제

1) 청소년 당사자 중심 문화 조성

(1) 평등한 활동 환경 조성

청소년 참여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연구원으로 존중하는 평등한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10대 연구소에서는 직책이나 직급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별명으로 서로를 부르고, 나이와 학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도를 함으로서 청소년과 비청소년간, 그리고 청소년들간의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 안전한 공간 만들기

10대 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심도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풍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과 성향을 드러내더라도 즉각적으로 비난 당하거나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0대 연구소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커뮤니티 약속을 정하고, 의견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연습을 했다.

한편, 안전한 공간의 유지는 연구자 본인에게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 윤리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구 인터뷰 자료에 포함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항의 보안 중요성을 충분히 공지하여 연구원들 사이 신뢰형성과 안전한 장소구성이 중요하다.

2) 연구 과정 지원

(1) 연구 자원 공유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와 관련된 개념,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의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자체에 대한 과정 뿐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는 틀을 학습하기 위하여 기본적 사회과학에 대한 짧은 강의 및 조연을 제공하는 일은 청소년 연구자들의 연구를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 과정의 지원에는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활성화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연구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한편, 비청소년 조력자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도록 조력해야 한다. 이때, 개인적 질의응답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연구에 대한 공통된 질문이나 연구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 공론화 할 수 있는 이슈는 함께 공유하여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면 또한 중요하다.

(2) 실습 위주의 연구방법 특강

본격적으로 인터뷰나 참여관찰, 설문지조사에 들어가기 전 연구원 내에서 이를 실습하고, 수정, 재구성하는 것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연구방법의 경우, 강의를 아무리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이해하고 기술을 습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원 동료들 사이에서, 또 해당 기관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사전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일정조정 및 관리

연구 과정을 진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전체 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시기마다 달성할 과업을 인지하여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조력자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이다.

연구원들의 학사일정 및 개인 일정을 확인하여 전체 일정을 설계하고, 10대 연구원들에게 전체공지, 개별카톡 등을 통해 모임일정, 참석여부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를 연결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시간 리뷰, 연구진행경과를 체크하는 등 페이스 메이커로서 연구와 관련된 일정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하거나 커리큘럼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해진 일정과 목표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진행 상황과 청소년들의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일정과 모임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자재 및 기술 지원

(1) 충분한 공간, 장비 자원 제공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1로 인터뷰 할 공간, 그룹별로 실습하고 토론할 공간, 그리고 다 함께 전체 토론 등을 진행할 공간이 필요하다. 각 팀이 연구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그룹 활동 공간은 필수적이다.

공간 뿐 아니라 기자재 역시 연구 진행에 중요하다. 노트북, 녹음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 등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와 환경은 단시간 내에 연구를 진행하는데 핵심적으로 기능한다.

(2) 공유 문서 활용 및 자료관리

팀별로 연구 자료를 관리하고, 초기 분석, 연구 결과 발표자료 작성 등을 위해서는 구글닥 등 공유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분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파일 작성은 다양한 버전과 파일 수로 인하여 혼선을 빚을 수 있다.

4. 운영 내용 및 실제

아래는 전체 회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수록한 프로그램 계획안이다. 각 회차는 해당 회차의 목표와 주요 내용, 그리고 준비 물품과 고려사항 등을 표기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각 회차 계획안

표 III-4 1회차 계획안

주차	1	일시	2019. 02. 16 (13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10대 연구소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공유 - 구성원 간의 이해와 연대 도모 - 향후 연구소 운영 원칙-약속 수립 - 하자센터 이해 및 소속감 제고				
구성	사전 - 함께 비빔밥 1부 - 서로 알아가기(하자 알아가기, 10대 연구소 알아가기, 연구원 알아가기) 2부 -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만들기 3부 - 10대 연구소 1년 계획 및 활동 소개 4부 - 다음 주 안내				
준비물	쌀, 맛살, 샐러드믹스, 계란, 명찰 라벨지, 대형포스트잇, 스티커, 펜, ppt, 간식: 떡, 감자칩, 빵, 음료(핫초코, 아이스티, 동글레), 포트, 컵 20개, 냅킨, 마커, 종이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웰컴(비빔밥 점심) 2. 오늘의 계획 공유 3. 1부- 서로 알아가기 오늘 온 사람들 알아가기: 하자 이름, 이름 의미, 내가 10대 연구소 에 기대하는 것 소개 10대 연구소 알아가기: 1기 청소년들의 이야기 & 테마 설명 '왜' 팀 나뉘(성향 질문 5개) 인사, 팀 4-5명씩 4개로 나누기				이름 라벨지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뽑기용 종이

	여기 온 사람에게 궁금한 것 질문 만들기: 팀 토론, 질문타이핑 1:1로 인터뷰하기 - 다른 팀 중 1명 뽑아서	
현지조사	4. 2부- 하자 알아가기: 하자 알기 팀 미션 팀 미션지 빈칸을 채우자(총 4종류의 팀 미션지를 들고 다니며 하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예정)	팀 미션지 4개 펜 8개
커뮤니티 활동	5. 3부- 안전한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정하기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 왜 중요할까? *아웃팅의 위험 설명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해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하자의 약속 우리말로 바꾸기 추가로 하고 싶은 약속 *결석 6. 다음 주 소개 & 출석 요정 정하기 다음 주: 10대 연구 포럼 1차, 키워드 클라우드, 원인연쇄분석 출석 요정 하실 분?	전지 마커
마무리	7.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5 2회차 계획안

주차	2	일시	2019. 02. 2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기반다지기 인문·사회적 역량개발				
구성	오프닝- 다들 잘 살고 계신가요? 1부 - 10대 연구 포럼: 입시와 청소년 자기착취 연구팀 발표 2부 - 토론회: 10대의 불안과 두려움 3부 - 특강: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더라고 4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바나나, 샌드위치, 떡, 과자, 빵, 음료(핫초코,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1부 서로 알아보기 나의 오늘 상태 1-10 ? 30초간 마주보기 경청의 중요성: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 본 경험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역량개발 활동	2. 10대 연구포럼 입시와 청소년의 자기착취: “맨날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3. 토론회 - 10대, 나의 두려움은? - 10대, 나의 불안은? 팀별 연구결과공유: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집중 이야기: 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번더 판다. 4. 특강- 알고보니 이게 사회문제 - 내 문제를 사회적 시각에서 이해하기 - 특강: 입시, 노력, 개인 신자유주의와 교육문제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커뮤니티 활동	6. 5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7.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6 3회차 계획안

주차	3	일시	2019. 03. 02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기반다지기 인문·사회적 역량개발				
구성	오프닝- 우리 아직 서로를 더 알아야 한다. 1부 - 지난주 주제 리뷰 2부 - 10대 연구 포럼: 혼란이 나를 더 알게 한다. 10대 성소수자 청소년 연구팀 발표 3부 - 토론회: 10대 여성, 남성, 젠터퀴어로서 '나' 4부 - 특강: 사실은 이게 사회문제더라고, 젠더에 관하여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떡, 과자, 굴, 빵, 음료(커피, 핫초코, 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 서로 알기: 3가지 힌트를 가지고 연구원 찾기(각 팀에서 함께 추리 질문시간 5분별도 제공) - 30초간 마주보기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역량개발 활동	2. 지난주 주제리뷰 및 토론 - 입시를 향한 개인의 노력과 성공, 조건과 운에 대한 이야기 - 모두가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 - 당연한 것은 당연한가? - 지난주 주제에 대해 공감하는가?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3. 10대 연구 포럼: 혼란이 나를 더 알게 한다. 10대 성소수자 청소년 연구팀 발표 청소년 성소수자 비가시화 문제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4. 토론회 - 10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1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 10대 젠터퀴어로 산다는 것은? 팀별 연구결과공유: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이야기했나? 집중 이야기: 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번 더 판다. 5. 젠더 문제 이해하기 특강 사회적 시각에서 내 문제 이해하기 특강: 젠더에 관하여	
커뮤니티 활동	7.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 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8.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7 4회차 계획안

주차	4	일시	2019. 03. 0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기반다지기 인문·사회적 역량개발				
구성	오프닝 - 서로 알아보기 1부 - 지난주 & 이번주 리뷰 2부 - 토론회: 10대의 불만연구에는 뭐가 필요한가? 3부 - 내 연구주제 탐색하기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떡, 감자칩, 빵, 음료(핫초코, 아이스티,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서로 알아보기 3가지 힌트, 이 사람은 누구일까? (각 팀에서 함께 추리, 질문시간 90초별도 제공)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역량개발 활동	2. 지난주 주제 리뷰 및 토론 첫 번째 만남: 10대가 10대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가? 두 번째 만남: 10대의 불안, 두려움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만남: 10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10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10대 젠더퀴어로 산다는 것은? 3. 토론회 - 10대의 불만: “이건 아니지”, “이건 왜 이럴까 대체” - 팀별 연구결과 공유: 무엇을 묻고, 이야기했나? - 원인연쇄분석: 당연한 것에 “왜”를 묻고 한 번 더 판다. - 연구 하려면 어떻게 필요할까?: 판돌의 연구결과로 배우기 4. 연구 주제 탐색 내 연구주제 생각하기: 어떤 연구주제로 연구할까?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커뮤니티 활동	5.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8 5회차 계획안

주차	5	일시	2019. 03. 2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주제 정하기 대토론 2부 -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만들기 3부 - 인터뷰 특강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전지, 펜, 마커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쿡, 빵, 과자. 방울토마토, 머핀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1-10까지 내 기분?				ppt 전지, 마커, 포스트잇
연구방법 특강	2. 1부- 주제 정하기 대토론 -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나? - 연구주제 선정: 10대가 전문성이 있는 주제, 그 동안 말해지지 않은 주제 -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 현재까지 나온 연구주제 공유 3. 2부 - 안전한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약속 만들기 연구 커뮤니티 만들기에 대해 토론: 신뢰에 기반한 토론의 중요성 내가 속한 커뮤니티 사람들과 대화하기: 우리는(의도하지 않게) 차별, 불평등에 보탬 수 있다는 점 4. 3부 - 인터뷰 특강 인터뷰 어떻게 해야하나?				ppt 전지 마커 포스트 잇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9 6회차 계획안

주차	6	일시	2019. 03. 30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약식 2부- 주제정하기, 팀 정하기 3부- 주제 탐구 품앗이 4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포스트잇, 펜, ppt, 전지,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두유, 김밥, 떡, 토마토, 바나나, 머핀, 미니파이, 음료(동글레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1-10까지 내 기분?				ppt
연구방법 특강	2. 1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협약식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과 인사, 대화 - 협약식 진행 3. 2부- 주제정하기, 팀 정하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나?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까지 토론에서 나온 연구주제 확인 4. 3부- 주제 탐구 품앗이: 1차 브레인 스토밍 10대 꾸밈문화에 대해 우리가 목격한 현상, 들은 말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연구주제에 대해 인터뷰할 질문들 토론하고 정리하기 시작질문, 마지막질문, 주제별질문, 추가질문 적어보기				ppt 전지 포스트잇 펜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들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0 7회차 계획안

주차	7	일시	2019. 04. 06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부 - 연구주제 선정하기 2부 - 연구방법특강: 참여관찰 3부 - 연구주제 품앗이 4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 떡, 김밥, 과자, 방울토마토, 음료(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 나에 대한 3가지 정보 말하기 - 최근에 한 3가지 새로운 경험 말하기				ppt
연구방법 특강	2. 1부- 연구주제 선정하기 - 10대가 전문성이 있는 주제: 내 이야기, 주변 시각 등 - 그 동안 말해지지 않은 주제: 비청소년은 모르는 이야기 - 현상의 심층적 이해가 가능한 주제 - 당사자 혹은 내부자의 생생한 사례분석 - 연구질문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3. 2부- 연구방법 특강: 참여관찰방법 - 연구구제 관련된 현상, 말을 기록하기 - 설정한 연구구제에 대해 우리가 관찰할 지점들 살펴보기 4. 3부 - 연구주제 품앗이 - 연구구제 관련된 경험 나누기 - 인터뷰 질문 함께 토론하기				ppt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1 8회차 계획안

주차	8	일시	2019. 04. 1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연구 윤곽잡기 연구방법 특강 및 실습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팀 결정, 첫 회의 2부 - 인터뷰 실습1, 인터뷰 실습 내용공유 및 수정 3부 - 인터뷰 실습2, 인터뷰 실습 내용공유 및 수정 4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ppt, 녹음이 되는 핸드폰(혹은 녹음기), 필기도구, 인터뷰 질문지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주먹밥, 청포도, 방울토마토, 과자, 음료(커피,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 이야기하기 봉사활동 관련 공지 연구비활동비 공지: 서류와 사용기준				ppt
연구방법 특강	2. 1부 - 연구팀 결정, 첫 회의 내가 하고 싶은 연구와 할 수 없는 연구는 무엇인가? 수정의 중요성: 연구과정 중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연구주제와 연구팀, 팀원확정				ppt
연구방법 실습	3. 2부 - 인터뷰 실습1, 인터뷰 실습 내용공유 및 수정 1:1로 연구원과 짝을 이루어 인터뷰 실습하기: 인사, 녹음, 기록, 상품권 전달, 수령증 받기 인터뷰 기록지 써보기 인터뷰 질문 리스트 검토하기 인터뷰 수정하고 싶은 사항 토론하기 인터뷰 시작할 때 소개 질문 구성하기				ppt, 녹음이 되는 핸드폰(혹은 녹음기), 필 기도구, 인터 뷰 질문지

	4. 3부 - 인터뷰 실습2, 인터뷰 실습 및 수정 1:1로 연구원과 짝을 이루어 인터뷰 실습하기: 인사, 녹음, 기록, 상품권 전달, 수령증 받기 인터뷰 질문수정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2 9회차 계획안

주차	9	일시	2019. 05. 04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팀 3차 회의 2부 - 연구 설계도 작성 3부- 팀별로 연구 설계 발표 4부-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전자, 포스트잇, 펜, 노트북,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주먹밥, 사과자, 청포도, 적포도, 음료(커피, 아이스티)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 연구팀 3차 회의 인터뷰 질문 수정하기 설문지 작성하기 3. 2부 - 연구 설계도 작성 -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대상 작성하기 - 연구방법, 연구예산 팀별로 토론허기 4. 3부- 팀별로 연구 설계 발표 - 팀별로 연구설계 내용 발표하기 - 연구설계 내용 발표 내용 토론허기				ppt 전자 포스트 잇,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 10회차: 자체 연구 진행

표 Ⅲ-13 11회차 계획안

주차	11	일시	2019. 05. 18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연구와 나는' 대회 2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샌드위치, 두유, 쌀과자, 방울토마토, 적포도, 떡, 음료(커피, 아이스티, 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ppt
현장조사	2. 1부- '연구와 나는' 대회 - 나는 우리연구문제에 대해 어떤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나 적고 말하기 - 연구자인 '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ppt 종이 펜
커뮤니티 활동	3. 2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4.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4 12회차 계획안

주차	12	일시	2019. 05. 25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연구리뷰 2부 - 연구팀 4차 회의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ppt, 종이, 펜, 녹음기, 포트, 컵 20개, 출석확인증 간식: 주먹밥, 청포도, 쌀과자, 샌드위치, 떡, 음료(커피,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샵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현장연구리뷰 - 인터뷰 해보고 난 뒤 리뷰 - 참여관찰 결과 공유 - 조사시작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공유 3. 2부 - 연구팀 4차 회의 - 인터뷰 질문 수정 -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 - 설문지 수정해서 작성하기				ppt 종이 펜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5 13회차 계획안

주차	13	일시	2019. 06. 08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소 운영회의 2부 - 연구설계 재점검 3부 - '연구와 나는' 대회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샌드위치, 떡, 적포도, 과자, 음료(갈라만시,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 연구소 운영회의 앞으로의 일정, 워크숍 운영회의 3, 2부 - 연구설계 재점검 - 인터뷰 질문 수정 - 설문지 수정해서 작성하기 4. 3부 - '연구와 나는' 대회 - 나는 우리연구문제에 대해 어떤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나 적고 말하기 - 연구자인 '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6 14회차 계획안

주차	14	일시	2019. 06. 11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현장조사 실시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소 운영회의 2부 - 팀별 점검회의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샌드위치, 떡, 과자, 적포도, 방울토마토, 음료(칼라만시, 등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기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연구소 운영회의 앞으로의 일정, 워크숍 운영회의 3. 2부- 팀별 점검회의 - 연구가정 점검하기 - 참여관찰의 필요성 공유 - 인터뷰 경험 공유 - 현장연구 어디까지 했는지 토론				ppt 종이 펜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7 15회차 계획안

주차	15	일시	2019. 06. 22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현장조사 실시 - 프로젝트 실행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현지조사 리뷰 2부- 설문조사 사례공부 및 설문조사 내용수정 3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떡, 빵(샌드위치, 식빵), 음료(갈라만시, 커피, 동글레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내가 최근에 새롭게 경험한 것은? 1:1 상담시간 : 연구원들끼리 짝을 지어 대화 진행				ppt
프로젝트 실행	2. 1부- 현지조사 리뷰 - 참여관찰 수첩과 기록 점검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앞으로 현장연구 진행상황 체크하기 3. 2부 - 설문조사 사례공부 및 설문조사 내용수정 설문조사 사례를 통해 공통점, 참고점 토론 각 팀 설문조사를 함께 리뷰하고 추가로 묻고 싶은 질문 설정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8 16회차 계획안

주차	16	일시	2019. 07. 1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조사 리뷰 2부 - 설문조사 설계 및 모의 테스트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과자, 자두, 음료(커피, 갈라만시, 민트티)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10대가 10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최종발표회 제목 정하기				ppt
자료분석	2. 1부- 현장조사 리뷰 - 녹취하는 법 학습 데이터 관리법 공유 현재 인터뷰 진행 체크 및 앞으로 현장연구 진행상황 계획하기 3. 2부- 설문조사 설계 및 모의 테스트 인터뷰 한 질문들로 설문항을 구성하기. 질문항목을 만들 때, 질문의 목적 생각해보기. 복합적인 질문항 구성하기(크로스 체크 염두에 두기) 개인정보 보호, 문의사항 컨텍 넘버 남기기 구글 설문지 사용법 익히기. 연구팀끼리 서로 설문조사 시도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19 17회차 계획안

주차	17	일시	2019.07.20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조사 리뷰 2부 - 녹취방법 학습 및 실습 3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빵, 과자, 천도복숭아, 자두, 음료(민트차, 커피, 칼라만시)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나에게 일어난 별 일				ppt
자료분석	2. 1부- 현장조사 리뷰 - 현재 인터뷰 진행 체크 및 앞으로 현장연구 진행상황 계획하기 - 연구비 정산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점검 3. 2부- 녹취방법 학습 및 실습 - 녹취의 필요성과 분석하는 법 - 연역적 분석과 귀납적 분석 내용학습 - 녹취전사 실습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0 18회차 계획안

주차	18	일시	2019.07.2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자료 분석 특강 2부 - 연구자료 분석 실습 3부-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빵, 과자, 천도복숭아, 자두, 음료(민트차, 커피, 칼라만시)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나에게 일어난 별 일				ppt
자료분석	2. 1부- 연구자료 분석 특강(자료분석과 해석방식) -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이해하기 - 분석에 유용한 태도란? - 모순과 불일치 찾기(예: 인터뷰와 관찰 정보 다른 경우) - 같은 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해석 3. 2부- 연구자료 분석 실습 - 녹취록 '열린 마음'으로 다시 읽고(3번 이상), 다시 듣기 - 키워드(해시태그) 뽑기: 주제만들기 - 인용할 만한 부분 형광펜으로 굿기 - 코딩 유목화, 범주화: 코딩 리스트 체크, 코드 비슷한 것 끼리 묶기(유목화), 새로운 코드 추가, 범주화(상위, 하위 구분)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1 19회차 계획안

주차	19	일시	2019. 08. 03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현장조사 리뷰 2부 - 연구자료 분석 실습 3부 - 설문조사 체크하기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천도복숭아, 과자, 음료(갈라만시,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 최종발표회 제목 정하기				ppt
자료분석	2. 1부- 현장조사 리뷰 - 현재 인터뷰 및 녹취 진행 체크 및 앞으로 진행상황 공유 - 연구비 정산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점검 3. 2부- 연구자료 분석 실습 - 전사자료 읽으며 키워드 정리해서 주제 구체화하기 - 선정한 키워드에 대해서 토론하기 - 코드 정리하기, 비슷한 코드 묶기 - 전사자료 중 인용할 만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4. 3부- 설문조사 체크하기 설문자료 취합하기 취합한 설문자료를 연구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토론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 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2 20회차 계획안

주차	20	일시	2019. 08. 0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 자료분석 및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연구진행 상황 체크 3부 -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자료의 연결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떡, 천도복숭아, 과자, 음료(깎라만시,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본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각 팀 연구제목 정하기 - 작년 중간발표 리뷰 공유 3. 2부 - 연구진행 상황 체크 - 인터뷰 내용 살펴보기 - 녹취파일 보관 체크하기 - 예산 사용상황 체크하기 현장연구 진행상황 공유하기 4. 3부 - 연구자료 분석 및 참고자료의 연결 - 수집한 참고자료 검토 및 토론하기 - 연구에 사용할 참고자료 선별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5.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6.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3 21회차 계획안

주차	21	일시	2019. 08. 10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및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팀별자료 분석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노트북, ppt,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과자, 복숭아, 음료(칼라만시,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포스터 확인하기 - 연구발표회 일정확인 3. 2부 - 팀별자료 분석 -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자료 정리하고 공동 대본작성 - 코드 분류하고 분석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4 22회차 계획안

주차	22	일시	2019. 08. 17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및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팀별 자료 분석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복숭아, 쌀빵, 과자, 음료(깎라만시, 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연구발표회 역할분담 - 의상 및 순서정하기 - 연구회에서 공유할 내용 토론 3. 2부 - 팀별자료 분석 -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여 자료 정리하고 대본작성 - 코드 분류하고 분석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5 23회차 계획안

주차	23	일시	2019. 08. 24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및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2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쌀밥, 복숭아, 김밥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자료분석	2. 1부 - 연구발표회 계획 회의 -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내용 토론하기 -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차별점에 대해서 토론하기 3. 2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 주제: 제목에 넣기 - 주장: 한 문장으로 넣기 - 자료 분석한 사례 중에서 인용할 부분 정하기 - 자료에 대한 설명 붙이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3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6 24회차 계획안

주차	24	일시	2019. 08. 31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2부 - 마무리 토론 다음 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쌀밥, 과자, 김밥, 복숭아, 음료(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오늘 나의 기분 1-10				ppt
논문작성	2. 1부 - 팀별 연구발표회 자료 만들기 - 해야 할 일 리스트 만들고 업무 나누기 - 주요 쟁점 선별하여 발표 흐름 구상하기 - 선행연구와 기사 확인하여 발표자료 선별하기 - 설문분석하고 발표에 사용할 자료 구성하기 - 자료 종합하여 발표문 작성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3. 2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ppt
마무리	4.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7 25회차 계획안

주차	26	일시	2019.09.21.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연구발표회 리뷰 2부 -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3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4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쌀빵, 머핀, 사과, 음료(커피, 민트차)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자신에 대한 정보 3가지 말하기				ppt
논문작성	2. 1부 - 연구발표회 리뷰 - 나의 발표에 대한 소감 - 다른 팀 발표 중 인상 깊었던 내용 토론 2. 2부 -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 추가로 작업하고 싶은 내용 - 팀별 논문 작성 계획안 쓰기 3. 3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고 싶은 정책제안서 작성 - 연구비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최종 정산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4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표 III-28 26회차 계획안

주차	26	일시	2019.09.28. (14시-18시)	장소	하자센터 마을서당
목표	자료분석, 결과발표, 논문작성				
구성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부 -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2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3부 - 마무리 토론 다음주 소개 & 정리				
준비물	종이, 펜, ppt, 노트북, 포트, 컵 20개, 녹음기, 출석확인증 간식: 과자, 쌀빵, 토마토, 음료(두유, 민트차, 커피)				
활동 단계	활동				준비물 및 유의점
도입 워크숍	1. 오프닝-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자신에 대한 정보 3가지 말하기				ppt
논문작성	2. 1부- 논문작성 및 추가 발표회 진행 - 추가로 작업하고 싶은 내용 - 팀별 논문 작성 마무리하기 3. 2부 -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정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고 싶은 정책제안서 작성 - 연구비 및 인터뷰 사례 상품권 최종 정산하기				ppt 종이 펜 노트북
커뮤니티 활동	4. 2부- 마무리 토론 - 자신의 생각말하기, 다른 연구원들의 생각듣기				
마무리	5. 마무리 & 다음주 예고				

○———— 제4장 청소년 참여 연구 결과

- 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 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 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주제 1. 우리는 왜 학원을 계속 다닐까?: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

연구원: 품, 다정, 미르, 줄리

1. 서론

1) 주제선정이유

저희의 연구 제목은 ‘불안으로 만들어진 생태계’입니다. 저희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학원에 관한 발표라고 하면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대, 저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삶에서 학원이 빠진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원을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안 다닌 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사자로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연구방법

3) 본 장의 내용은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 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모상현·함세정)의 내용을 정리하여 재수록하였다.

저희는 16~19세의 학원에 다닌 적 있거나, 학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16~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68명이 응답했습니다. 참여관찰은 학원과 과외, 학교 등에서 진행하며 기록하였습니다.

3) 연구 참여자

표 IV-1 연구 참가자 목록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보선	여	17세
미숙	여	17세
서윤	여	18세
민지	여	17세
새봄	여	18세
서연	여	17세
유나	여	19세
준하	남	18세
지수	여	18세
우성	남	18세
원송이	남	18세
윤서	여	18세
이중	여	17세
레미	여	18세

2. 연구결과

1) 학원, 고통의 공간

저희 연구의 첫 번째 주제는 <학원, 고통의 공간>입니다. “넌 지금 몇 등인데?”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넌 지금 몇 등인지” 끊임없이 묻는 것 입니다. 동네 학원을 살펴보면 설연(서울대와 연세대의 줄임말)이라는 학원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이름부터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학원의 광고지 또한 대학 입시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플랜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플랜카드 걸고 누구누구 이름 써 놓고 무슨 대학교 합격, 이렇게 써 놓고. 되게 대학 이름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부담? 부담으로 느껴지지. 나는 아직 대학에 안 갔으니까 내가 들어가면, 좋은 데를 들어가지 못하면 차라리 가지 말아야겠다 싶을 정도로, 좀... 내 수준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 지수 (18세, 여)

영어학원 쌤이 개는 평소에 놀면서 하는데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이라는 거야. 솔직히 안 믿겼는데, 우리 플랜카드 있거든? 거기에 일등에 막 땡땡땡 이렇게 있는 거야. 학원 앞에 막 100점 땡땡땡, 99점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 95점 이상. - 미숙 (17세, 여)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플랜카드에 나온 내용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학 이름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아, 이름이 없는 대학이면 아예 가지를 말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준이

플랜카드로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미숙에 의하면 플랜카드에 실리는 것도 ‘아무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95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청소년만 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거를 알아요. 연고전이나 고연전 같은 그런 학교만의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많다는 걸 아는데.. 그런 학벌 편향주의 된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싫구 그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 학원 칠판이 있는데... 그... 서연고랑... 이제.. 어..지방의대하고 이대간 사람들 이름이 써져 있는 칠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시선을 들면은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엎드린 자세) 이러고 있어요.” - 레고 (19세, 여)

때로 이런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입니다. 레고는 학원 칠판에 써 있는 플랜카드를 보고 싶지 않아서 쉬는 시간마저도 엎드려있었다고 말합니다.

(1) 학원이 가하는 고통, 감시: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학원이 가하는 다른 고통은 ‘감시’입니다. 데스크, 러닝 룸에는 CCTV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러닝룸은 자습실을 말합니다. 즉, 학생들이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찍히고 있고, 누군가가 언제나 감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원에 오히려 너무 많이 다녀서 내 개인 공부 시간이 아예 없고 집에 오면 또 쉬어야 하니까 거기에 패턴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답답함이라고 해야 되나? - 유나 (17, 여)

영어 학원 자습실에 CCTV가 있거든 그 책상들이 짝 있단 말야. 의자도 마음대로 못 빼. 되게 좁은 방에, 좁은 방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넣어 가지고 꾸역꾸역 책상을 밀어 넣었는데 거기 또 CCTV가 있어. 예를 들어서 단어 외우다가 폰을 잠깐 하면, 그걸 데스크에서 쌤이 보고 있거든. 그럼 쌤이 들어와. 그래서 “너 폰 지금 이거 하지마.” 해서 뺏어.

- 민지 (17세, 여)

우리는 학원 교실에 들어가서, 학원 자습실에 들어가서. 학원 어느 곳에 있어도 감시당합니다. 인터뷰에서 연구 참가자는 걸어 다니지 힘들 정도로 비좁은 학원 자습실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단어를 외우다 잠깐 폰을 봐도 감시하고 있는 선생님이 휴대 전화를 뺏는다고 합니다. 단어를 외우는 용도 이외에 내 몸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따로는 아니고 그냥 거기 CCTV가 있거든? 그래서 1층에 선생님이 있고, 4층이 독서실인데, 1층에서 관리하시는 쌤이 독서실 CCTV로 감시하지. 그 핸드폰도 학원 들어가기 전에 다 반납하고서 학원 끝나고 다시 받지. - 미숙 (17세, 여)

우리 학원에 급식실이 있어. 애들 밖에 나가서 밥 사먹으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학원에서 먹을 수 있게 식권 3,000원짜리 줘. 자습실에서 몰래 핸드폰 하거든? 그러면 데스크쌤이 CCTV로 보고 마이크로 “OOO 핸드폰 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쪽팔려

(참여관찰 2019년 7월 27일)

학원에 CCTV가 있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핸드폰은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반납합니다. 흔히 10대들이 하루 종일 휴대 전화에 매달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10대들이 10대와 핸드폰으로 연락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뺏고, 학원에서 뺏고, 집에 간다고 편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한 참여관찰에는 학원에 급식실이 있어 학생들을 최대한 학원 밖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CCTV로 감시하고, 마이크를 “OOO 폰 하지마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2) 학원이 가하는 고통, 폭언과 성차별: 성적만 오른다면 괜찮아

감시도 폭언도, 폭력도, 성차별도 성적만 오른다면 괜찮은 일이 됩니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재시험이 걸리면 항상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 이런 말은 항상 들었던 것 같아. - 민지 (17세, 여)

빡대가리라던가. 너 이렇게 공부해서는 너가 원하는 대학 못 간다고. 니 같은, 니 같은 빡 대가리는 여기 발도 못 댄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그리고 또 그 입시 관련된 거에 외에서는 자기 수업을 잘 안 들으면 귀는 달려 있는 거냐고 내 말 똑바로 이해하는 거냐고, 머리 제대로 달려 있는거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었는데, - 민지 (17세, 여)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에 다닙니다. 그러나 성적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에 학원에서는 폭언,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폭언을 듣습니다. 민지는 숙제를 안 해오면 “뒤지고 싶냐”, “죽고 싶냐” 이런 말들을 항상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의 수업을 잘 듣지 않으면 “귀는 달려

있는 거냐”, “내 말 똑바로 이해하냐”, “머리는 제대로 달려 있는 거냐” 라는 폭언들을 듣기도 합니다.

개가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선생님이, 네가 본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2학기 교과서를 한 번도 안 펴봤으니까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대학에서 누군가를 뺨을 때 너 같은 애는 안 뺨을 것 같다고, 네가 그래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냐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말이 되게 폭력적으로 들렸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 지수 (18세, 여)

난 오히려 그런 건 들어 봤어. 네 현실을 자각하고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라고. '이 정도 성적으로는 인서울도 안돼'라고 얘기하면서 네 성적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좀 더 대학을 넓게 알아보고 좀 생각을 넓게 하라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어. - 지수 (18세, 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을 갈 수 있겠냐”, “너 같은 애는 뺨치 않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인서울도 안 된다” 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청소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협박과 감시, 공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남자애들이 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여자애들이 욕하면 여자애가 입이 왜 이렇게 가볍고 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많아. 그리고 여자애가 입이 거칠면 시집 못 간다 얘기하고. - 보선 (17세 여)

내가 학원 끝나고 놀러 가려고 초커를 하고 갔는데, 쌤이 “너 일부러 이런거 하고 온 거야?” 이러면서 달라 보인다고 그러고. 한번은 딱 붙는

미니원피스 입은 여자 사진 보여주면서 자기 전 여친인데 어쩌냐고 예쁘지 않냐고 물어봄. 어찌라고. (참여관찰 2019년 8월 23일)

성적에 대해서만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성적과 전혀 관련 없는 성차별적인 얘기를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남자애들이 욕할 땐 가만히 있다가 여자애가 욕하면 입이 왜 이렇게 가볍고 싸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많아. 그리고 여자애가 입 거칠면 시집 못 간다” 와 같은 말을 듣기도 합니다. 참여관찰 중 학원 선생님이 초커를 하고 온 학생에게 “너 일부러 이런 거 하고 온 거야?” 하며 “달라 보인다” 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쌤이 때렸어요. 망치 같은 게 있는데 선생님이 “너 떠들지 말랬지” 이러면서 때린다던가. - (이중, 17세, 여)

거기 다니는 학생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애 좀 때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공부 좀 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봤고. 그런거 많이 본 것 같아. - 민지 (17세, 여)

학원에서 육체적 폭행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런 것도 성적만 오르면 ‘큰 일’이 안 된다는 것 입니다. 부모가 직접 학원 선생님에게 “애를 때려서든 어떻게 해서든 공부 좀 시켜달라” 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에서의 폭행이 완전히 학원선생의 의지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인간 대접’을 안 해줘도 성적만 오르면 된다는 믿음이 학원의 이와 같은 행태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대답 못하면 악수하는데 엄청 세게 잡는다던지 그런 식으로 애들 그러

고. 근데 점점 크니까 안 해. - 보선 (17세, 여)

10시가 되면 꼭 다 나가야 하잖아. 그럼 9시 50분부터 거기 남아있는 학생들이랑 재시험 기다리는 학생들을 썩 다 밖으로 내보내. 9시 50분만 되면은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썩 다 복도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를 보는 거야. 난 그래서 거기서 11시 40분까지 있다가 와 본게 내 최대 늦게까지 있다 온 경험이고. 그랬던 것 같아. 항상 가면은 숨이 옥죄이는 느낌. - 민지(17세, 여)

(3) 학원이 가하는 고통: 청소년의 말을 들어 줄 사람이 있을까?

학원을 규제하는 여러 법이 있긴 합니다. 학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에서는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재시험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9시 50분에 학원 복도로 나가 재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40분까지 재시험을 보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민지는 집에 올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원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지정된 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공부를 더 '관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CCTV를 설치한 학원은 운영 중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저녁 10시 50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민지의 인터뷰 내용은 한 학원의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잘 받아들여질까? 나는 아직 학생이고 나이도 어리잖아. 그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말해도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쌤들은 어른이다 보

니까 약간 좀 말하기도 그럴 것 같아. -미숙 (17세, 여)

찌를 수 있는 곳도 없고, 대처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뭐라 하고 끊어,
그럼 내가 다닐 학원이 없어. 한정되어 있어. 뭐라 막말 하고 끊을 수도
없어. - 보선 (17세, 여)

청소년들의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학생들의 말을
믿고 존중하지 않는다.’ 와 ‘사실 당사자만큼 잘 알고 있지만 묵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학원은 우리에게 감시와 협박, 폭력의 공간이 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1) 학원, 안 다녀도 불안하고 다녀도 불안하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원으로 발걸
음을 옮기는 까닭은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
에게 물었습니다. “학원을 안 다니면 어떨 것 같나요?” 청소년들은 입을 모아 “불안
할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학원을 다니지 않을 때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서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뒤쳐질까 봐, 다른 아이들과의 거리가
벌어질까 봐 막연하게 불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애들’ 이 있습니다. 나보다 위이거나 아래인 ‘다른 애들’ 말입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
우리는 종종 ‘다른 애들’을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면 나야 좋은데 다른 애들은 벌써 막 학원도 다니고 예습

도 다 하고 그러는데 나만 좀 뒤쳐지는 느낌이 들면 많이 힘들 것 같아.
- 미숙 (17세, 여)

“맨날 말로는 학원 끊고 싶어 하는데, 학원을 막상 안 다니면 불안할 것 같아. 말이 좀 모순적인데, ‘다들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 학원가서 공부하고 있겠지?’ 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나는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좀 불안할 것 같아.” -민지 (17세, 여)

이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뒤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결과를 다시 또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나보다 못하던 친구가 나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가끔은 나보다 성적이 떨어진 친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면서 자기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애를 보면서 내 성적에 안심을 하거나.” - 지수 (17세, 여)

“그냥 학교에서 느끼는 경쟁들을 학원에서 또 느낄때부터 불안한게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이 잘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경쟁심리 때문에 진짜 막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았는데 더 잘하고, 약간 나 공부 못 한다고 무시한다거나 그런거 있잖아.”

- 민지 (17세, 여)

나보다 높은 옆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위로 오르기 위해 우리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불안하다지만 학원에 다니고 있더라도 불안이라는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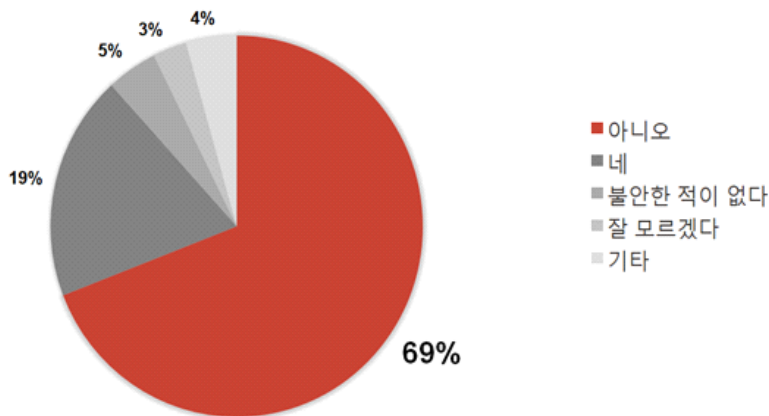


그림 IV- 1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나?

학원을 다니고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70퍼센트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학원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오르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우리 학원 모르는 애들 불쌍하다.”, “OO 쌤을 모르니까 성적이 안 올라간다.”, “우리 학원 끊으면 너네 밀바닥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못 끊겠어. - 민지 (17세, 여)

학원에서는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불안을 주입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학원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학원 끊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고 막 00 끊고 다른 영어 학원을 다니면 성적이 엄청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말을 해. - 민지 (17세, 여)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자, 학교에서도 학원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이미 학원에서 선행 학습으로 다음 내용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공식과 원리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니 학원에서 배우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로 수업이 진행된다. 내가 학원에서 학교 수업보다 느린 속도로 처음 학습하였을 때도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 접한다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몇몇 쌤들이 중간중간 학원에서 배웠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음 (설문조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맞추어지다 보니 시험 또한 점점 어려워집니다.

수업에서 배운 걸 응용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시험문제는 응용하는 문제를 냈 (설문조사)

어린 시절, 중간고사 시험을 50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날 담임선

선생님께 전화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원평가, 수행평가 모두 백 점을 맞았으면 그 단원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선생님의 수업에 문제가 있거나 시험의 난이도가 수업과 너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과 어머니는 그날 정말, 정말 길게 통화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한참 경청하신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선생님 말씀은 결국 애를 학원에 보내라는 거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학원에 보내라. 이것은 비단 어머니께서만 내리신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이 학원을 다니게끔 유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던진 질문에 위에서 보시다시피 무려 80퍼센트가 넘는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학원의 영향력은 학교 그 이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행이란 명목으로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업을 먼저 접합니다. 이제 학원을 그만 다닐 수도 없는 상황, 우리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는건지,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난 공부를 잘 하는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는 이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학원에서의 여러 고통을 받고도 학생들이 학원을 끊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학’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대학은 꼭 거쳐야 할 관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 “내가 될 하든 대학은 가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성적은 안 되는데 대학은 가야 되는 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가고 싶다’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거의 세뇌된 수준으로 ‘가야 한다’인 것 같아. - 지수 (18세, 여)

근데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정해진 꿈은 없거든요? 꿈은 없으니까 일단 부모님이 대학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거면 꿈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공부밖에 없다. - 원승이 (18세, 남)

대학만이 답인데,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공부할 줄 모릅니다. 주체적으로 공부할 줄 모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의지의 문제? 억지로라도 안 오면 전화하는 사람 있고 수업을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는 것 같아. - 지수 (18세, 여)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은 각자의 학원 간판을 붙인 노트를 들고 교문에서 우리 학원 오라고 홍보를 합니다. 학원 또한 다양합니다. 체대, 미대, 국·영·수 학원이거나 할 것 없이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 줍니다. 공책 속에는 각 학교마다 예상 기출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어떤 학원으로 옮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0학원이 족집게더라” 이런 식입니다. 학원은 몇 시에 오냐고 공부는 이렇게 하라고 학생들의 시간을 ‘관리’해 줍니다.

게다가 학교는 학원을 다닌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고, 그렇게 되면 학원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며 학원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인터뷰에서 학원에 다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자신을 공부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강제성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막습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시간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학원을 다니고 오면 스스로 공부할 힘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는 이유: 무더짐

그리고 저희 팀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 폭언 등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은 학생이란 위치 때문에 말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럼 끊으면 되지 하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져서라고 답합니다. 저도 처음 학원에 갔을 때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저런 말을 듣는 것이 나만 불편한가? 싶었지만 저 또한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점점 무더졌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자존심 상하고 엄마 아닌 사람한테 처음 맞아 보니까 어? 뭐지? 하면서 조만한 자존심에 금이 가서 눈물 그렁그렁할 뻔했는데, 맞을수록 생각이 없어져. 따끔하고 말지 이런 생각? 그냥 엄마도 사랑의 때 이런 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무더진 것 같아. - 보선 (17세, 여)

근데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별로 이제 감흥도 없어. - 지수 (18세, 여)

선생님들 소리 지르는 소리가 항상 들려. 진짜 과장 하는게 아니고 몇 분마다 한 번씩 야!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 민지 (17세, 여)

학생들은 뭐 반항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순응을 했죠. 왜냐면 학교 처럼 뭐 이르면, 학교처럼 고발하면 선생님이 그 직장을 잃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또 분위기가 막 체벌이 절대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학원은 - 준하 (18세, 남)

그럴 때 (폭행당한 뒤) 개네들은 우리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굳이 잘못 된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선생님이 그럼 어쩔 수 없잖
아 학생들은. 엄마한테 가서 이르면 학생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을 할 것
같고. - 민지 (17세, 여)

그러나 무더지지만 해서 힘든 상황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는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해도 바뀔 것 같지 않다. 가 있고,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3. 결론: 청소년은 어른과 대화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제 3의 공간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은 일방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에는 자기 바깥입니다. 청소년들은 학원이 유일한 소통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서는 가족들과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 학원 선생님과 대화는 어쩌면 유일하게
어른과 대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학원이
좋은, 좋아지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른과 대화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제 3의
공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주제 2.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사라진 대화, 강요된 중립

연구원: 양친구, 이경, 오리, 삼색, 마루

1.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페미니스트로 세상을 산다는 것, 특히 10대가 학교 안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 조금이나마 알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연구원 모두는 십대 페미니스트 당사자입니다.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교사까지 포함된 ‘페미니즘 책모임’이 대외적으로는 전혀 다른 간판을 달고 전교의 단 8명만 아는 ‘지하조직’이 된 이유?

“얼마 전 친구가 ‘니네 쌤 페미라매?’ 묻는 거예요. ‘니네 쌤 일베야?’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근데 페미가 뭐냐?’고 또 물어요. 모임 소속 7학생)⁴⁾

이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우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것을 나타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를 직접 겪거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반 친구들은 ‘페미’를 욕으로 씁니다.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성차별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해 의문을

4) 진명선, “아무도 청소년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허프포스트, 2018년 8월 5일자.

제기하면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숨어있는 여성혐오 이게 여성혐오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 뿌리 박혀 있어서 아무도 문제 느끼지 못했던 거 예를 들어서 온갖 부정적인 단어에 '계집 녀'자가 들어간다는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대부분 반응은 그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해? 그러는데.

- 인간고양이 (18, 여)

하자에는 페미니스트가 많은데 일반 학교였으면 갑분싸 되죠

- 사과(17, 남)

페미가 학교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돼?) 하나의 욕이지. 그러,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뭐, 욕 중에서도 (삼색 : 응.)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개새끼라는 욕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개새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잖아. (삼색 : 응.) 욕 중에서 골라서. 비슷한 거지. - zzxx17 (17, 남)

이렇듯 우리는 혐오를 접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희 10대 연구원들은 왜 이렇게 페미니스트로 살기 힘들지? 하는 의문이 들어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연구 방법

10대 연구소 학교 안 페미니스트 연구팀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교실에서 살기 힘들어졌는지에 대해 사회적 맥락과 교실의 맥락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연구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1) 심층면담

인터뷰는 2019년 5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성 17명, 남성 7명이 인터뷰에 참가했습니다. 교실 안의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거나,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방법으로는 전화인터뷰, 집단인터뷰, 1:1인터뷰 등을 통해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표 IV-2 심층면담 기간 및 참여자 개괄

인터뷰 기간	2019년 5월 30일~8월 19일
면대면	20명
전화 인터뷰	4명
그룹	3명

(2)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1일간 132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젠더퀴어 7명, 여성 82명, 남성 43명이 응답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익명으로 다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표 IV-3 온라인 설문 기간 및 참여자 개괄

설문조사 기간	2019년 8월 3일~8월 24일
여성	82명
남성	43명
젠더퀴어	7명
총	132명

설문조사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페미니스트에게 반감을 갖는 이유에 대해 19명 중 11명인 57.9%가 성평등이 완전히, 혹은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 평등한데 자꾸 여성인권이 낮다고 외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55.7%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페미니스트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표 IV-4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연구 참여자(가명)	나이	성별
예진	18	여
포도	17	여
초코	18	여
탱고	17	여
우유	17	남
비누	17	남

나무	17	남
가오리	18	남
소프트콘	18	남
로봇	18	여
미소	18	여
가현	18	여
엘리사	18	여
지수	18	여
누리	18	여
철수	19	남
수형	20	남
오션월드	18	여
zzxx17	17	남
박슈크림	17	여
루리	18	여
말친구	18	여
최복송	18	여
인간고양이	18	여

2. 연구 결과

1) 10대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

저희 10대 연구소 페미니스트팀 연구원들을 포함한 많은 10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쉽게 밝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설문 조사를 보면, 반 이상의 많은 청소년들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면 학교 내에서 페미니스트임을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있다-48% 밝힐 수 없다-52% (설문조사)

왜 그들은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지 못할까요? 인터뷰를 통해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너 페미냐? 이럴때 선뜻 대답 못 하는 게 있고. 나 머리 자른 거 탈코르셋이냐고 물어봤을 때 차마... 말하기 무서워, 개네들한테는 '에이 그런 것 보다는 머리 자르고 싶어서지.' - 누리 (18, 여)

여자 애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 그래서 살짝 괜히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나마 덜 무서운데 내가 페미니스트라 밝혔을 때 내가 얻게 될 인간관계에서의 불이익이 무서워서 솔직히 숨기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

-말친구 (18, 여)

대체로 학교에 있는 10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 같은 여성들에게조차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히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페미니스트임이 밝혀졌을 때 어떤 피해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피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표 IV-5 학교 안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임이 밝혀졌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습니까?**

내용	응답자 수
없다	37명
비난, 조롱	74명
분위기, 혹은 태도의 변화	74명
따돌림	17명
물리적 폭력	5명
기타	5명
총	212명

위 설문조사를 보면, 비난, 조롱 그리고 분위기 혹은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2명 중 약 150명입니다. 이것만 봐도 위의 인터뷰이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과장이 아닌, 실제 일어날 법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배경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페미니즘을 잘 모르겠고, 그냥 메갈 이런 사람들 때문에 페미니즘

이 안 좋아 보인다? 메갈이 중심이 아니라 진짜 정상적인 페미니스트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메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 미소 (18, 여)

'해화역 시위'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같아요. 원래 페미니스트가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그런 집단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 하는 것을 보면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약간 그걸 넘어서서 여성의 우월... - 철수 (19, 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4%의 청소년들이 주로 sns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정보를 접한다고 했습니다. sns에서 자극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페미니즘을 접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인식들은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학교였으면 갑분싸 되죠.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면 나가리 되죠. 분위기 완전하... 그리고 한 번 페미니스트라고 찍히면 신뢰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맞는 말을 해도 재는 페미니스트 발언 했으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 비누 (18, 남)

페미니스트라고 sns에 도배를 해 뒀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애한테 전화가 와서 너 메갈이야? 너 꼴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재 어차피 메갈이야, 꼴페미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배척한다던지 어떤 의제에서 저만 빼놓고 말을 한다던지 그런 태도적인 것들 - 탱고 (17, 여)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보고) 싹 다 완전 페미니스트 욱하면서… 뭐 대갈뻘을 깨부순다느니, 믹서기로 간다느니… - 누리 (17, 여)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부정적으로만 생각 하다면서 페미니즘은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학교의 페미니스트들은 당연히 두려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불평등한 교실: 기울어진 중립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을 워드클라우드 로 나타낸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IV-2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워드클라우드

성평등, 여성, 여자, 인권, 당당함, 성차별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는 왼쪽 그림은 여성 청소년의 답변입니다. 반면 남성 청소년들의 답변인 오른쪽 그림에서는 메갈, 평등, 꼴페미, 남혐, 제발 같은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페미니즘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의 입장은”이라는 질문에, 여학생의 25%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75%로 세 배 차이였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본인의 입장이 아닌 ‘대부분 학생들의 입장’을 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설문만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대화하는 무리의 학생들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남학생끼리의 대화가 여학생끼리의 대화보다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교실에서 형성되는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불평등한 교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실에는 상당한 젠더 불평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교실 내 남자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배제와 억압은 그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연구 결과, 교실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권력을 가진 이들은 주로 남성 무리이고, 그 무리는 대부분 페미니스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쥔 이들이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교실 내 젠더 불평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실 내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실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끊임없는 배제와 차별입니다. 우선 이들이 모이면 여자 청소년에 대한 얼평, 몸평을 비롯한 성희롱적인 대화가 이뤄집니다. 인터뷰이 포도 (17, 여)는 “여자 몸 비하나 얼굴 비하,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신나는 분위기.”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희롱과 폭력의 순간은 웃기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일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이 최복송 (18, 여)은 “남자애들이 여론 형성도 굉장히 잘해. 뒤에서 자기

네들끼리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또 되게 과장을 해서 잘 얘기를 해. 여자애들이 개네가 무서워서 잘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이 남자와 여자고 되게 잘 휘둘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게 된 ‘여자애’에 대한 인식을 곧바로 공유하며 그것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최복승(18, 여)은 “그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어장을 당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막 남자애가 뒤에서 얘기를 하고 다녀. “나 어장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여자애랑 그 여자애 무리가 그 남자애랑 싸워. 그러면 그 여자애 무리 전체가 남자애들한테 표적이 되어가지고 놀림 받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라고 말합니다. 한 남자애와 여자애에서 시작된 갈등은 무리 대 무리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남자애들 무리는 이미 공유된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여자애들 무리를 대놓고, 지나갈 때마다, 표적으로 설정해서 놀리고 비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여자애들 무리가 남자애나 남자애들 무리를 대놓고, 지나갈 때마다, 표적으로 설정해서 놀리고 비난하는 경우는 가능할까요? 최복승 (18, 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애들도 뒤에서 남자애들 욕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서 대놓고 막 그런 식으로 부르진 않고.. 여자애들이 남자애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없고,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을 그렇게 부르는 건 봤어. 좀 개네들이 흔히 부르는 ‘찐파 같은 남자애들’이 지나가면 막 성기를 여자애들한테 했던 것처럼 부르거나 “재 게이다” 이런 식으로?”

- 최복승 (18, 여)

최복승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애들은 남자애들 욕을 뒤에서 할 뿐 앞에서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애 무리는 여자애 무리뿐만 아니라 ‘찐파 같은 남자애들’이라고 불리는, 본인들이 남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공격합니다. 우에노 치즈코가 쓴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책에는,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서로를 남성으로 인정한 이들의 연대는, 남성이 되지 못한 이들과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화함으로써 성립한다.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경계선의 관리와 끊임없는 배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남성됨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가를 역으로 증명한다.’

우에노 치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中〉⁵⁾

저희는 이 문장이 저희가 인터뷰하며 들었거나, 직접 겪었던 특정 남자 청소년 무리의 공격성을 잘 설명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그 공격을 유머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손에 쥔 남성 무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개인을 눈치 보게 만듭니다. 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페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면은 바로 그냥 애들한테 장난이든 진심이든 욕을 먹고,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 위해서는 페미를 욕하고. 페미들을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좀 대화에 낄 수 있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철수 (19, 남)

남성 우리 내에서 여성 인권을 말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페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문제제기도 어렵지만, 그 무리에 속한 남성의 문제제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 주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같은 무리일지라도 검열에 의해 쉽게 배척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우에노 치즈코(나일등 역), 2012, 은행나무.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오는 남성 중심의 교실은 여성들의 생활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태도의 여성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위 여성에게 그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남자 친구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 워낙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애들이 반에서 여자애 순위 투표해서 순위 만들고, 근데 그런 걸 나는 너무 당연하게 받으면서 자라왔고, 이게 잘못된 걸 깨달았음에도 그런 영향에 의해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 인간고양이 (18, 여)

인터뷰이 인간고양이(18, 여)는 자신이 남자애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영향 받아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쌍얼에 자신감이 없는 거지 화장을 안 하면. 그래서 마스크를 껴.

쌍얼을 보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 위축된달까?”

- 예진 (18, 여)

인터뷰이 예진 (18, 여)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서 위축되고,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뭔가 화장을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 이었고, 화장 안 한 친구들은 그저 그런 애? 너 화장 안 하니까 배제할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암암리에 서열이 매겨지는 거죠.” - 탕고 (17, 여)

인터뷰이 땡고(17, 여)는, 교실에서 화장을 하는 친구들은 소위 ‘잘 나가는 애들’이고, 화장, 즉 꾸밈에 따라 암암리에 서열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는 저희 연구원들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성중심의 교실은 여성에 대해 이상형 월드컵을 하고, 외모 순위를 매기고, 예쁘거나 못생겼다고 판단한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과연 이러한 평가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성 무리의 평가는 교실 내 서열이 매겨질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분위기를 휘두르는 남자애들과 얼마나 친하나, 얼마나 잘 꾸미나 같은 것들은 특히 여성들 사이의 서열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 누군가는 교실 내에서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타이트한 교복을 더 타이트하게 줄이고, 귀찮고 싫어도 새벽같이 일어나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젠더 불평등의 교실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배척당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면서, 일상을 구속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교실은 어떤 존재일까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팀의 이번 발표 제목은 ‘10대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은’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한 교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실은 불평등하기만 한 걸까요?

3) 침묵의 교실: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 교실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어제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실의 ‘고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젠더 문제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더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과연 페미니스트를 욕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싸우지않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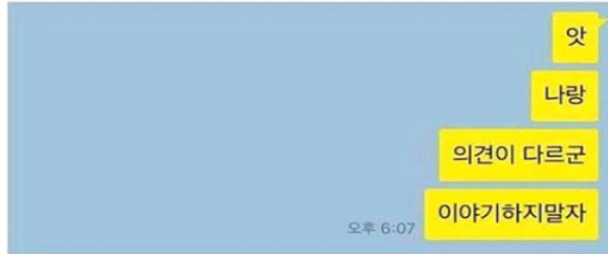


그림 IV-3. 친구와 싸우지 않는 방법

위의 자료는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들에서 돌아다니던 이미지입니다. ‘앗 나랑 의견이 다르군 이야기하지 말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이미지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팀원들은 인터뷰이를 구하면서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몇 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연구원들이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많은 인터뷰이들이 망설였고, 다섯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참여 관찰을 하는 한 달 동안에도 다섯 교실에서는 모두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슈가 단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겪는 성차별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성차별을 겪지 않은 사람은 133명 중 11명으로, 전체의 1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90% 이상이 겪은, 우리에게 밀접한 이 문제는 어째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인권운동을 해봤자.. 내 개인적인 이득보다, 사회적인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

- 가오리 (18, 남)

학교에서 살기도 힘들고 한데.. 사회문제까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관심을 가지면 참 여유롭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 소프트콘 (18, 남)

공부 잘 하는 애들은... 그런 거 관심 없잖아. 그냥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내 이야기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지. - 누리 (18, 여)

인터뷰이인 가오리는 자신이 성차별을 비롯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개인적 이득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한 개인적인 이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프트콘은 비단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여유롭게 산다.”는 말을 듣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 ‘이득’과 ‘여유’는 “학교에서 살기도 힘들고 한데” 라는 말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입시’입니다. 누리의 말처럼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느끼지 못하게 되어왔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외우게끔 하는 것이 바빠, 제대로 설명을 할 틈조차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학교의 환경 안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의 가치는 ‘생기부에 들어가느냐’, 즉, 입시에 유효한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페미니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3년만 공부해라’. 학생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 학교 폭력, 학생 인권, 스쿨 미투와 그 밖의 많은 사회문제들은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나왔습니다.

처음에 학교 안 페미니즘 혐오를 접했을 때 저희 팀은 이 문제를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학생들, 분위기를 조장하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소수의 학생들만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고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혐오, 페미니즘 혐오를 키워온 것은 방관해온 교실 안팎 모두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학생들이 공부 외에 가치를 두지 않을 수밖에 없게 한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접할 기회가 없다가 크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접해서 청소년들이 페미니즘을 많이 접하는 매체가 유튜브인데. 청소년들이 뉴스를 보지는 않잖아요. 접하기 힘들고, 유튜브는 바로바로 올라오니깐. 유튜브는 조회수가 목적이잖아요. 그니까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고, 콘텐츠도 약간.. 수위 왔다 갔다끔 해가지고 . - 소프트콘 (18, 남)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도 페미니즘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십대들은 페미니즘 관련 이슈를 책이나 강의 등이 아닌 sns로만 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sns 매체는, 소프트콘의 말처럼 표면적인 내용 중에서도 자극적인 기사와 희화화 등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 많은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꼴페미’, ‘메갈’, ‘쿵광’ 이라며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페미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우려 또한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0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자신이 학교 안에서 성별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페미니스트인 학생의 20퍼센트, 페미니즘에 대해 반감을 가진 학생의 60퍼센트는 ‘성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별로 인해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그것이 ‘성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뷰 도중에도 ‘그런데 이게 성차별이 맞아?’, ‘이것도 페미니즘적인 면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 10대는 무엇이 성차별이고, 무엇이 페미니즘인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배울 기회와 시간,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 그러니까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무지는 이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자체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예민하다, 혹은 직접 겪지 않은 일을 이야기한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설문 조사에서도 페미니스트를 비하하는 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46퍼센트의 학생들은 페미니스트의 예민함, 23퍼센트의 학생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겪지 않은 일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실에는 페미니즘을 접할 기회, 제대로 알 수 있는 수업,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도 제대로 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론은 커녕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는 방법도 당연히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입시를 위한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두려워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피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연구원의 입장을 먼저 물어오던 친구처럼, 우리는 특정 친구들, 자신과 입장이 같음을 확인한 친구들과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한 대화와 토론은 그 사람과 공간, 즉 우리 교실과 그 교실의 학생들을 안전한 사람과 공간으로 여길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때 공격당하지 않고 배제 당하지 않으리라는, 존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실 안에서 서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보다 ‘페미니스트’는 질문을 받거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도 앞서 살펴보았던 카카오톡 대화 그림처럼 ‘앗 나랑 의견이 다르군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지나치는 것이 자신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보편적입니다. 인터뷰이 최복송의 말처럼, 교실 안에는 이러한 현상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억압합니다.

3. 결론: 10대 페미니스트, 그럼에도 저항한다.

하지만 교실 안에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을 하는 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교실에서, 말 할 수 없는 교실에서 살면서 청소년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탈코’(탈코르셋)에 대한 고민이 그 중 하나입니다. 페미니즘 의제 중 에서 빠질 수 없는 탈코르셋은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거부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뜻하는 ‘코르셋’과 이것을 벗어난다는 ‘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비롯해 여성의 사회적 기준에 문제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난 인터뷰이들은 탈코르셋의 취지에 대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미 ‘여성의 화장은 예의’라는 관습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또 화장을 한 자신의 모습이 예쁘다고 느껴질 때, 동시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과도 “아! 오늘도 탈코 실패!”라며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예쁜 걸 좋아 하는게 어때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혐오의 존재를 깨닫고, 성차별을 매순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의 모습’에 대해

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화장이 좀 첨가가 된 여성'으로서 얻는 이익이 분명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실 내 서열(화장 안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회가 바라는 여자의 얼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화장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 중 하나는 내가 과연 페미니스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페미니스트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 중 미소는 페미니즘에 동의하지만 탈코르셋 운동도 하지 않고, 시위에 나가지도 않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지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페미니스트들은 계속해서 저항해 나갑니다.

페미니즘에 관련한 글을 접하고 내 실생활이랑 접목을 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내 일이고. 진짜 문제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된 것 같아. - 말친구 (18, 여)

강남역 10번 출구 그 강남역 살인사건 때? 그때 뉴스도 보고, 약속이 있어서 강남역에 나갔는데 포스트잇을 봤는데 그 때 뭔가 멍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 인간고양이 (18, 여)

10대들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페미니즘이 남의 얘기가 아닌 자신의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 여성혐오 범죄가 만연한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가'를

의심했고, 그 순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혐오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실천을 시작해나갔습니다. 자신이 페미니스트이든지, 아니든지 말입니다.

개네들이 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려고.

그게 “너희 그러지마, 잘못됐어”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개네는 항상 나한테 남자애들끼리 하는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 최복송 (18, 여)

자신은 페미니즘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던 최복송은 인터뷰 마지막 즈음에 같은 반 남자애들끼리 흔히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외모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고 친구들이 용기 내서 뭔가 탈코르셋을 한다던가 아니면 관심을 가진다던가.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내심 뿌듯하기도 했고? 저도 친구 따라 한 거거든요 사실. 살짝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 탱고 (17, 여)

친구를 보고 탈코르셋을 했던 탱고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낸 친구들이 탈코르셋을 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 뿌듯하다면서 주변에 탈코르셋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고 되게 여성적이고, 예쁘다 하면

“아 미안한데 그런 단어는 나한테라도 좀 사용을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것도 페미니즘 대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 말친구 (18, 여)

말친구는 자신에게 ‘여성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에게 그런 단어는 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페미니즘 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keep going. 그냥 계속. 많이 힘들더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

- 말친구 (18, 여)

안 드러내도 된다고. 나도 고민 많이 하잖아 페미니즘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러는 거 나도 무섭고 힘든 걸 알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네가 그렇게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그냥 무서우면 좀 숨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지. - 누리 (18, 여)

10대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또 다른 10대 페미니스트들에게 힘들더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안 드러내도 괜찮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제 3. 청소년은 왜 우울하다고 말 못할까?: 나는 자격이 없다.

연구원: 늘보, 시원, 은별, 진, 루, 유성

1.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찾은 신문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겪는 우울감 경험률은 비청소년에 비해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⁶⁾ 기사에는 청소년기가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심신이 건강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심신이 건강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청소년들의 우울 경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한 이유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나요? 분명 어제 밤 sns에는 우울하다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학교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갑분싸’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의 대화는 ‘갑분싸’ 피하기가 주를 이룹니다. 통계는 청소년이 우울하다는데 교실에서는 모두 웃고 있습니다. 물론 우울해서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청소년 상담 기관인 위클래스를 이용한 주변의 이야기는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문제도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하면, 자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쓰는 글은 과연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우울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 있는 것

6) 최주연, “청소년 정신건강과 의료계 역할”, 의학신문, 2019년 4월 8일자.

같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연구를 위해 저희는 인터뷰와 설문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는 여자청소년 22명, 남자청소년 11명과 이들의 교사, 부모인 비청소년 7명으로 총 40명이 참여했습니다.

표 IV-6 심층면담 참여자 목록

면담 대상자	성별	나이
린린	여	18
우진	남	18
무지개	여	18
영초	여	19
사과	남	18
홍길동	여	18
원재	남	18
초코	남	18
바닐라	남	18
지훈	남	18
허기	남	18
빈둥	남	33
연주	여	25
수경	여	39
간지왕	여	18

토끼	여	18
레고	여	19
느림보	여	17
장	여	17
올레아이	여	17
언니	여	19
오빠	남	28
아침	여	47
조	여	18
호돌이	남	18
부산	여	19
김지호	남	18
강민이	여	19
이해선	여	19
임서영	여	17
익선	여	17
은하	여	33
임티	여	17
재호	여	18
코봉이	남	17
새벽	여	17
그믐	여	17
또치	여	19
하정우	여	18
채소	남	54

2. 10대는 우울한가?

1) 지금, 우울한 청소년들

여러분은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인터뷰 한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세상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은 느낌. 뭔지는 모르겠어.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갈 때 돌아서자마자 그러거든. 나뉘는 거 같아. 학교에서 기운을 다 소비를 하니까 집에 오면은 또 혼자 막 이려고 있고.”- 임서영 (17세, 여)

“내가 지금 우울 속에 가라앉아 있거든?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안에 있으니까 밖이 보이지 않는거야. 밖이라는, 지금 나랑 다른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안 보이니까. 그냥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너무 힘들니까 그냥 나는 나 자체로 우울한 덩어리지.”

- 영초 (19세, 여)

“우울할 때는 되게 뭐라 하지,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야, 계속 가라앉다가, 언제쯤에는 뜨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가라앉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앞길이 너무 막막해. 그런 느낌이야.” - 임티 (17세, 여)

이런 느낌이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청소년의 우울에 대해 들어 보니 어떤가요? '나이도 어린 것들이 뭘 그렇게 우울할 게 많아?' 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인터뷰 했던 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뭐가 우울할 게 그리 많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아직은 사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고비를 매일 매순간 받고 있기 때문에 꽤나 우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연주 (25세, 여)

저희는 위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고비를 매일같이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2) 10대가 왜 우울하냐고요?

청소년이 우울하다고 하면 ‘입시’와 ‘학업’을 쉽게 그 이유로 떠올리지만, 이것만으로는 10대가 느끼는 우울감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고비’라고 느낄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라고 한 인터뷰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지금 성적이 미래와 직결 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미래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듭니다. 여기서 ‘열심히 한 것’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최근에는 공부하다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안 들 때? 그리고 특히 시험기간에 한 만큼 안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만한... 그런.” (...) “일단 내가 했는데 안 나온 거면 크게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그게 열심히 했어도 안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리고 지금 성적이 미래와 직결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잘 안 나오면 미래가 안 좋을 거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거 같다. 어른들이,

내가 상상하는 건 크게 없는데, 어른들이 이제 말하는 그런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면 평생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 - 호돌이 (18세, 남)

그리고 사실 입시 자체가 내가 아니게 된 사람으로 만드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인터뷰 참가자 레고는 “원치 않는 어디에 몰두를 하면 제 자신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루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느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소외 시키는 거죠.

“제가 지금 입시를 하면서… 일단은 어딘가에 제가 원치 않은 어디에 뭔가가 몰두를 하면 제 자신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만의 아이덴티티나 저를 이루고 있는 뭔가가 사라진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우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레고 (19세, 여)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열심히 해야할 것 같고 (...) 막상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 안 남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또 이제 내 앞날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장래에는 또 우리 가족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고등학교때는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컸던거지.” - 사과 (18세, 남)

이런 시험과 경쟁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 관계에서의 오는 거절감과 실패감이나 상처”는 청소년들을 힘들게 합니다.

“선생님이 일단 학교에서 만나본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게 ‘관계’더라고, 우울한 원인 자체가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 관계에서의 거절감,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실패감이나 상처, 트라우마 이렇게 되게 우울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가장 상담을 많이 오는 것도 친구관계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해.” - 수경 (39세, 여)

“주변에서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 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그런게 조금 우울을 만들지 않나 싶어요.” - 홍길동 (18세, 여)

3. 청소년들은 왜 우울감을 말 안하나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말을 하고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1) “아예 티를 안 내”

우울감을 말하는 대신 청소년들은 “아예 티를 내지 않습니다.” 또, “웬만하면 안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우울해서 뭐 이런 영향이 나한테 있었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말 못해.” - 임티 (17세, 여)

“학교에서는 아예 티를 안 내. 집에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으면 얘기를 안 하고, 가족이랑 말 안해.” - 임서영 (17세, 여)

“별로 내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 거,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살짝 나는 괜찮다 이런 느낌?” - 강민이 (17세, 여)

“그냥 안 드러내려고 해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 보고 눈치를 채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드러내려고 하죠.”
- 우진 (18세, 남)

“나는 보통 내가 힘들 때 그걸 남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웬만하면 말을 잘 안꺼내. (...) 슬프거나 힘들거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는 것 같아. (...)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알게되면 왠지 좀 피곤해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진지한 얘기는 웬만하면 안 꺼내려 해” - 사과(18세, 남)

2) 숨어들기, “겉발속울”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숨어듭니다. 왜냐면 말을 하는 순간 괜히 가정문제, 가정환경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괜히 그 가정문제, 가정환경이 이상했고 이런 애로 찍히기 십상이잖아요. 저한테 이상했고, 뭐 정신병자네 뭐네 뒷말 돌 수도 있고... 뒤집어서 말하면 사회가 아직 그걸 받아들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숨어들게 되는 거고.” - 무지개 (18세, 여)

“숨겨야 할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경험에 의해서, 주변 시선에 의해서 저는 숨기고 있네요.” - 홍길동 (18세, 여)

그러면 우울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숨기고, 티를 내지 않을까요? 그들은 숨기고 "겉밝속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겉밝속울”은 겉으로는 밝은 척 하지만, 속에는 우울하고 말 못 할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냥 항상 밝게 웃고 성적 잘 안 나와도 나는 상관없다” 는 식의 표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밝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말 못할 고민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주로 혼자 있고, 자기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못 털어놓고, 어떤 걱정이 생기면 그걸 혼자서 계속 끌고 안고 가는 사람” - 새벽 (17세, 여)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우울감 하나 느끼지도 않고 행복해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럽기도 한데 사람은 내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겉에서 보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겉에서 학교에서 모습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 토끼 (18세, 여)

“그냥 이미지가 밝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왜냐면 침울한 사람은 별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밝게 웃고 성적 잘 안 나와도 나는 상관 없다 라는 식의 표정을 보이고. 근데 속에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긴 한데…” - 호돌이 (18, 남)

“그렇게 그냥 집에서 맘껏 힘들어하고, 밖에 나가면 해맑게 있어야지, 내가 힘들다는 거 티내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 임티 (17세, 여)

“딱히 막 학교에서는 드러낸 적이 없어. 그냥 남들 생각하기에 내가 밝은 애니까?
그냥 그러고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하는 편이야.”- 재호 (18세, 여)

3) “다시 혼자 수그러져 있고...”

우울해서 몸이 수그러지는 것은 의도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몸이 이미 그렇게 행동 한다” 고 해요. 밝아야 한다는 것은 거의 강박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 힘든 거 감춰야 되고, 그냥 항상 밝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 - 새벽 (17세, 여)

“그냥 내가 의도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냥 별로 웃을 일도 아닌데 혼자 웃고, 별로 해맑을 일도 아닌데 해맑게 얘기 하는 경향이 있어.” - 임티 (17세, 여)

“그냥 힘들면 혼자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만약에 말을 건다 그러면 다시 그냥 웃고, 그 친구 다시 떠나면 혼자 다시 수그러져 있고.”
- 새벽 (17세, 여)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표정을 좀 의식적으로 밝게 하고 다닌다던가, 그럴 때가 되게 많고 약간 과장해서 기쁨 같은 걸 표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갑자기 힘이 딱 풀려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되게 아, 저 사람은 약간 힘들어 보인다, 생각이 들지.” - 코봉이 (17세, 남)

4) 우울은 숨기고, ‘착한 애’ 되기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착한 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착한 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울함을 표현하면 ‘나쁜 애’ 일까요?

“전부 다 나를 착한 애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이 동네 사람들, 할머니랑 친한 사람들 있단 말야. 전부 다 날 욕도 안 하는 착한 애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항상 기분이 좋으면서 고정관념에 박혀있어. 인생이 쓰다.” - 언니 (19세, 여)

“나는 행복하고, 밝고, 명랑하고, 좋은 이미지 여야 해” 이런 생각의 틀에 갇힌 아이들은 본인이 우울하고 힘들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하지. 그리고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왜? 나는 좋은 아이여야 되고, 밝고 되게 명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그런 아이여야 되니까. 뭐 그런 스스로 (가둔) 틀 같은 것? 그걸 깨지 못해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고.” - 수경 (39세, 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 우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는 청소년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대화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부적응자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우울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두려움들이 존재했습니다.

5) 우울을 말하는 것은 ‘갑분싸’

저희는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은 ‘갑분싸’ 시키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울한 걸 왜 얘기를 못 하나”라는 질문에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밝은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사이에서 우울한 이야기를 꺼내면 소위 말하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갑분싸’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청소년 사회에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허용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울한 청소년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우울한 이야기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뷰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학교, 학생 생각하면 학교에서 늘 밝은 걸 얘기하면서 놀잖아. 모두가 자기 슬픈 이야기만 하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슬프다, 우울하다 얘기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

- 지훈 (18세, 남)

“뭔가 이런 얘기, 슬픈 거 말하고 나면 다시 재밌어지기가 힘들잖아.” - 새벽 (17세, 여)

“내가 말하는 게 위로 받고 싶어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공감을 못 해주게 되면 뭔가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또 뭔가 ‘아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지.” - 부산 (19세, 여)

“놀다가 커버를 못 치는 날이 있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럴 때 막 예민하게 대하면 그때 멀어져. ‘갑자기 애 왜 이래’ 이러고.” - 임서영 (17세, 여)

6) 우울한 건 ‘외톨이’이자 ‘약점’

또한 많은 청소년이 시선의 두려움 때문에 우울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외톨이거나 실패자로 보여 집니다. 인터뷰이들은 “그걸 말하면 나는 외톨이가 될 거야 - 조 (18세, 여)”라는 생각에, 또 “못난 애라고 볼까 봐 - 아침 (47세, 여)”라는 걱정으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우울한 사람이 청소년 사회의 주류집단인 ‘인싸’ 라기 보다는 ‘루저’ 같은 이미지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울한 걸 말하는 건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청소년들은 생각합니다.

“이걸 얘기할수록 나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 어느 순간부터 내 얘기를 하는 게 나의 약점이 되고, 내가 얘기했던 그 약점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 이해선 (19세, 여)

인터뷰이들은 우울한 사람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거나 사회 부적응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솔직한 마음은 약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울감이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 청소년 사회에서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울을 말하는 게 교실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일만 해도 ‘야, 너 다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뭐만 하면 ‘야, 너 혼자였는데 괜찮겠어?’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죠.” - 간지왕 (18세, 여)

그래서 우울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우울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걱정합니다.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재 우울증 걸렸대” 그런 시선으로 보이는 게 싫었어요.”, “정말 내가 힘든 그 인식이 그 사람한테 박히는 게 싫어”, 또 “사연 있는 애”로 찍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라는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나의 한 면이 나,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입니다.

“또 정말 내가 힘든 그 인식이 그 사람한테 박히는게 싫어. 내가 친구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아 막, ‘이번 친구들이랑 괜찮아?’ 나 그 말이 싫었어요. 내가 친구들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내가 그걸 알아도, 그게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들만은 ‘어 왜? 그냥 평범해보이던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 이해선 (19세, 여)

“학교에서 그냥 친구로 봐 줬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있는 애가 아니고, 사연 있는 애로 찍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냐면은 그 친구가 나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애 저번에 이 말 했었지 이러면서. 애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그건가? 그러면서.”

- 임서영 (17세, 여)

4. 청소년은 왜 우울감을 말 못 하나

청소년들은 여러 이유들로 우울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말하지 않는게 마땅하고, 그게 옳바르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1) 우울은 개인의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할 일인데

왜 이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이들은 우울할 때 남에게 기대어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말해봤자 좋은 게 없는 것 같애. 누군가가 나의 우울을 해소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나 혼자 이 우울을 견디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안 말했던 적이 훨씬 많은 것 같고.” - 원재 (18세, 남)

“나는 나 혼자 삭히고 지나가는 게 편한 방식이고.” - 새벽 (17세, 여)

“저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강해 가지고 남한테 뭔가 기대거나,

아니면 남의 영역에 저가개입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 영역에 남이 개입하는 것도 둘 다 싫어하거든요.” - 레고 (19세, 여)

모두 다른 이유지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나는 우울할 자격이 없다.

우울을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여 말을 안 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우울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우울을 말하지 않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도 안 받는 정신과 치료를 감히 내가?” - 토끼 (18세, 여)

자신보다는 부모님이 더 고민할 게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기에 부모님이 더 우울할 것 같다고 토끼는 말했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우울하다고 생각되고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마땅한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치료에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어쩌면 토끼는 ‘나는 아직 치료 받을 자격이 없다. 즉, 우울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지속적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러고, 괜찮아지고. 또 막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있니까.” - 토치 (19세, 여)

또치는 본인의 우울이 지속적인 건 아니니까, 자주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있는 우울이라 상담 기관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울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담 받을 정도는 아니야” 하며 우울의 자격을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우울한 것도 아닌데 내가 우울해도 되는 걸까?”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울을 억누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3) 진짜 우울은 말하지 못하는 것

우울감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짜 우울한 사람’의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말하는 ‘진짜 우울’은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진짜 우울은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울한 사람이라면 그걸 밖으로 내비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새벽 (17세, 여)

“진짜로 우울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거를 게, 그런 거를 올렸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나는 그거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그런 거는 좀 장난이 아닐까. 장난이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울한 사람은 어떠한 sns도 안 할 것 같아. 진짜로 우울하다면.” - 바닐라 (18세, 남)

겉으로 티를 안 내는 사람, 사람들에게 우울을 말 안 하는 사람, 우울로 인해

어떠한 sns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우울한 사람이라고 청소년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진짜 우울한 게 아니니까, 진짜 힘들면 말하지 못하는 거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청소년들은 결국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4) 우울을 말하는 것은 “관종”

우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울이라면, 반대로 우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청소년들은 이를 '관종' 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종'은 관심중자의 줄임말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재가 우울증이 걸리면 개나 소나 다 우울증 걸리냐 이러면서, 아 그냥 우울증 얘기가 나오면 시선이 안 좋은 애기들뿐이야. 재 지금 동정심 받으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 올레아이 (17세, 여)

“(sns자해 사진에 대해서) 그냥 그 애들이 관종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애들은 딱히 탓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각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약간 이걸 애정결핍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 - 포치 (19세, 여)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친구에게 동정심 받으려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며 말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sns에 우울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애정결핍증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우울을 말하면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우울을 말한 청소년들이 단순한 관심만을 필요로 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 나를 좀 봐달라” 하는 일종의 응급 신호 같은 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울을 말하지 못하기도 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은 우울을 계속 참고만 있는 걸까요? 저희는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우울에 대해, 우울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반응할까요?

5. 사회적 이해와 시스템: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나?

1) 우울함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

(1) 우울감을 말했을 때의 반응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인터뷰이들 중에는 우울함에 대해 처음부터 말을 안 한 사람보다, 말해 본 경험에 상처를 받아서 숨기게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회가 우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줍니다.

“계속 우울하다고 하면 우울감은 쉽게 오기 때문에 나도 같이 우울해지니까 듣기 싫다, 그런 건 좀 있었어요.” - 홍길동 (18세, 여)

“개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닌데 너만 힘든 척해?” 이러는 거야.” - 조 (18세, 여)

“나한테 “너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

했던 거야.” - 느림보 (17세, 여)

위 인터뷰 내용처럼 우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가혹합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청소년들이 우울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 선생님한테.”- 조 (18세, 여)

“내 방을 보면서 ‘너 악마 썩인 거 같다’ 그런 소리 하고. 막 ‘너 방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 임서영 (17세, 여)

“너 그럴 거면 그냥 정신병원에 내가 가뉘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 느림보 (17세, 여)

그냥 ‘듣고 싶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배척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악마가 썩인 것 같다’ 거나, ‘정신병원에 가둔다’ 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말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잊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조금만 우울해도 ‘나 병원에 가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 청소년의 우울감, “사춘기일 뿐”?

청소년기에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은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터뷰이들이 불쾌해했기도 하고, 자신이 이렇게 보일까봐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춘기라는 말에 청소년을 미숙하게 보는 시선이 담긴 것 같습니

다. 한국에선 청소년이 뭘 해도 저건 미완성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 같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나이 때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사춘기 그때는 원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 네가 유별난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네가 힘들어서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느껴지는 거지, 네가 그렇게 유별나게 막 우울증이 있고 네가 심하고 네가 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서 너를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 - 느림보 (17세, 여)

“내가 보기엔 너 중2병이다, ‘내가 찾아본 중2병 모습인데, 너랑 닮은 거 같아, 너랑 많이 비슷하다, 넌 이거 보고 완화를 좀 해라.’ 이러면서.”
- 임서영 (17세, 여)

“사춘기 그때는 원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 학교에서 이런 말은 흔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교사한테 “고등학생은 원래 힘든 것이 맞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원래 아픈 것이 맞다”고. 그래도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항상 기억에 남는다면 묻지도 않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청소년 우울을 아름다운 성장통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한 몫 합니다.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하나같이 미숙하고, 작은 것에 쉽게 흔들리고, ‘반항’하는 청소년도 알고 보면 연약하고 본성은 맑고 깨끗한 존재로 나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라는 청소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2) 학교가 청소년의 우울을 대하는 방식

(1) 학교 내 상담기관, 위클래스에 갔더니

청소년을 미숙하게 생각하는 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위클래스가 있지 않냐” 는 말은 반박하기도 지칩니다.

“갑자기 그 친구에게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 토끼 (18세, 여)

“그거 다 담임선생님들 귀에 들어가. 완벽하게 비밀보장 안 되고 부모님 들한테도 들어가고”. - 조 (18세, 여)

“제가 그냥 되게 가족 내에서 불화가 있었는데, 그걸 저의 위클래스 쌤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호출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진짜 울고 불면서 진짜 부르시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계속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뒤에 저희 어머니를 학교로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엄청 혼났습니다.” - 레고 (19세, 여)

“(위클래스가) 약간 보건 선생님 같은 느낌? 밴드 붙여주는 느낌?”

- 호돌이 (18세, 남)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클래스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닐까” 라거나 “공부에 집중을 해 봐라” 는 식의 무지한 말은 오히려 혼합니다. 그래서 위클래스 상담이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 청소년들도 이미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불안은 비밀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나 상담시설을

가도 비밀보장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법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기본입니다. 누가 믿고 비밀을 얘기했을 때 비밀을 지켜주는 것 말입니다. 근데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청소년일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일단 위클래스에 가기만 해도 담임교사가 알게 됩니다. 레고의 사례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고요, 울고불고 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담시설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2)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되는 정서검사

그런데 정서검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한 애가 있는 거야. 이제 학교 측에서는 약간 일단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없애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받게 하고 이번에는 완전 거짓말로 꼭 다 체크를 하고...” - 익선 (17세, 여)

“(선생님이) 니들 이거 (정서검사) 너무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뭐 한달 정도 ‘너무 죽고 싶다’ 시험 못 본 거 가지고 그런 거 체크하는 거 아니라고, 니네 이거 위험군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정신과를 가야된다. 정신과가 뭔지 아냐, 정신병원이라고, 아니 뭐라는 거야, 알고 있지” - 익선 (17세, 여)

“내 옆의 짝이 체크를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었나봐.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너 진짜 이거 맞냐고 이러면서, 너 그냥 잠깐 그런 생각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와서 이렇게 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 익선(17세, 여)

“음, 그거는 내가 그 정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체크를 한 게 자신의 몸에 상해를 끼친 적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내가 그 때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예’라고 체크를 했는데 그 뒤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라고 체크를 했는데 선생님이 상담을 받으라는 거야. 담임쌤이. 그래서 “저 안 받겠다고 체크 했는데요?” 그랬는데 그냥 한번 받아보래. 그래서 선생님 싫어요, 했는데 위클래스 선생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야. 한 번 받아보는 게 어떻냐고.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받게 됐어.” - 올레아이 (17세, 여)

정서검사서 사실대로 응답을 하면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재검사가 뭔지 아시나요? 우울 정도가 높게 나온 청소년을 위클래스로 불러 ‘정상’상태로 나오도록 다시 검사를 시키는 겁니다. 무슨 10년 전 얘기 이런 게 아니라, 2019년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검사를 하는 동안 교사가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네 이거 위험군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정신과를 가야된다.” 이런 말을 검사하기 직전에 교사가 교탁 앞에서 한다거나, 청소년들이 검사를 하는 동안 교사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모니터 화면을 대놓고 본다거나, 그렇게 보다가 청소년이 우울하다고 응답을 하는 거를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돼” 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검사를 진행하는 교사가 바로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위클래스에 대한 신뢰는 점점 떨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억압 속에서 누가 진짜를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정서검사는 우울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울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골라내기조차 힘듭니다.

(3) 한편, 학교 밖에서는

학교 안의 상담시스템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정신과를 가면 된다, 외부 상담기관을 다니면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학교 밖 상담시스템이야말로 청소년차별의 끝을 달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소년이 혼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신과나 상담시설의 비용을 청소년이 감당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상담비가 너무 비싸. 한 번 한 시간 하는 데 6만 5000원. 내가 다니는 데가 사설이야. 그리고 약값도 너무 비싸. 2주치를 받았는데 2만 8000원이 나온 거야.” - 조 (18세, 여)

“이번에 끼는 거의 한… 삼사십만원 들었어. 검사지만 오십만원이었는데. 오십오? 너무 큰 금액이잖아. 우리 학생들이 구하기가.”
- 익선 (17세, 여)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간 병원에서는 청소년은 비청소년들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상담과 치료가 부모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상태를 검사지를 그 결과를 엄마아빠한테 알려주는데, 그걸 엄마아빠한테 알려주겠다는 것도 말 안 했고, 결과를 나한테는 알려주지도 않

은 거야. 개 빠친 거지. 물어보지 않았으면 엄마아빠가 그냥 다음주에 가서 결과를 듣고 왔겠지. 처음 갈 때부터 아예 비밀 보장을 해 달라고 내가 엄청 강조를 했거든.” - 익선 (17, 여)

“엄마는 친구관계고 아빠는 남자관계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엄마랑 친해져야 될 거 같다’ 이러면서. 내가 엄마랑 친해지기는 싫는데 친구는 많이 사귀고 싶으면 어떡하나 이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또 설득을 하는 거지.” - 익선 (17세, 여)

익선의 인터뷰를 보면, 내담자 당사자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는 비밀로 하고 부모에게만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시간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 이것도 위에서 언급했던 위클래스의 이야기처럼 이 청소년이 얼마나 비밀보장을 강조하고 불안해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 상담의 목적이 보호자와의 관계개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폭력을 겪어 상담시설을 찾아간 청소년에게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엄마랑 친해져야 될 것 같다”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예상은 되는 얘기들입니다.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진짜로 청소년이 안전하다고 여길만한 상담공간은 어쩌면 아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내담자는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6. 체념과 존버(존나 버티기): 우울하다고 말 못하는 청소년들의 생존 방식

1) 체념하고 고립되기

청소년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체념과 고립은 처음부터 생긴 감정은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나중에도 이러겠지 라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이지요. 제가 인터뷰 했던 사람들은 모두 우울을 말했다 좌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도움을 못 받아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아예 들어줄 존재가 없어서입니다. “항상 이렇지 하고. 항상 이러니까. 이번에도 이러겠지.”, “그냥 계속 이 상태가 쭉 이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온 우주만큼은 아니어도 내 우주에서만큼은 나 혼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욱이 혼자 있게 되지요.

2)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기

계속 혼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시야가 굉장히 좁은 생각을 말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계속 어두운 쪽으로만 떠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하고, 계속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는게 최선이겠거니 여기게 되는 것 입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뭔가를 더 하거나 다른 걸 찾아야 하죠.

3) 우울감, 게임으로 완벽하게 잊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게임으로 완벽하게 잊으려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우리는 이 휴대폰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나면 잠시나마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도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시거나 어쩌면 해 보았을 말에는 “핸드폰 좀 그만 봐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이렇게라도 잊으려 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 버티기: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어”

생각을 안 하는 방법으로는 누워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어렵기도 한 방법이지요. 무슨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기도 하고 방에서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오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집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상한 건 집에 가서도 집 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집이라고 말하는 공간으로써 집도 있지만 편안히 숨을 쉴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거나 누워있는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거는 걸 알아요.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기쁘고 기분 좋은 일보다는 우울하고 힘든 일 일수록 더 잘 기억나거든요.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감정이 지나간다는 건 견뎌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냥 버텨야 하는 거라고, 태풍이 지나가는 건 태풍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태풍이 그냥 훑 치고 지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다들 버티고 있나 봅니다.

위 방법들 또는 각자 다 다른 방법들로 우리는 우울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방법들이 이해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당장 답이 될 수 없고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보니 하지 말라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쉽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인터뷰 중 우울이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

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치료할 수 없는 거다 그냥 껴안고 살아가는 거 말고는 나도 답을 모르겠다” 고 답했지요. 우울과 지내려는 사람도 존재했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 밖에 모르는 방법들로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너무 애쓰며 각자만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물어본다고 해도 그 친구의 삶에 있어서 그저 잠시 스친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 말 한마디 묻고 또 그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괜찮다고 해도, 이 순간이 끝나기를 바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버티는 행동들이 그저 어떻게든 살아가기를 바래서, 정말 그냥 살아서 또 다시 마주칠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결론: 말 좀 하고 살자, 우울을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

1)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남으려 애씁니다. 우리 질문이 왜 말 못할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을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한 한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울한 얘기) 많이 했지. 얘기 못 했으면 아마 잘못됐을 걸? 도움을 받았지. 그 당시에는 도움을 줘도 고맙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도움을 엄청 많이 받은 거지” - 아침 (47세, 여)

“난 내가 겪었으니까.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게 중요하지.” - 조 (18세, 여)

인터뷰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경청해주길 원합니다.

“그 친구만큼은 나한테 의지할만한 친구인 것 같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막 심하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들어주고 ‘그럴만 했겠네.’, ‘네가 이상한게 아니라 그냥 네가 당연히 우울하고 힘들만한 상황인거야.’ 라고 얘기 해주는 친구인 것 같아.”

- 올레아이 (17세, 여)

그리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나의 이야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말했을 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참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할건데?’ 라는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으로 바라봐주면 우울한 청소년들도 말 한 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특수성일 수 있는데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심리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거나 명확히 하거나 그 어떤 감정이라도 순수하게 존재해도 된다, 라고 받아들이기는 문화가 아닌 거야. 우리는 인내를 강조하는 문화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높고, 그렇다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 칭찬도 많이 하는 문화도 아니야. 약간 평온을 지향하는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 은하 (33세, 여)

우울하고 어두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우울을 안고 사는

청소년들은 더욱 고립됩니다. 그리고 우울한 청소년들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난 내가 겪었으니까. 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지." - 조 (18세, 여)

조는 자신의 우울감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외로워서 우울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연구를 하며 '우울해서 더 외로워지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우울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점점 고립되어가고, 우울감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의 우울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하기 전 "나 혼자만 우울한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저 말고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나 혼자만 우울한 걸까?'라고 질문을 한 건 어찌면 우울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워서 우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말 해야겠습니다. 나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말해도 되는구나 해서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청소년의 우울감, '청소년기'의 문제로 만들지 말 것

사춘기라서 그렇다,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울함을 말한 청소년들이 흔히 듣는 말입니다. 우울이 지나가면 사라

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모여서 쌓이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자체만의 사고 능력이 있고, 또 저희만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 자체를 병리 현상 취급하는 분위기가 만연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 레고 (19세, 여)

하지만 레고는 우울이 감기가 아닌 암과 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방치해두면 점점 더 퍼지는 암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는 거다? 누구나 오는 거고, 청소년기에 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인생의 힘든 시기가 그 때인 거지, 상황은 바뀌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울한 건 아니잖아.”

- 아침 (47세, 여)

우울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누구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주변의 청소년 혹은 친구가 본인의 우울에 대해 말해준다면 단지 그 사람을 청소년이기 때문으로, 사춘기로 보지 말고 한 번 깊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상담 받고 약 먹었으니 이제 다시 공부해?

“상담 받고 약 먹었으니 이제 다시 공부해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받고 약을 복용 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치료되는 일.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인터뷰이가 말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쉬라고 말해줬던 사람이 나중에는 병원 가는 것과 약을 복용한다는 걸 알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학업에 미쳐 살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계속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금세 낫는 병이라고 다 나았을 것이라 생각하더라고요.” - 천슬 (18세, 여)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게 ‘뚝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울이란 감정은 쉽게 손안에서 통제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존중이 필요하다: 당신은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우울을 경험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같다고요. 저 방법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최선일 때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이가 삼일 동안 밥을 굶은 적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에 걸쳐서 인터뷰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맥락이 다 납득이 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건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야’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험해 보여도 본인이 선택한 생존전략이 최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너무 애쓰고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 너무

로 깊고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린 모르는 걸 인정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존중이지 않을까요?

○ — 제5장 정책제언

1. 청소년참여 관련 실태조사 결과

-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제언
- 3) 기대효과

2. 10대 연구소 운영사업 결과

-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제언
- 3) 기대효과

1. 청소년 참여 관련 실태조사 결과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고민 중 ‘진로(직업)’에 대한 고민은 학업성적 고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⁷⁾. 청소년정책 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결과에서는 ‘진로와 직업’ (55.6%)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11.4%)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청소년정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체험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 중 중학교 시기에는 자신에 대한 흥미와 적성의 탐구 및 가치관 탐색, 고등학교 시기에는 자신이 결정한 진로를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듯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도 ‘진로와 직업(55.6%)’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들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 -2022)⁹⁾에서도 “청소년주도의 활동 활성화-청소년 진로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로 삼고 있지만, 정책 수요

7)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2019.12). ㈜지알아이 리서치

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의 영역’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체험 활동’에 대한 응답률은 높으나, ‘진로와 직업’ 관련 분야의 응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 활동을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진로 및 직업 관련 콘텐츠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전국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228개소 중 청소년수련시설⁸⁾ 내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34개소⁹⁾로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및 교과연계 등 초·중고 학생 대상 진로 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 정책의 성과로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진로에 관한 욕구도 높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와 자원 투입이 절실한 때일 것이다. 또한,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주제로 ‘자기주도성 증진(42.2%)’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진로직업에 관한 고민 해결과 그것에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지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1) 수요자 중심의 진로 및 직업정책 발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관련 중점과제들, 대상별

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을 말함

9) 청소년수련관 24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8개소. 2019 전국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조사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공)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등과 같은 과제들이 진정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들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관련 요구는 심플한 편이다. 즉, 자신들의 흥미와 적성을 알고 직업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좋아하는 직업이 없거나, 진로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중학생의 경우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모르겠으며, 어떤 직업 및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과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 등에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한다거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사업 가운데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장려, 촉진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자유학년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진로 및 직업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방안 구축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성과는 교육부 자유학기제를 서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책 중 '진로체험활동'을 주도 또는 지원하는 정책성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각 센터의 개별적 책무성보다는 주무부서로서의 지원과 감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현황 및 실태 파악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상담복지센터 등이 청소년 진로 전문 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청소년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이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에

서도 나타났듯이,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진로와 직업영역에서 실제적인 정책성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청소년계의 진로 및 직업 관련 분야의 역량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활동진흥원 및 각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와 각 지역 단위가 연계하여 각 지역별로 청소년 진로 및 직업 분야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진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협의체 구축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안전한 청소년진로체험활동 환경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진로체험과 관련하여 전국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중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진로체험지원센터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적용에 따라 성범죄 조회업무가 의무사항이므로 직접 경찰서에 직접 의뢰가 가능하나 그 외 지역센터는 그 절차¹⁰⁾도 까다롭고, 여러 기관의 행정절차를 거침에 따라 애로사항 발생으로 인해 청소년진로체험활동이

10) 성범죄 조회 업무 절차

- 교육청/지자체 직영 센터 및 청소년 활동시설이 아닌 위탁 센터
 - 센터에서 체험을 진행하는 학교로 조회 의뢰 → 학교에서 경찰서로 조회 의뢰 공문 발송 → 경찰서에서 학교로 공문 발송 → 학교에서 센터로 공문 발송
 - 또는 센터에서 교육청/지자체로 조회 의뢰 → 교육청/지자체에서 경찰서로 조회 의뢰 → 경찰서에서 교육청/지자체로 공문 발송 → 교육청/지자체에서 센터로 공문 발송
 - 위 방법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 강사가 직접 경찰서에 의뢰
 - 경찰서에 직접 조회를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러 기관의 행정절차를 거침에 따라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느림
 - 담당교사 및 교육청/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 업무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음
 - 긴급하게 조회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움
 - 성범죄자 알림e(<https://sexoffender.go.kr>)도 활용하고 있으나, 모든 성범죄자가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으므로 한계점 존재

성범죄로부터 불안정한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19년 9월 현재, 전국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중 위탁운영 형태인 140개 센터 가운데 직접 성범죄 조회가 가능한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된 34개소(전체의 15%)에 불과하다. 보다 안전한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제공을 위한 법·제도 환경 마련 필요하다.

표 V-1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형태

연도	위탁 운영	지자체 직영	교육청 직영	센터 수	비고
2019	140	21	67	228	

※ 34개소: 청소년 수련관 24개소, 청소년 수련원 2개소, 문화의 집 8개소 (‘19 지역센터 현황조사 자료기준)

(4) 정책 수요자(청소년) 입장에서 정책 계획 및 실시의 필요성 인식

청소년 고민 문제 조사결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성적(52.8%)과 진로(33.4%)에 관한 부분을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입증하듯 청소년들은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으로 과반수가 넘는 55.6%가 진로와 직업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 정책을 전달하는 청소년현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소년 체험과 활동, 보호와 복지, 권리와 참여, 문화와 여가 같은 정책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청소년들은 그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여기서 청소년현장과 학계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은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한 활동과 체험, 권리와 참여 증진에 관한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 정책이 공교육인 학교와의 상생적 네트워크와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원하고 지향하는 주제의 영역은 간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정책과 공교육정책 또는 학교교육정책으로 정책을 이원화 하는 이분법적 접근도 시대착오적인 청소년의 인구가 줄고 사회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

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청소년정책과 현장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5) 청소년 권리인식 및 참여증진을 위한 시민교육강화

청소년참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에서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64.0%로 나타나 본인들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포털이 필요하다는 82.4%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청소년 참여 정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거나(93.8%), 우리사회에서의 청소년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61.6%)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청소년참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생활 밀착형 청소년 주도의 의견 수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1년간 활동을 지속하지만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위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이나 교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참여 정책이라는 훌륭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는 60%가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학교와 청소년 기관에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차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참여 연령은 OECD 국가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제 시민성과 시민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ies)중, 2016년 참여한 24개국 중에서 낮은 집단에 속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 증진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시민교육 참여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견조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권리 인식의 증대를 위해서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이용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청소년 자기주도성 증진을 위한 활동방향 정립

올바른 성장을 위한 주제로 ‘자기주도성 증진(42.2%)’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진로직업에 관한 고민 해결과 그것에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OECD의 학습나침반 2030에서 제기하는 학생 자기주체성(Student Agency)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개발경제 시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우선으로 고민하는 포용적 성장 시대로 변화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 청소년들의 경제적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여 포용적 성장 시대에는 체험활동(학습)의 결과로서 청소년들의 웰빙이나 지속가능한 삶이 강조되고 있기에 청소년활동에도 이와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기회를 감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체성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조사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정책수혜자인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응답이 나왔다. 이는, 과거의 청소년을 바라보는 대상과 달리 청소년 각각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추진되었던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사업의 가치의 일부인 ‘청소년을 대립과 갈등 시대에 포용의 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주도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활동 내용이 필요하다.

(7) 청소년 참여의 보편화를 위한 참여활동 인식 개선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입시 및 학업 우선으로 청소년이 당사자가 된 의제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의 역할과 역량발전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지지와 장려 분위기 조성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제 참여 사업이 일부 청소년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다양한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홍보도 필요하다.

3)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자(지도사, 상담사)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의 존재 이유는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 역량 강화 그리고 문제해결 등에 있으며 이에 청소년지도자의 진로 분야 역량 강화, 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진로분야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요구라 할 수 있는 진로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그리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이 청소년 자신의 삶 및 시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가 있음을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실증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이 추구하는 보편적, 선택적, 선제적 청소년복지의 증진과 더불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다. 청소년 맞춤형 청소년정책이 입안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책참여가 활성화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의 중복방지와 예산낭용 방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책별 예산의 올바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는 청소년의 다양한 생애핵심역량을 극대화하고 개발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과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개발 및 실행, 평가의 여러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청소년 개인의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협업역량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10대 연구소 운영사업 결과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의제 참여 및 권한 강화는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이며, 청소년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심 정책을 모색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세계에서 주목(미 UCLA YPAR Hub 등)받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와같은 접근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참여형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지식을 연구하여 청소년정책 의제화하는 것은 청소년 의제참여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또래가 경험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연구하여 정책 의제화하는 과정 자체로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참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참여형 실행연구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형 실행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그 결과로 청소년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정에서 청소년은 연구 대상으로 존재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지식은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진 전문가가 연구 대상을 통제하고 생산한 지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청소년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당사자 참여형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지식과 청소년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청소년의 권한과 주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의미를 분석하여 살아있는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원 폭력, 페미니즘, 청소년들의 우울감 문제는 현 시대 청소년들과 밀착되어 있는 일상적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분석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당사자 문제를 같은 10대 청소년내에서도 다른 인식들을 찾게 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들의 삶과 의식을 단편적이 아닌 보다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그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형식적인 청소년참여 활동의 모형을 성찰해 보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그러나 연구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청소년 당사자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특히 어떻게 정책 의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청소년 참여형 연구의 가치를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1) 연구방법의 유연성을 담아 낼 수 있는 구성 체계 마련

청소년 참여 연구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이 활동은 이론에 대한 타당성이나 경험적 증거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순수연구보다는 어떠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실생활의 문제점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에 대한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응용연구가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절차, 연구방법과 이론 등 전문 지식과 노하우들을 배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연구주제들을 자유롭게 쉽게 담아 낼 수 있는 접근방법의 적절한 연구틀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 방법이 고유의 연구틀에 갇힌다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유연성이 담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연구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 활동이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청소년 수준에 맞는 연구들에 대한 연구와 방법들이 제시된다면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기주도 연구수행 지원

디지털문명의 발달로 새로운 학습 공간과 학습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술의 사용과 놀이적인 요소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은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거의 무한의 학습자료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까다로운 주제들을 실제성 있는 소스와 그래픽 동영상, 그림과 놀이 요소를 이용해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면 학습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당한 수준과 속도로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의 유토피아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학습 환경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빠르게 바꿔놓았다. SNS를 통해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정보들은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좋아요”든 “화나요”든 즉각적인 공감, 즉 집단적 동조를 압박한다. 이런 동조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이고, 길들여진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활동은 단순히 기존에 자신에게 있던 수확능력과 같은 기술이나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위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청소년을 위한다며 청소년에게 뭔가를 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스톱을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멈춰 서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객관화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함으로써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으로 이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상호 평등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청소년 참여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존중하는 평등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적용한 것처럼 참여자들의 직책이나 직급, 나이와 학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청소년들 간의 평등한 문화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풍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4) 청소년 참여형 연구 목표의 명료화

이 사업에서 청소년 참여형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서 존재하던 청소년의 위상을 연구자로 격상시킴으로써 기존의 연구자-연구대상 구별과 권력 위계를 허무는 시도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의 권한과 주체성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의 역량개발, 사회참여, 자기주도성 함양 등과 같은 청소년의 성장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접근이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형 연구로 추진된 10대 연구소 사업의 목표이자 성과는 이 사업에 참여한 몇몇 청소년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청소년 당사자 연구 결과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인 의미 또는 학문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당사자 연구 결과가 청소년에 대한 지식의 축적에 기여, 연구 결과에 따른 사회적 공론화, 정책 의제화 등 여러 분야에 의미 있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당사자 연구결과와 학문적 또는 사회적 활용까지를 포함하여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 참여형 연구를 추진하게 되면, 연구결과가 현상에 대한 기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각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전문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5) 지도방식이 아닌 자기주도성을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연구지원

프로젝트 방식의 연구 활동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결정의 원칙을 배우고, 개인차나 개성을 존중하고, 유연한 발상과 대담한 궁리를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통해 여러 가지 힘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와 청소년, 청소년과 청소년들 간에 더 평평해지는 원칙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치의 원칙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가 활동을 지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과 토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 스스로가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계획해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청소년 당사자 연구 지원사업의 운영의 확장성 제고

청소년 당사자 연구는 전문성이 부족하기는 해도,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공익법인 등에서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전문적인 연구자에 의한 지원이 아닌, 청소년 개인 또는 동아리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청소년지도사나 학교 교사 등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관심 있는 청소년의 졸업이나 지도자의 이직 등의 계기로 활동이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소년의 당사자 연구활동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시설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 참여형 연구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시설이나 학교 등에서는 청소년문제나 사회문제 등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주로 활동 프로그램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의 동아리, 학교 내 연구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 기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당사자 연구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모사업 운영시에는 연구비의 지원은 물론, 10대 연구소 운영에서 개발한 청소년 당사자 연구모델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연구 역량증진을 지원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당사자 연구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해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론 등에 관한 교육, 연구보고서 작성방법, 학술세미나 발표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청소년 참여형 연구모델 확산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이 사업에서 10대 연구소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연구 전문성과 제한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진 청소년들의 당사자 연구를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청소년과 연구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면서 당사자 연구를 추진하였다. 청소년들의 연구자로서 정체성 형성하고 연구주제 탐색하기,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자 양성 특강 및 실습, 현장조사, 데이터 분석 및 발표 등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참여형 연구 모델은 향후 청소년 관련 대학, 연구소, 학회, 전문연

구자들이 적용할 때,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당사자 연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참여형 연구모델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연구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하여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당사자 연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 등 전문연구자들이 청소년 참여형 연구를 진행하도록 연구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8)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과 연구경험의 공유의 장 마련

이번 연구의 결과들이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들에게 폭 넓게 공유되기를 희망해 본다. 연구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고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에게 공유된다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될 것으로 믿는다. 가장 먼저 청소년참여기구의 청소년들과 공유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미 지역과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를 두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가 전국적인 의제를 만들고,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10여년 이상의 활동이 이뤄지면서 기존의 운영을 답습하거나 ‘왜’라는 물음보다 ‘어떻게’나 ‘무엇을’이라는 물음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얻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자기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지를 자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기구들과 10대 연구소 연구원들의 만남은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의 선정, 연구방법의 학습, 연구의 실행과 정리의 과정에서 대면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참여기구 청소년들의 큰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9) 지역사회 개발의 방식을 배우는 활동지원

1955년 유엔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지역사회개발이란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 조건을 개선하여 이를 국민생활에 통합하는 주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ICA(지금의 AID: 국제개발처)는 1956년 지역사회개발사업지침에서 “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들의 공통적 또는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충족,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로 볼 때 지역사회개발이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생활의 개선을 위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수행하는 사회개선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및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에 중점을 둔 청소년 활동사업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 역량강화중심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들도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 내고 생활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논의하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청소년 참여기구의 연구활동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의 의사결정참여, 청소년 의제 결정 및 권한 강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조직이다.

청소년 참여형 연구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이 연계하는 것이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즉,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하여 정책의제화 하거나 사회적 공론화 함으로써 연구 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청소년참여

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청소년정책에서 데이터 기반(Data-Based) 또는 연구 기반(Research Based) 정책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동에서 당사자 연구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참여활동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청소년 참여기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 당사자 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한다.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연구발표회, 연구결과에 근거한 청소년활동 운영,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의 제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지식 축적에 활용체계 구축

연구 결과의 지식 축적에 활용은 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당사자 연구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청소년연구지 발간, 청소년 학술대회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연구지의 발간과 청소년학술대회의 개최는 청소년 당사자 연구 공모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연구자와 전문연구자의 협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과 전문연구자 모두에게 체계적인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정책적 활용체계 구축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은 연구 결과를 활용한 정책 의제 개발, 정책 반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 당사자 연구의 활용은 국가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계획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 연구를 활용할 때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청소년정책계획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당사자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정책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시에 청소년 당사자 연구 및 결과활용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3) 기대효과

청소년 참여형 연구의 목표는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을 스스로 정의하고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정책의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청소년 중심 정책개발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당사자 참여형 연구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첫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직책이나 직급, 나이와 학력 등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함으로써 청소년과 비청소년간, 그리고 청소년 간의 평등한 활동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참여 청소년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 리더십, 비판적 사고, 쓰기 및 말하기, 의사 결정, 권익 옹호, 의사소통, 일정 관리, 회의 퍼실리테이션, 갈등 해결, 팀 워크, 연구 방법 등 다양한 미래역량기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 참여형 연구를 통하여 생산한 연구 결과와 지식들은 청소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연구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 지식으로 생산한 지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한 지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 참여형 연구 결과에 근거한 청소년정책은 수요자의 정책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정책 의제화를 통하여 청소년이 스스로가 원하는 청소년정책, 청소년 수요자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참여형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참여형 연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의사 결정, 회의 퍼실리테이션, 팀 워크 등 다양한 미래역량기술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참여형 연구 결과의 활용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정책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 스스로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청소년 정책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청소년 권한을 강화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참여 강화사업이 진정 청소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한 정책 대안 모색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남선, 김만희(2000). 참여연구법을 통한 청소년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A Study on Diagnosing and Solving Youth Problems by Participatory Research),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1), 135-160.

김현경(2015). “청소년 참여실행연구(YPAR)의 사회과 수업 적용의 실제”, *사회과교육*, 54(3), 87-103.

남채봉(2013).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시민교육연구*, 45(2), 31-65.

Anyon, Y., & Sandra, N. (2003), *Youth Empowerment: the contribution and challenges of Youth-Led Research in a Hirng-Poverty, Urban Community*,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pen Archive.

Maglajli, R.A, & Tiffany, J. S. (2006).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ith Youth in Bosnia and Herzegovina.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4(1-2), 163-181.

Hall, Budd.(1992). From Margins to Center? The Development and Purpose of Participatory Research. *American Sociologist*, 23(4), 15-28.

Public Health Institute Network for a Healthy California (2012),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 Review of the Literatur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Report 2017-2018. 출처: www.weforum.org

○ — 부 록

— 청소년 참여관련 설문조사지

부 록

설문 개요

연구과제명 :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1.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여러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설문은 일반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조사로부터 수집된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3자(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귀하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요구를 근거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 및 과제 발굴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나이, 전화번호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 및 답례품 제공의 용도로만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모상현 , 전화번호 : 044-415-2126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244

설문 조사(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조사”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청소년 참여 관련 설문조사

【문 1】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문 2】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세

【문 3】현재 귀하의 교급(학교)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중학교
2. 고등학교

【문 4】귀하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1. 학업성적 문제
2. 진로(직업)문제
3. 건강문제
4. 경제문제
5. 부모(보호자)와의 관계
6. 친구와의 관계
7. 이성과의 관계
8. 선생님과의 관계
9. 기타_____

【문 5】귀하는 요즘 자신의 일상(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0 (전혀 만족 하지 못함)	1	2	3	4	5 (보통)	6	7	8	9	10 (매우 만족)
-----------------------	---	---	---	---	-----------	---	---	---	---	------------------

【문 6】귀하가 생각하는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

1.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2.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3.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4.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5.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문 7】귀하가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싶나요?

1.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2.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3.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4.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5.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문 8】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증진
 2. 청소년의 권한 부여
 3. 청소년의 역량 강화
 4.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5.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
-

【문 9】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의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는 청소년 정책을 결정 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사회는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들이 정부책임자들과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포탈을 만들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 10】우리사회의 청소년 참여(사회문제/학교문제 등)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합니까?

1. 시간부족
2. 정보부족
3. 부모님의 허락문제
4. 선생님의 허락문제
5.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6. 참여 방법 모름

【문 11】우리 사회의 중요한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지 순위대로 답변해 주세요?

①학교폭력문제 ②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미디어 문제 ③자살,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④입시/진학 관련 문제 ⑤진로/직업 관련 문제 ⑥인권/권리침해 문제 ⑦음주/흡연 문제 ⑧친구문제 ⑨성관련 문제 ⑩남녀 간 갈등 관련문제 ⑪경제문제

11_1. 1순위

11_2. 2순위

11_3. 3순위

【문 12】위에서 언급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 중앙정부
2. 국회
3. 지방정부(도지사/시장 등)
4. 교육감/학교장
5. 시민단체
6. 청소년 자신

【문 13】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중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2. 청소년의 체험과 활동
3.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4.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5.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

【문 14】

귀하의 성함은?		연락처는? (휴대폰)	
----------	--	----------------	--

귀하께서 응답하신 성함과 연락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의견조사의 응답 여부 확인용 및 기프티콘 발송용으로만 활용됩니다. 그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ABSTRACT

Study on the ways to promote youth activities and competencies by running research project where the youth participat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to develop policy research and development led by the youth not only as a beneficiary but also as a policy subject and conduct a research project led and participated by the youth who can identify and execute the subject of the youth-led projec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youth policies required for the holistic growth of the youth.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youth policy and research outcome to the field and of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the youth in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 by incorporating the youth's opinion on relevant research and policies in a systematic way.

This study is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First,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clearer direction of the youth policy by exploring the needs of the youth based on identification of their demand and collecting their opinion to activate activities which are based on youth activities. It means to collect opinion of the youth and present policy proposals to boost youth activities from the participation perspective, identify problems or areas for improvement in youth policies, projects and programs in terms of field operation and explore ways for improvement.

Second, this study intends to push ahead with pilot project

for participatory activities by supporting the operation of the youth-led research project (teenage research institute) and explore ways to improve the **competencies** of the youth participation model. It means to move away from the youth activities led by formalized projects and to engage the youth in the community to participate in project-based program with a specific goal, sharing various views and promoting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to explore practical alternatives and explore applicable solutions for social issues. It is a youth participation-oriented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project in which teenagers investigate the youth directly and create social knowled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uth. It aims to empower the youth as the subject of youth-oriented policy environment and establish a practical model for youth participation activities. To this end,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nurturing competencies for the future such as cooperative decision making, teamwork and communication skills as well as self-driven attitude and explore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understanding of specific context of the youth life.

key words: youth, participate, competencies, youth-led project.

연구보고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계문사



연구보고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